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65호 HYUNBULNEWS.COM 2026년 2월 4일(음력 12월 17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잿더미 된 고운사 숲 스스로 회복하는 중”

불교환경연대 등 1월 26일 ‘고운사 사찰림 중간보고회’

예상 뛰어넘는 자연복원 속도 확인
포유류 17종 · 야생조류 28종 발견
단순 수목 재생 넘어 다방면 회복
등운 스님 “자연은 자연에 맡겨야”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 산불로 피해를 입은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의 사찰림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비롯한 생명체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잿더미가 됐던 사찰림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자연은 자연에게 맡겨두면 좋겠다”며 자연복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불교환경연대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안동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생명다양성재단 등 5개 환경단체는 1월 26일 의성 고운사에서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난해 8월부터 의성 사찰림의 자연복원 과정을 관찰한 결과 예상을 뛰어넘는 복원 속도가 확인됐다”며 “총 17종의 포유류, 28종의 야생조류가 발견됐으며 참나무류 등의 맹아와 함께 고사리, 야생화 등도 관찰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규송 강릉원주대 생물학과 교수, 한상훈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소장, 기경석 상지대 조경산림학과 교수, 홍석영 박사가 각각 식생·동물·음향·곤충 영역을 반년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고운사 사찰림이 단순한 수목 재생을 넘어 다방면에서 입체적인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규송 교수는 현장 조사에서 숲의 골격이 되는 참나무류 등 교목성 수종의 맹아 밀도는 헥타르(ha)당 평균 3922본으로 나타나는 등 고운사 사찰림의 76.6%에서 자연복원 징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산불 이후 자라난 식생이 토양을 덮으면서, 지난해 8월 기준 토양 침식 위험은 산불 직후인 4월보다 3.57배 감소해 산사태 등 추가적인 재난에 대한 예방 효과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맹아, 고사리 등 식생이 토양 유실을 막는 ‘녹색 붕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식생이 회복되면서 고운사 사찰림은 멸종위기종 동물의 피난처이자 이동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천연기념물인 수달, 담비와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비롯한 17종의 포유류가 확인됐다.

조류들도 발견됐다. 기경석 교수에 따르면 올빼미, 큰소쩍새를 비롯해 28종의 야생조류의 생존을 확인했다. 기 교수는 “오색딱다구리 등 산림 건강성 지표종의 출현은 곤충과 조류의 먹이사슬이 복원됐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곤충 조사는 곤충 활동이 줄어드는 10월에 시작돼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홍석영 박사는 올해 계절별 모니터링을 본격화해 과정을 추적하고 복원 방식에 따른 생태적 효과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연구진들은 이번 결과가 자연 회복력에 따라 인위적인 조림 없이도 숲이 스스로 구조를 갖춰가고 있고 불에 탄 고목은 동물의 서식처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산불 이후 무분별한 벌채와 획일적인 조림을 지양하고 자연복원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고 제언한 이들은 “고운사 유역은 도심이 얕아 인공 조림 시 토양 유실 위험이 큰 만큼, 자연 천이에 맡기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등운 스님은 “지난해 9월쯤 산 정상에 올라가 보니 고사리 등 온갖 풀들과 나무들이 다 움트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며 “자연은 자연에 맡겨두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소나무뿐 아니라 다양한 식생이 함께 어우러져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운사 자연복원 프로젝트는 5월까지 이어진다. 사계절 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인근 인공조림지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자연복원의 효과를 수치로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월 2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기 2570(2026)년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한국불교 지도자들 “연대로 ‘마음안보’ 이끌자”

종단협, 1월 27일 신년하례법회
국민 화합 · 세계 평화 발원해
대불련에 1000만원 후원금도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 지도자들이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극심해지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 속에서 자비와 화합, 연대를 바탕으로 국민 마음 평안을 위한 ‘마음안보’를 바로 세우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1월 2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기 2570(2026)년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헌등과 헌화를 시작으로 부처님께 삼배로 신년하례를 올리고, 서로에게 반배로 대중하례를 나누며 새해 인사를 전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 새로운 한 해의 시작점에서 한국불교가 나아갈 공동의 방향으로 ‘마음안보’를 강조했다. 스님은 “경제적 풍요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 시대”라며 “이제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넘어 ‘마음안보’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 마음이 안정될 때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화합하며 사회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교가 종단 간 화합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도덕적 중심이자 사회적 치유의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석부회장 덕수 스님(천태종 총무원장)은 신년인사에서 “우리는 불심으로 태어나서 불심에 의지해 살아가고, 어떤 어려움도 불심으로 극복해 왔다”며 “굳건한 불심이 나라 안녕과 국민 평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회장 상진 스님(태고종 총무원장)은 축원에 나서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운 융창과 국민 화합을 기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도 “‘자안시중생(慈眼視衆生, 자비의 눈으로 중생을 본다)’을 통해 서로를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화합의 길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정계인사들의 축사도 전해졌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딛고 국민통합과 화합의 길을 열어가는 데 불교계가 뜻깊은 동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올해도 크고 작은 일은 생기겠지만, 생기는 즉시 풀려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불교의 가르침에서 살아가는 힘을 얻고 용기를 내는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헌승 국회정각회장은 “새해에도 우리 불교계가 계속해서 국민이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의 길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정우 청와대 불자회장(AI미래기획수석)은 AI를 비롯한 신기술 발전이 불러오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불교가 주는 정신적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 회장은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사람 중심의 가치가 국정과 사회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꾸준히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동참 대중을 대표해 신년발원문을 낭독하고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화운동 실천 △재해·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 돕기 △국민 화합과 정치·경제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 △선명상과 진언명상 등 K-명상 확산 △열암곡 부처님 바로 모시기 △AI 시대 수행과 나눔문화 확산 △다문화사회 약자 보호 △한·중·일 불교계 연대를 통한 동북아 평화 구축 등을 거듭 다짐했다.

한편 이날 종단협은 선민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에게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김내영 기자

중앙선관위, 은해사 주지후보 소청 2월 2일로 연기

1월 28일, 제427차 회의서 논의
증인 채택으로 추가 절차 필요해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 이하 중앙선관위)가 은해사 주지후보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공개 논란과 관련해 덕관 스님이 제기한 선거소청 심사를 2월 2일로 연기했다.

중앙선관위는 1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42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덕관 스님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면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당 증인은 당시 선거 과정을 목격한 스님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2월 2일 심사에서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하고, 소청인(덕관 스님)과 피소청인(성로 스님)도 함께 불러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간사 무일 스님은 “선거법상 소청 접수 후 10일 이내 심사 결과를 결정해야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선거 소청 및 결정) 2항에 ‘소청이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이의 내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심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2시간 30여 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은해사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관련 영상 자료 3건과 양측이 제출한 서면 자료를 검토하는 등 선거 절차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내영 기자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

운경 대종사 "감명 주는 의례 만들자"

태고종 종정 신년하례 법회서
운경 스님 '종승연구원' 제안해
"정체성 정립, 의제 의례 연구"
상진 스님 "교구와 유기적 협력"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은 1월 27일 서울 백련사에서 '종정예하 배알 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종정 운경 대종사가 법어를 설하고 있는 모습.

"불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들은 의례·의식을 통해 대중에게 감명을 주고 교도들을 이끕니다. 하지만 오늘날 불교는 법회·기도·재를 함에 있어 대중에게 깊은 감명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태고종 종정 운경 상보 대종사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대에 맞는 의례·의제 변화와 종단 정체성 정립을 주문했다. 이 같은 변화를 위한 '종승연구원' 설립도 제안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월 27일 서울 백련사에서 '종정예하 배알 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하례법회에서 운경 스님은 법어를 통해 종단이 나아갈 방향을 제언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스님은 지난해 1만여 태고종도가 광화문광장에 모여 종단의 저력을 보여 준 '영산재·국제수계법회'에 대해 상찬하며 "태고종의 권위와 위상이 한결 높아졌다"고 총무원장 및 지방종무원장, 종단 주요 소임자 등을 격려했다.

그러면서 운경 스님은 현재 태고종과 지역 불교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대문구 홍은동에서만 태고종 사찰 4곳이 없어졌다"고 짚은 운경 스님은 "종단들이 연합했던 서대문사암연합회도 참여하는 사찰이 없다. 이는 비단 태고종만이 아닌 불교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운경 스님은 시대에 맞는 의례 변화를 강조하며 종단 내 '종승연구원' 설립을 제안했다. 스님은 "종단에서 발간하는 월간 〈불교〉에 언급된 내용이다. 한 신도가 '사찰에서 49재를 지냈는데 가슴에 와 닿지 않았다'고 썼더라"고 예시하며 "해당 사찰 스님들은 정성스럽게 의범에 맞게 재를 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신도의 마음에는 어느 하나 남지 않았다"고 되짚었다.

"무속을 찾는 사람들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남미에서 행해지는 주술에 현지인들이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운경 스님은 "가슴에 남는 것이 있어서다. 이제 우리도 가슴에 닿을 수 있는 의례를 만들어서 감명을 주는 종교 활동을 해야 한다. 감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데 가라고 해도 안 간다"고 강조했다.

운경 스님은 "종단 기구로 '종승연구원'을 개원해 종단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현실에 맞는 의례, 의제 등을 변화·개발해야 한다"면서 "조계종은 조계종연구소, 천태종은 종학연구소를 두고 외부 학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 우리도 종단 차원의 비전을 논의할 그룹을 만들어서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유기적 협력을 통한 종단 발전과 변화를 약속했다. 스님은 "종단은 종정예하를 중심으로 중앙종무기관과 지방 교구가 더욱 굳게 합심해 내적으로 종도들의 권익을 증장하고 종단 운영의 안정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면서 "외적으로는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종단으로 위상을 바로 세워 한국불교의 뿌리인 전통 종단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종단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와 실천의 원년으로 삼아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시도를 통해 종단 체질을 한층 건강하게 변화시키겠다"면서 "중앙과 교구, 각 종무기관이 서로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종단 정책과 방향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년하례법회에는 주호영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 김형동 국회정각회 부회장을 비롯해 김소희·김영호·곽상언·김동아·정을호 등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헌승 정각회장은 축사를 통해 "모든 중생이 본래 불성을 지닌 평등한 존재임을 강조하신 태고 보우 국사의 가르침은 오늘날 사회와 정치에도 깊은 성찰을 준다"면서 "저 역시 국회 정각회장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정치가 국민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또 사회를 화합으로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태고종은 지난해 광화문광장에서 봉행된 영산재·국제수계법회에 공로가 큰 개인과 사찰, 단체에 공로패를 수여했다.

"서울시의회, 청년대회 지원 특위 해체하라"

조계중 중앙종회 종교편향특위
1월 29일 회의서 성명서 채택
이른 시일 내 항의 방문 계획도



서울시의회가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회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활동 등을 예고한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보화 스님, 이하 종교편향특위)가 "공공정책 중립성을 크게 훼손한다"며 특위 즉각 해체를 촉구했다.

종교편향특위는 1월 2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의회 천주교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위원장 보화 스님과 위원 탄보·석산·무경·상원·수경 스님이 참석했다.

종교편향특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특위는 국민의힘 김현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시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향후 대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 건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화 스님은 "특별법에는 정부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행정·재정·시설 지원이 필요할 시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요청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종교편향특위는 성명서를 채택하는 한편 이른 시일 내에 서울시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사부대중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번 사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종교편향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특별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공무원 종교중립 의무 위반을 비롯해 국민 모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이라며 △서울시의회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위 즉각 해체 △국회의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철회 △국가, 지자체의 특정 종교행사 지원 행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내영 기자

법주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2월 26일

후보 등록 2월 5일까지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중앙종회의원 직선직 보궐선거가 2월 26일로 확정됐다.

제5교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덕 스님)는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2026년 1월 27일자)을 통해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직선직 1명에 대한 보궐선거를 2월 26일 오후 1시 법주사 대방에서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법주사 중앙종회의원 원경 스님이 직영사찰 강화 보문사 주지로 임명된 데 따른 것으로, 당선자는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잔여 임기를 이어받는다.

입후보자는 승랍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 종단 재적승으로 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스님이어야 한다. 후보 등록은 2월 5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선거권자는 △교구 재적승으로 중덕 이상의 비구 △교구 본·말사 주지 △교구본사에서 임명 받아 2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 종무원으로 당해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에 4회 이상 참여한 스님 △교구 선원에서 8안거를 성만한 스님 △관할 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스님 △교구에 4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고, 선거일 전 4년 이내로 각 목의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계종 중앙선관위원회는 2월 12일 회의를 열어 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2월 23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내영 기자

진우 스님, 이해찬 전 총리 조문…"극락왕생 발원"

빈소 찾아 헌화·법성게 봉독
"민주주의 발전 헌신" 추모


사진=공동취재단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월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실에 마련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조문에는 진우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 총무부장 성웅 스님, 기획실장 묘장 스님, 포교부장 정무 스님, 교육부장 유정 스님, 재무부장 여학 스님, 사회부장 진성 스님, 미래본부 본부장 일감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 스님이 함께했다.

빈소에 들어선 진우 스님은 헌화 후 삼배를 올리고, 법성게를 봉독했다. 유가족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으며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조문을 마친 진우 스님은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전 총리님께서 갑작스럽게 입적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애통한 마음"이라며 "극락왕생을 간절히 발원한다"고 애도했다.

스님은 이어 "전 총리님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셨고, 그 뜻을 현실 정치에서 실현하기 위해 책임을 다한 분"이라며 "앞으로 후세들이 유지를 잘 받들어 우리나라가 온전한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열매 맺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이해찬 전 총리와의 인연에 대해서도 "총리 재임 시절 여러 차례 만나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국가 번영에 대한 담론적인 대화를 나눠 왔다"고 회고했다.

김내영 기자



송강범음범패전승회

수업형식 수료 1년 과정 (2년 코스)
개 강 2026년 양력 3월 6일 금요일
교육시간 매주 금요일 마다 오전 9시
교육내용 아침예불/ 종성/ 사물다루는 법 (목탁, 요령, 북, 태징)
천도재 (49재의식), 천수바라, 사다라니, 도량게, 다게
수강자격 불교의식에 관심 있는 스님, 포교사 및 재가불자
교육장소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목길 51-142 봉운사
문 의 사무총장 진효스님 휴대폰 010-5306-0856
은행 농협 351-1034-0234-33 송강범음범패전승회

매주 금요일 교육 시간표
오전 9시 49재의식 진효스님
오전 10시 49재의식 진효스님
오전 11시 작법 진효스님 / 보조 정심법사님
오후 1시 화청연습 정덕스님
오후 2시 행사연습 진효스님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회장 웅천 합장(合掌)
▣수업 시간표는 다가오는 행사 일정 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요행사문의 – 윤달 생전예수재, 수륙재, 방생, 1000기도 회향법회, 점안식 홈페이지 www.송강범음범패전승회.kr
회 장 웅천스님 010-2370-2953
부회장 혜덕스님 010-9873-3320 / 강주 진효스님 010-5306-0856
SGBE 魚山

출강 및 통신 2026학년도 제35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 교육 신입 수강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법사 양성의 독보적인 전문 교육 도량으로서 35년의 학풍을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법사 활동 외연 확장을 위해 숲명상전문가 2급 자격 취득(산림청 민간자격증)의 기회도 겸비할 수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
불교 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 동영상미디어 강좌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원서 교부 및 접수
2026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입학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깨달음의 법(法)·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한선빌딩 3층
홈페이지 : http://pubsa.net(검색창에 한국불교법사대학)
문의 02)733-1959, 02)720-1836

아름다운동행, '지속가능 나눔' 본격화

1월 28일, 2026년 신년기자간담회
체육 인재 지원·NGO 공모 추진
탄자니아 농업대학 10주년 기념도
법오 스님 "나눔의 길 흔들림 없이"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아름다운동행이 1월 28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6년 사업 방향과 주요 계획을 발표했다. 상임이사 법오 스님이 운영기조를 설명하고 있다.

조계종이 설립한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이 2026년을 '선순환 나눔 원년'으로 삼고 국내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중장기 지원 체계를 본격화한다. 체육 인재 성장 지원사업과 NGO 공모사업이 새롭게 선보이는 한편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개교 10주년을 계기로 국제개발과 수행·교육을 결합한 불교형 지원 및 포교 모델도 한층 확장할 계획이다.

아름다운동행은 1월 28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6년 사업 방향과 주요 계획을 발표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올해 운영 기조로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 △국내외 사회적 약자 중심 지원 강화 △국제개발 및 인도적 지원 확대를 제시하며 단발성 후원을 넘어 삶의 변화를 이끄는 구조적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미래세대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체육 인재 성장 지원사업'이 신설됐다. 재능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훈련을 지속하기 힘든 중·고등학교 체육 유망주를 발굴해 고등학교 졸업 시점까지 최대 6년간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지원한다. 학교와 관련 기관 추천을 통해 선발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재능의 성장을 돕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사업인 자립준비청년 지원 '희망플러스', 한부모가정 아동을 위한 '위시박스', 저소득층 예비 초등학생을 위한 '책가방 보내기' 사업도 지속된다.

'NGO 공모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사회복지, 환경, 미래세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역량있는 비영리기관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변화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현장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를 통해 복지·환경·국제개발 영역에서 불교계 공익사업의 외연을 넓히고 민간 비영리 영역과의 연대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경을 넘어 인류애를 실천하는 글로벌 자비나눔도 확대한다.

해외 사업의 중심에는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이 있다. 2016년 개교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은 농업 기술 교육을 통해 지역 자립을 이끄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 10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현지 학생과 주민이 함께하는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지난 성과를 돌아볼 예정이다.

농업기술교육과 더불어 학생들의 정서 안정을 돕기 위해 탄자니아 법당 '보리사'를 중심으로 선명상 프로그램도 체계화한다. 매주 금요일 저녁 운영되는 선명상 프로그램은 이론 소개부터 올바른 자세, 호흡법 안내, 실제 명상 실습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돼 있다. 학업 스트레스 완화와 내면 성장을 돕는 수행 프로그램으로 현재 현지 청년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게 아름다운동행의 설명이다.

국제 인도적 지원도 확대를 위해 튀르키예 이스켄데룬 지역 생활 개선 지원에 나선다. 조계종은 2023년 대지진 이후 이스켄데룬 지역에 컨테이너를 개조한 임시 거처인 '한국마을'을 조성했으나 임시 거주 장기화로 여전히 사회·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월부터 12월까지 이스켄데룬 '한국마을'에 음수대 설치, 청소년 학습기기 후원, 취약 가정 자립성 회복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네팔 산간 지역에는 교육시설 개보수를 통해 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 돌포 지역으로 티베트 아래 산간 지역으로 불자들이 많은 곳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와 재건 지원에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법오 스님은 "2026년은 자비가 일회적 도움을 넘어 삶의 구조를 바꾸는 힘이 되는 해"라며 "한 번의 도움이 아닌, 지원 이후에도 삶 속에서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연속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계종복지재단, 라오스 환아 치료비 1억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1월 26일 라오스 국립아동병원에서 열린 '국제 소아암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1월 26일, 라오스 '소아암의날'
환아에 후원품 전달 쾌유 기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재단)이 1월 26일 라오스 국립아동병원에서 열린 '국제 소아암의 날(International childhood Cancer Day)' 기념행사에 참석,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금 1억원을 전달하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라오스 환아들과 가족들을 격려했다. 또 라오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협력단체들을 만나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 참석한 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아이들의 아픔은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고통"이라며 "재단을 비롯해 한국의 많은 후원자들이 늘 아이들 곁에 함께하고 있으니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병마를 이겨내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도륜 스님은 다음날인 1월 27일 재단 라오스 지부를 방문해 지부를 이용하는 환아들을 격려하고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1월 28일에는 지구촌공생회, 새마을재단, 굿네이버스 라오스 지부 등 국제협력단체를 방문해 의료·교육·지역개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임은호 기자

고랑랄 다스 인도 대사 "국민 평안 함께"

1월 29일, 진우 스님 예방서
불교 교류 확대로 우호 증진



고랑랄 다스 신임 주한 인도 대사가 1월 2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한국과 인도 간 불교 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진우 스님은 "인도가 힌두교 중심 국가임에도 모디 총리를 중심으로 불교 성지 복원과 개발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 순례자들에게도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준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고랑랄 다스 대사는 "인도가 불교유산을 지닌 나라라는 점이 자랑스럽다. 국민 대다수는 힌두교인이지만, 불교의 전통과 가치는 인도 사회 전반에 깊이 녹아 있다"며 "불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도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교통 인프라와 연계해 불교 성지를 재건하고 불교를 알리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인도는 세계 정신문명의 원류로, 종교와 철학이 전 세계로 확산됐다. 수행의 핵심인 '선' 역시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이어진 전통"이라며 "조계종에서도 '선명상'을 세계인에게 알림으로써 마음 평안과 평화로운 세상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고랑랄 다스 대사는 "마음 평안은 종교가 필요한 이유이자, 세계를 통합시키는 힘"이라며 "조계종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문화·철학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충청 불교계, '권역 전법 협의체' 구성 공감

'포교역량 결집대회' 성과 점검
"행사 긍정적…소통 강화 과제"



대전·세종·충청 불교계가 지역 단위 포교의 한계를 넘어 권역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에 나섰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충청권 3개 교구본사는 1월 22일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22일 세종 광제사에서 열린 '2025 대전·세종·충청 포교역량 결집대회 – 1250인 아라한 야단법석'의 성과를 토대로 이를 지속가능한 전법 사업으로 잇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부대중 결집대회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 열린 대규모 포교 행사로서 권역 단위 포교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체험 부스와 문화행사를 통해 어린이·청소년·청년·주민이 함께 참여하며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다만 행사 준비 과정에서 교구와 사찰 간 사전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고, 행사 취지와 목적이 실무 단위까지 자세히 공유되지 못한 점은 과제로 지적됐다. 인원 참석과 역할 분담, 교통 지원 등에 대한 사전 협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총무원 포교국장 도진 스님은 "행사 자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지만, 그 흐름을 어떻게 계속 이어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오늘 이 자리는 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법주사 포교국장 남전 스님은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교구 간 협력을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며 "권역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전법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권역 전법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포교 사업을 기획하고, 교구 간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협력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충청권 불교계는 사부대중 결집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권역 전법 협력 논의를 구체화하고, 지속 가능한 포교 체계 구축을 위한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6학년도 신(편)입생(학점은행제) 모집안내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유산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 과 과 정

학 과		교육 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Ⅰ	월	오후1시~5시	○○	조인각 스님
2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Ⅱ	수	오후1시~5시	○○	이기봉 스님
3학년	각 배	각 배	목	오후1시~5시	○○	마일운 스님
4학년	영 산	영 산 재	금	오후1시~5시	○○	김태호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특징	화	오후1시~4시	○○	심만춘 스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 ◈수료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무용과)등 일반인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학점은행제과정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대학교 중퇴자 가능) 기타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은행제 타 기관 수강자
■ 제출서류 | ◈수료과정 : 입학원서 (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학점은행제과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전형일정 | 2026년 1월 1일 ~ 2월 28일
■ 개 강 | 2026년 3월 첫째주 3월 3일 화요일
■ 전 형 료 | 50,000원(학생회비)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및 전화 접수 홈페이지 접수
■ 특 전 | 1.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유산 영산재보존회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2.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선발
3. 출가승려(법계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동방대학 2년졸업후 옥천범음대학 편입 하여 4학년 졸업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자격을 부여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보유자 김구해, 회 장 조현성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김향천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 02)392-3234 Fax :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민추본, 4월 DMZ서 '남북평화 기원법회'

1월 27일, 2026년 사업계획 발표
신계사 템플스테이 건립위 구성
금강산 평화순례길 조성 추진도
성행 스님 "통일 향한 디딤돌"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민추본이 1월 27일 올 한 해 주요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본부장 성행 스님은 이날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 남북불교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사업에 대한 계획을 공유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성행 스님, 이하 민추본)가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교류 재개 염원이 담긴 기념법회를 올해 4월 강원도 DMZ지역에서 봉행한다. 금강산관광 재개 발원을 공론화하고 남북 불교교류 사업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포부다.

민추본은 1월 2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한 해 주요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특히 남북관계의 큰 틀을 존중하면서도 민간 차원에서 함께할 다양한 중장기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공개된 주요사업에 따르면 민추본은 시의성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불자들의 평화통일 의식을 확산하고 남북 간 신뢰회복과 교류 재개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고자 4월 초 DMZ박물관 대강당 등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발원 남북 평화·화합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한다.

특히 올해는 지금까지 서울에서 진행해 온 기원법회를 지역으로 확장, 첫 지역법회로 강원지역을 선정했다. 현 정부의 대북 기조에 맞게 금강산 관광 재개를 다시 공론화하고 정부와 통일부에 적극 제안함으로써 남북불교교류사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게 민추본의 설명이다.

1부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원법회'에 이어 2부 '금강산관광 재개 발원 금강산 가는 길 걷기'에서는 DMZ 박물관-고성통일전망대 구간인 민통선 내 해안도로를 40여 분간 걷는 시간을 갖는다.

민추본은 추후 지역에서 기원법회를 봉행하고 교구본사 및 주요 사찰, 지자체, 평화통일 관련 기관 등과 연계해 평화통일의 원력을 함께 세워 간다는 계획이다.

남북불교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사업에 대한 계획도 공개했다. 민추본은 남북불교교류의 성공적 사례인 금강산 신계사를 남북교류협력 자원이자 전통문화유산·관광 자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신계사 템플스테이 복합문화공간' 건립 준비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북한의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와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북측에 제안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금강산에 대한 유네스코 자문기구의 권고사항을 활용한 전략과 계획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성행 스님은 "대북교류 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자 한다"면서 "남북관계가 열리는 대로 신계사 템플스테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강산관광 재개 발원 불교평화통일 아카데미(4월, 인제 만해 마을 등지) △10기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및 해외 평화순례(11월 예정) △남북접경지역 평화명상 걷기(9월 말, DMZ) △제3차 남북불교문화유산 교류연구포럼(10월 말 예정)도 예정돼 있다.

지역 사찰과의 협업으로 운영되는 조직 강화 사업인 평화통일도량 조직은 100개 이상의 도량을 목표로 한다. 또 제주 본부 설립을 추진, 지역 불자들을 중심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 단위의 통일·평화 활동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행 스님은 "남북불교교류, 평화 및 통일사업은 단기간의 성과를 목표로 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신뢰를 쌓아 가는 과정이며 단절되어서는 안 될 소중한 통로"라면서 "앞으로도 불교계와 종단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작은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는 1월 27일 '출가상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위촉식에 참석한 포교국장 도진 스님, 출가상담사 혜원 스님, 포교부장 정무 스님, 출가상담사 은산 스님, 출가상담사 여옥 스님(왼쪽부터).

조계종 출가상담사에 은산·여옥·혜원 스님

포교부, 1월 27일 위촉식
임기는 12월 31일까지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부장 정무 스님)는 1월 2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포교부장 집무실에서 '출가상담사 위촉식'을 개최하고 은산 스님, 여옥 스님, 혜원 스님을 재위촉했다. 임기는 12월 31일까지다.

출가상담사는 종단 행자교육(입문·수계 교육) 시 행자들을 위해 출가 상담전화(1666-7987)와 출가사이트(http://monk.buddhism.or.kr)에서 상담을 수행한다. 또 만해백일장, 연등축제 전통문화마당, 서울·부산·대구 불교박람회, 대불련 영캠프, 불교문화대전, 행복바라미 선명상 페스타 등에서 부스를 운영, 현장 홍보를 진행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날 위촉식에서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출가자 수 증가를 위해 범종단 차원의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간절한 원력을 가지고 출가상담에 임해 달라"고 했다.

포교부는 올해 좀 더 체계화된 출가상담을 위해 다양한 사례가 담긴 〈출가상담 메뉴얼〉을 발간하고 대중이 모이는 행사에서 현장 출가상담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봉녕사승가대 졸업식 "행복 이끌 길잡이"

승가대서 7명·전문 6명·연구 1명
총무원장 표창에 도명·혜명 스님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가 1월 27일 봉녕사승가대학 제52회 졸업식과 봉녕사금강율학승가대학원 제24회 전문과정·제11회 연구과정 졸업식을 열고 학인들이 모든 이를 행복으로 이끄는 수행자로 성장하길 발원했다.〈사진〉

봉녕사승가대학에서는 선본·무연·고원·도명·능인·진감·묘안 스님 등 7명이 4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증서를 받았으며, 졸업논문을 부처님 전에 봉정했다. 이번 졸업생은 차명상코칭 1급 자격과 진감초의 다맥 제7대 전수증을 받았고, 사찰음식지도자 1급 자격도 함께 취득했다.

봉녕사금강율학승가대학원에서는 효석·현담·혜명·승원·여요·여여 스님 등 6명이 2년의 전문과정을 이수했다. 이 가운데 3명이 차명상코칭 1급 자격을 취득했다. 연구과정에서는 여서 스님이 3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증서를 받았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스님들에게는 표창장도 수여됐다. 총무원장 표창은 봉녕사승가대학 도명 스님과 봉녕사금강율학승가대학원 혜명 스님이 수상했다. 제2교구 본사 용주사 교구장 표창은 봉녕사승가대학 능인 스님과 봉녕사금강율학승가대학원 승원 스님이 받았다.

진상 스님은 "4년간의 수행을 바탕으로 산과 물 같은 수행자가 돼 모든 이의 길을 열고 마음을 씻어 주는 행복의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김내영 기자

"청년이 불교 주체 되는 거버넌스 구축"

범불교시국회의 3차 토론회
주체성 강화·활동가 육성 제안



청년의 불안과 좌절은 개인이 아닌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낸 구조적 고통이며, 불교가 청년의 고통에 답하기 위해서는 종단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범불교시국회의는 1월 27일 서울 불교환경연대 교육장에서 '한국사회 대개혁을 위한 한국불교 성찰과 전환' 제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불교, 청년의 고통에 답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청년의 삶을 둘러싼 구조적 조건과 그로 인한 고통을 불교적 관점에서 성찰하는 자리였다.

발제에 나선 이명호 인드라망연구소장은 "오늘날 청년 문제는 취업이나 주거의 어려움 같은 개별 사안의 나열이 아니라, 표준적 생애 경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사회에서 청년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해 온 구조적 결과"라고 진단했다. 특히 청년세대를 단일한 집단으로 바라보는 기존 담론과 청년정책이 취업-주거-자산 형성이라는 획일화된 생애주기에 맞춰져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불교계의 청년 문제 대응 방식도 살폈다. 이 소장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템플스테이와 청년밥상 등이 쉼과 회복, 위로를 강조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짚고 "청년은 참여자이자 방문자로 남을 뿐, 대안적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소장은 청년의 고통을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적 고(苦)의 개념으로 해석하며, 이를 '사회적 고'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고통을 '사회적 고'로 인식할 때, 불교의 역할은 위로가 아니라 구조와 문명을 전환하는 실천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종학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 포교팀장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종단 차원의 '청년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박 팀장은 "사찰은 이제 고립된 청년들을 서로 연결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면서 △대학생·청년 포교의 주체성 강화 △사찰 공간의 '청년 공유 거점' 전환 △사회적 전법을 위한 청년 활동가 육성 필요성도 짚었다. 여수령 기자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사찰경영최고위과정과 함께하는
붓다자나 명상
붓다자나는 닛다싸왓투 경에서 "이것은 내가 스스로 깨닫고 실현하여 선언한 것이다"라고 전하는 것으로 석가모니 붓다를 실현한 성불의 비밀이며 고따마의 수행경험을 순차에 따라서 집대성한 여래의 정법명상입니다.
이곳에는 붓다가 되는 최상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데 일곱 단계 진리의 문에 들어가 법신을 구족하고 서른 두 개의 비밀금고를 열어 영적성장에 도달하며 백 마흔 한 가지 담마토크로 기록된 아가마를 실천하라고 합니다.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사찰경영최고위과정에서는 이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사찰의 청년불자 증가를 돕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수행자 여러분의 수희동참을 바랍니다.
모집대상 스님 또는 교역직 종사자
모집기간 2026년 1월 ~ 2026년 2월
교육내용 붓다자나 전문가 과정
교육기간 1년(2학기, 매주 수요일)
모집인원 선착순 20명
개강일시 2026년 3월 11일(수) 오후 2시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사찰경영최고위과정
입학문의 책임교수 010-8775-2340 / 학사운영실 02-2260-8887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충 대종사 탄신 100주년, 초심으로 수행을”

천태종, 100주년 기념 법요 봉행
1월 23일 구인사 1만5000명 운집
도용 대종사 “성불 향한 발심 실천”
이 대통령 “공존 가르침 전한 스승”

단양=유재상 충청지사장



천태종은 1월 23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 5층에서 ‘대충 대종사 탄신 100주년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요식에는 사부대중 1만5000여 명이 동참했다.

한평생 불퇴전의 정진과 전법도생에 매진한 천태종 제2대 종정 대충 대종사의 탄신 100주년을 봉축하며 스님의 수행 정신과 교화 원력을 기리는 법석이 열렸다.

천태종(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1월 23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 5층에서 ‘대충 대종사 탄신 100주년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요식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대종사와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비롯해 종단 스님들과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 종단 스님들,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상장 스님, 일본 천태종 종무총장 호소노 슌카이 스님, 이헌승 국회정각회 회장, 허은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등 정관계 인사와 천태종 신도, 사부대중 등 약 1만5000명이 동참했다.

종정 도용 스님은 법어를 통해 “대충 대종사는 수행과 교화를 둘로 나누지 않고 삶 속에서 불법을 실천해 온 선지식”이라며 “평생을 중생 곁에서 교화와 실천 수행에 바친 그 원력은 오늘날까지 천태종의 큰 정신적 기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했다. 이어 “탄신 100주년을 맞아 사부대중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수행과 보살행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설했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봉축사에서 “대충 대종사는 평생을 수행과 실천으로 일관하며 중생 곁에서 불법을 실천한 큰스님”이라며 “탄신 100주년을 계기로 사부대중 모두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수행정진과 보살행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대충 대종사는 불교를 산중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대중의 삶 속으로 깊이 스며들게 한 큰 스승”이라며 “천태종은 갈등과 상처가 있는 곳마다 화해와 공존의 가르침을 실천해 왔다”고 평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대충 대종사는 수행과 교화, 실천을 하나로 보여준 선지식”이라며 “스님의 가르침은 종단을 넘어 한국불교 전체가 되새겨야 할 귀중한 수행 자산”이라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헌화하며 대충 대종사의 자비행과 원력을 기리고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봉축가는 전국 천태종 각 말사 합창단이 뜻을 모아 구성된 770명으로 구성된 천태합창단이 맡아 의미를 더했다.

한편, 천태종은 대충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전을 구인사 불교천태중앙박물관에서 열고 있다. 1월 17일 개막해 50여 일간 계속되는 이번 기념전에는 대충 대종사의 25조 불보살상 금란가사 등이 공개된다.

“백남준, 길 없는 길 걸은 수행자”

서울 봉은사, 백남준 서거 20주기 추모재

1월 29일 법왕루서 봉행돼
원명 스님 “진실한 삶 기억”
유족, 코닥 카메라 기증키로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였던 故 백남준 선생 서거 20주기를 맞아 봉은사는 1월 29일 경내 법왕루에서 추모재를 봉행했다. 사진은 주지 원명 스님이 추도사를 하는 모습.

뉴미디어 아트라는 장르를 처음 개척한 세계적인 예술가 백남준의 서거 20주기를 맞아 그의 예술혼과 생애를 추모하는 자리가 서울 봉은사에 마련됐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1월 29일 경내 법왕루에서 ‘백남준 선생 20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재는 주지 원명 스님, 부주지 각진 스님,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을 비롯해 봉은사 스님들과 백남준 선생의 유족, 백남준아트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선생의 예술 정신을 기렸다.

백남준 선생(1932~2006)은 뉴미디어 아트의 거장으로 한국을 세계에 알린 예술가다. 그는 전위예술음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작곡가 존 케이지에게 선불교의 가르침과 경험, 영감을 공유받아 불교사상과 예술 사이의 잇는 길이 있음을 깨달았다. 이후 ‘TV붓다’, ‘카르마’. ‘선(禪)을 위한 TV’ 등 불교적 세계관과 사유가 담긴 미디어 아트 작품들을 선보여 극찬을 받았다.

백남준 선생은 어린 시절 불자였던 어머니와 함께 봉은사를 자주 찾았으며 이 같은 불연(佛緣)으로 2006년 타계 당시 봉은사 법왕루에서 그의 유작인 ‘엄마’가 공개됐고, 그의 유해 일부와 얼굴을 본 따 만든 조각상이 봉은사에 봉안됐다. 백남준 선생의 장례식과 49재 추모행사 또한 봉은사에서 열렸으며, 이후 봉은사는 매년 추모재를 봉행해 오고 있다.

원명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그의 치열했던 예술혼을 기렸다. 스님은 “백남준 선생은 동양과 서양의 예술 세계를 오가며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며 “선생의 삶은 정각(正覺)을 위해 길 없는 길을 가는 구도 수행자와 다를 바 없었다”고 추모했다.

이어 “오늘 추모재를 통해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세상에 알려주고 후학들이 새로운 길에 도전할 수 있게 해준 백남준 선생의 진실한 삶을 다시 기억한다”며 “선생이 사바세계의 인연을 다한 지 20년이 되는 해를 맞아 선생의 극락왕생과 유가족의 안녕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백남준 선생의 조카 켄 백 하쿠타는 영상 추모 메시지를 통해 매년 추모재를 봉행하는 봉은사에 감사를 전하고 “생전 삼촌께서 사용했던 코닥 카메라를 봉은사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중일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베트남 불교계 자선 활동 지난해만 1200억 원 운용

VBS 연례회의, 사업 성과 공유
자선·복지 지속…병원 설립도

베트남 불교계를 대표하는 베트남불교승가회(VBS)가 연례 회의를 통해 지난 한 해 자선 활동에 공식적으로만 2조 1610억 동(한화 1188억 5500만원)을 운용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글로벌’, ‘베트남 플러스’ 등의 현지 언론은 1월 20일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VBS 불교지도자 중앙위원회는 1월 20일부터 나흘간 호치민시에서 연례회의를 열고 지난해 사업 성과와 새해 계획을 공유했다. 회의는 신년 하례식을 겸해 열렸으며 베트남 정부에서도 민족종교부 차관을 보내 치하했다.

22일 열린 VBS 제9기(2022~2027) 제5차 연례 평의회에서 VBS 중앙자선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틱콴툰 스님은 “2025년 중앙위원회와 시 단위 지부가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자선기금과 구호 물품 등을 희사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지난해에는 2조 1610억 동(한화 1188억 55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해 상당한 규모의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했다”며 “특히 극심한 수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연재해 피해자 지원, 소외·취약계층 지원에 기금이 운용됐다”고 공개했다.

현지 언론들은 VBS의 대표적인 자선 활동으로 이재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구호 활동, 장학금 수여, 자선 주택 기증, 자전거와 휠체어 제공, 우물 파기, 농촌 도로 건설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VBS는 여기에 더해 병으로 실직한 환자들을 위한 직업 훈련, 건강검진 및 약품 비용을 지원하고 수술비를 후원했으며, 자선 급식소 또한 개소를 늘렸다고 밝혔다. 틱콴툰 스님은 “이러한 활동들은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불교의 자비정신과 베트남 고유의 이웃을 돕는 전통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년의 핵심 목표 역시 자선과 사회복지임을 분명히 했다. VBS는 올해 우선 과제로 모금 활동 강화,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 시행, 까마우성 정부와 협력을 통한 지역 학교에 식수와 위생 시설 제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승가복지에도 힘써 출·재가자가 협력해 불교계 병원을 설립하도록 장려하는 한편, 전국에 전통 의학 진료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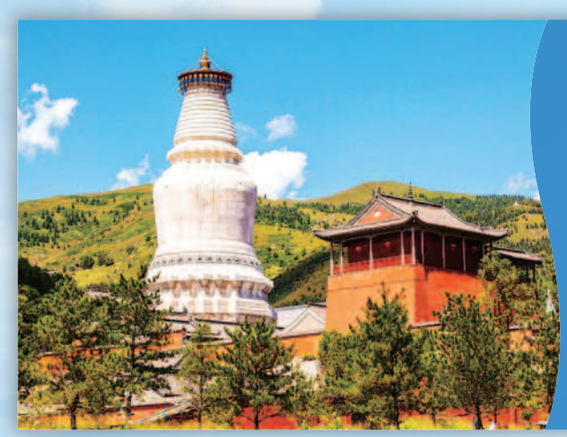
VBS측은 “승가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불교의 자비 정신을 보여주는데 사회복지가 주요 책임 중 하나”라고 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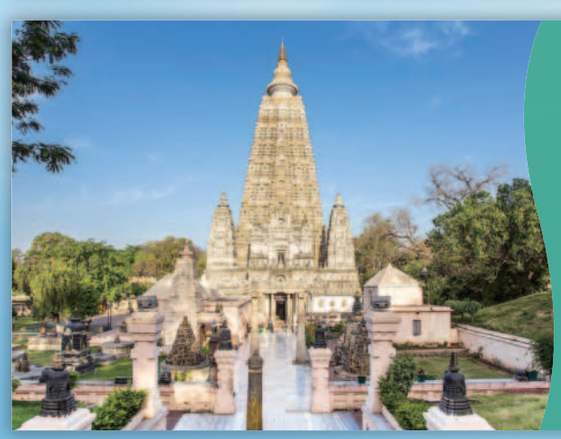
회의에 참석한 응우옌 하이 쭝 민족종교부 차관은 “이러한 활동은 베트남 불교의 역할과 위상, 그리고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부각했다. 또 베트남 국가와 국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고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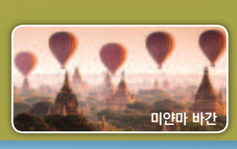
박영빈 객원기자



지난 한 해 불교계의 사업을 돌아보는 평의회가 호치민시에서 열렸다.
사진 출처=베트남 플러스


중국 4대 불산
지장도량 구화산+서호 3박4일
관음도량 보타낙가산+상해 3박4일
문수도량 오대산+운강석굴 4박5일
보현도량 아미산+낙산대불 4박5일
▶동참금 : 문의
+ 민족의 영산, 백두산 3박4일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성지순례 6박8일
▶일 정 :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레–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누와라엘리아–아훙갈라–콜롬보–인천
▶동참금 : 문의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네팔 성지순례 8박10일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쉬라바스티–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문의

황금빛 불탑의 나라, 미얀마
완전일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박7일
▶출발일 : 2026년 11월 13일 ~ 11월 19일
2026년 12월 11일 ~ 12월 17일
2027년 1월 15일 ~ 1월 21일
▶동참금 : 문의
+ 양곤/바간/헤호 5박6일

미얀마 바간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

합창으로 이룬 '어린이 포교 10년 결실'

2월 8일, 제7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

200여 명 참여해 합창 선보여
명상 음악으로 '행복 지금 여기'
"합창서 공동체 정신 체득하길"
무진선원 · 상산보리회 포교 협약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회장 영산 스님, 이하 천진불합창단)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제7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를 개최한다.

이번 합창제는 '열 번째 사랑, 빛으로 희망으로 온 천진불'을 주제로 오는 2월 8일 오후 3시 부산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열린다.

합창제에 앞서 천진불합창단은 1월 22일 부산 안국선원 교육관 시원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0년간의 어린이 포교 활동과 합창제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비전과 운영 방향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천진불합창단 회장 영산 스님을 비롯해 도진 스님, 담화림 스님, 김소라 지휘자 등이 참석했다.

회장 영산 스님은 "천진불합창단 창립 10주년은 그간의 어린이 포교와 음악 수행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어린이 포교는 불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과제로, 아이들이 수행과 공동체 정신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합창제가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합창제는 부산·경남지역 사찰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단 10여 팀에서 200여 명이 참여해 합창과 합동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출연팀은 은암어린이청소년합창단(동림선원), 종소리어린이합창단(종문사), 나모리어린이합창단(황룡사), 선혜단이슬합창단(관음사), 상림어린이합창단(서암정사), 혜원소년소녀합창단(혜원정사), 무진선재단(무진선원), 보리수어린이합창단(신제주불교대학보리앗), 가람청소년합창단(정토사), 문수선음합창단(마산 정법사) 등이다.

각 사찰 합창단은 오랜 기간 체계적인 연습과 전문적인 지도를 통해 음악적 완성도를 꾸준히 높여 왔다. 종교계 합창단에 대한 선입견을 불식시킬 만큼 안정된 음정과 풍부한 화성, 균형 잡힌 하모니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어린이 단원들의 성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수준 높은 합창을 선보일 예정이다.


무진선원과 재단법인 상산보리회, 천진불합창단 간 전법 포교 협약식 모습.

김소라 지휘자는 "그동안 음향과 연출에 일정 부분 의존했다면, 올해는 안무를 최소화하고 모든 단원이 노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동작 역시 노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절제해, 합창 본연의 감동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명상 음악으로 무대를 열어 공연 전반의 방향성과 메시지를 전달한다. 오프닝 곡은 틱낫한 스님의 '행복은 지금 여기에'로, 명상과 알아차림을 주제로 한 무대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진선원과 재단법인 상산보리회, 천진불합창단 간 전법 포교 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에 따라 무진선원은 올해부터 천진불합창단이 주관하는 합창제에 5년 연속 참가한 단원을 대상으로 축하 장학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재)상산보리회는 '천진불 삼귀의계·오계 수계식' 봉행을 위해 매년 500만원을 후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합창제에서는 5년 이상 활동한 단원 8명을 별도로 선정해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나서

1월 22일 영도구청서 전달식

취약 · 위기가구에 1000만원

지역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비추는 따뜻한 불심이 부산 영도구에 전해졌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 스님)은 1월 22일 영도구청에 취약계층 발굴과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2026년 복지등기 사업' 후원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단발성 후원이 아닌 지속적인 나눔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2024년부터 매년 500만원씩 기부를 이어 오며, 지역 사회 돌봄 체계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올해는 복지등기 사업과 위기가구 긴급 지원을 동시에 돕기 위해 기탁 규모를 확대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1월 22일 영도구청에서 '2026년 복지등기 사업' 후원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영도구가 운영하는 '복지등기 사업'은 우체국 집배원이 매월 지역 내 취약계층 200세대를 방문해 복지 안내 우편물을 전달하고, 동시에 주거 환경과 생활 실태를 살피는 현장 중심의 복지 시스템이다. 배달 과정에서 위기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구청 복지부서와 연계해 맞춤형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가정까지 직접 찾아가는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복지등기 운영비뿐 아니라 고독사 위험 가구, 돌봄 공백 가정 등 갑작스러운 위기에 놓인 가구를 지원하는 데 폭넓게 사용될 예정이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복지등기 사업은 도움이 절실한 이웃을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발견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부처님의 자비 정신이 생활 현장에서 실천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나눔과 돌봄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영도구청은 "매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는 한마음선원 신도들의 정성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은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데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5대 종교, '시민 행복' 공동선언문 채택

부산시, 불교 등 초청 신년인사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는 부산시가 주최한 '2026 부산광역시 5대 종단 신년인사회'에 동참해 시민의 평안과 행복을 함께 기원했다.

1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단 대표자 등 종교 지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공동의 가치로 하나 되어, 부산의 내일을 밝히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종교 간 화합 및 연대와 협력의 메시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5대 종단 대표자들은 부산 발전과 사회적 연대를 다짐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공동선언문에 따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시민 공동체 완성 △15분 도시 모델 민간 협력사업 확대 △글로벌 관광도시 경쟁력 강화 △가족친화·평생교육 도시 조성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 예방 활동 협력 등에 적극 협력할 것을 전했다.



정오 스님은 "새해를 맞아 각 종교를 대표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이해의 인연을 맺게 돼 매우 뜻깊다"며 "국내외적으로 상황이 어렵지만 '감인대'의 가르침처럼 참고 견디며 기다리면 시련은 지나가고 새로운 희망의 시절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시공무원불자회, 병오년 신년법회

1월 22일, 혜원정사 법당서

부산시공무원불자회(회장 김봉철)는 1월 22일 혜원정사에서 '병오년 신년법회'를 봉행하고, 혜원정사 회주 원허 스님을 법사로 초청해 새해 첫 법문을 청했다.

원허 스님은 "공직자는 시민을 부처님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수행처로 삼아야 한다"며 "일상의 작은 실천이 사회를 맑히는 수행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공무원불자회는 신년 발원문을 통해 "반야바라밀의 빛을 삶의 길잡이로 삼아 밝은 말과 밝은 얼굴로 바라밀의 원력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락서암, 인재불사 원력 제7회 장학금 전달식

학생 22명에 1640만원 전달

부산 락서암(주지 수월 스님)이 지난해 12월 27일 대웅전에서 '제7회 락서암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 승가원 종정 자인 대종사, 법화종 부산종무원장 용암 스님, 부산영산재보존회 이사장 성림 스님, 삼보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화엄승가회장 대각 스님, 한빛마음회 장학회 임원 등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장학금은 대학생 12명에게 각 100만원, 고등학생 7명에게 각 50만원, 중학생 3명에게 각 30만원씩 전달돼 총 22명에게 1640만원이 지급됐다.



수월 스님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장학금 후원을 계속하겠다"며 "훗날 사회에 봉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가짐을 지닌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종단 혼란 종식, 화합의 시대 열자”

법화종, 제14대 종정 암현 대종사 헌첩식

1월 24일 평창 연화사서 봉행
전 종정 도선 스님 연임 고사
새 종정으로 암현 스님 추대돼
‘정견입종’ 등 교시… 정진 당부

평창=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법화종은 1월 24일 ‘제14대 종정 벽산당 암현 대종사 헌첩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총무원장 관효 스님이 종단 인장과 헌첩을 종정 암현 스님에게 봉정하는 모습.

법화종(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1월 24일 평창 연화사에서 ‘제14대 종정 벽산당 암현 대종사 헌첩식’을 봉행하고 ‘정견(正見)’과 ‘화합(和合)’이라는 종단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

이번 헌첩식은 제13대 종정 청암 도선 대종사의 결단에서 시작되었다. 도선 스님은 지난 5년간의 종단 혼란에 종지부를 찍고 완전한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종정추대위원회의 만장일치 연임 요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중대 결단을 내렸다.

이에 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헌정문을 통해 “법과 원칙으로 종단의 위의를 지켜 주신 전임 종정 예하의 덕화에 깊은 감사를 올린다”며 그 숭고한 뜻을 받들어 종단 중흥의 길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새 종정으로 추대된 벽산 암현 대종사 역시 종단의 안정과 사부대중의 간절한 뜻을 헤아려 장고 끝에 이 무거운 소임을 자비로이 수락하며 헌첩식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종정 오른 암현 스님은 1975년 탄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래 50여 년간 정진해 온 선지식으로, 1987년 법화종 입종 이후 평창 연화사에서 주석하며 지역 포교와 교구 발전에 헌신해 왔다. 법화종 총무원 교무부장, 사회부장, 기획실장 등 종단의 주요 소임을 두루 섭렵하며 종무 행정의 기틀을 닦았다.

특히 2022년 종단 최고위 법계인 ‘대종사’를 품수하며 법화종의 어른으로서 사부대중을 지도해 왔다.

암현 스님은 취임 법어에서 “오늘 받는 헌첩이 산처럼 무겁다”며 낮은 자세로 대중 앞에 섰다. 스님은 종단이 나아갈 세 가지 지표로 ‘정견입종(正見立宗, 바른 견해로 종단을 바로 세우고) 화합흥종(和合興宗, 화합으로 종단을 일으켜) 공제군생(共濟群生, 함께 중생을 건네자)’이라는 교시를 내렸다.

암현 스님은 “헌첩을 받는 이 마음은 기쁨보다 먼저 부끄러움이 앞서고, 감사보다 먼저 두려움이 앞선다”며 “수행의 길은 오래 걸었다고 해서 저절로 원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소임의 자리는 높다 해서 저절로 무게가 덜어지는 것도 아니다. 부족한 사람이 헌첩을 받았으니, 오늘부터 더 닦고 더 살피겠고 말로 앞서기보다 한 걸음씩 행으로 보이겠다”고 말했다.

암현 스님은 “종단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나의 교시가 누구에게 내리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매일 점검하는 한 줄의 점검표가 되길 바란다”며 종도들에게도 서로를 살리는 말과 화합의 정진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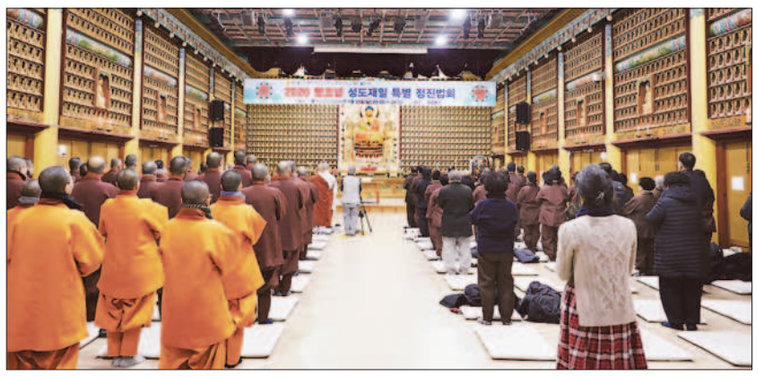
원로의장 보명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국태민안과 세계평화, 그리고 종단의 법맥이 면면히 이어지기를 삼보전에 발원했다.

이어 교구종무원장협의회장(충북교구종무원장) 지성 스님은 “종단의 뿌리인 교구와 숨결인 사찰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예하의 뜻을 현장에 곧게 전달하겠다”고 축사했으며, 전대영 연화사 신도회장은 “말보다 수행의 습관을 세워 큰스님의 길에 외롭지 않은 동반자가 되겠다”는 신도들의 세 가지 서원을 올렸다.

헌첩식에 이어서 재무부장 현봉 스님을 종정예경실장으로 위촉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며, 지역 자비나눔활동으로 떡 300kg을 전달하는 자리도 이어졌다.

“부처님 깨달음의 길 따르겠습니다”

전국 사찰서 성도재일법회 봉행
철야정진으로 수행 의지 다져
다문화 가정 초청·자비나눔도



전국 사찰들은 불기2570년 성도재일을 맞아 정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월정사에서 봉행된 특별 정진법회 모습.

1월 26일 성도재일(음력 12월 8일)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경축하고 불자로서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법회가 봉행됐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는 1월 25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대법륜전에서 특별 정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월정사 사부대중과 포교사단 강원지역단 포교사 등 150여 명이 동참했다.

김동하 강원지역 포교사단장은 발원문을 통해 “무상정각의 지혜를 전법 현장에서 꽃피우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향해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 대립과 갈등, 불안과 위험이 있는 곳마다 생명평화를 일구는 보살행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소운 스님)는 1월 26일 광주광역시청 3층 대강당에서 ‘부처님 성도재일 광주지역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성오 스님은 법문에서 “계율이 바로 서야 선정이 생기고, 선정이 있어야 지혜가 나온다”며 “성도재일을 맞아 먼저 계율을 잘 지키는 삶부터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 소운 스님은 봉행사에서 “이웃의 슬픔을 위로하고,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희망의 빛이 되어 무등의 평등 정신과 극락의 염원이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이날 지역 불교 행사와 자비나눔에 앞장서 온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신도회에 2026년 불자대상을 수여했다. 광주지원은 상금 전액을 사단법인 빛고을나눔나무에 기부했다.

안동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륜 스님)는 1월 24일 안동시청 대동관 영남홀에서 ‘불기2569년 성도재일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

초청법사인 조계종 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법문에서 나태주 시인의 시 ‘풀꽃’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구절을 인용하며 “부처님 법은 멀리서 보아도 그 자체로 빛나는 행운이다. 불교와의 인연이 큰 행복”이라고 강조했다.

회장 도륜 스님은 봉행사에서 “오늘 법석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한 걸음씩 깨달음을 실천하겠다는 서원을 새롭게 하는 법회”라며 “법회를 계기로 지역불교를 위한 화합과 발전이 더욱 깊어지고 부처님의 자비가 모든 가정과 사회에 널리 퍼지기를 발원한다”고 했다.

아산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휘정 스님)는 1월 24일 아산 모나밸리 골드홀에서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성도재일 기념 연합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 앞서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참여한 공연과 마하위하라 사원 불자들의 전통춤 공연 등이 펼쳐졌다.

연합회 원로의장 송운 스님은 법어를 통해 “탐·진·치의 불을 끄는 것이 열반이며, 모든 중생이 본래 불성을 지닌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라며 “성도재일을 맞아 수행과 실천으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창원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는 1월 25일 오후 8시부터 26일 오전 5시 30분까지 만불보전에서 ‘성도재일 철야정진 법화경 전품 수지독송 기도 수행정진’을 봉행했다. 철야정진은 참가 대중들이 〈법화경〉 전 품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독송하며 수행 공덕을 쌓는 자리로 진행됐다.

주지 광우 스님은 “한마음으로 독송하며 쌓은 이 공덕이 각자의 소원 성취는 물론 가정과 사회에 평화와 화합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이동격·양행선·김선행·유재상·성낙두 지사장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4기 교사직무연수

1월 12~14일, 20일 진행…“교사 건강이 학생 건강”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지원장 혜연 스님)은 겨울방학 기간인 1월 12~14일, 20일에 총 30시간 과정으로 교사 직무연수 ‘괜찮지 않아도 돼!’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돌보느라 지친 교사들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고정관념 내려놓기와 자기 성찰, 마음을 여는 대화 등을 통해 교사로서의 부담감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 마음의 활용과 원리, 삶과 죽음의 성찰, 촛불명상 등을 통해 본래 마음자리를 체험하고, 일상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익혔다.

이와 함께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을 일상과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실천 중심의 연수가 이뤄졌다.

마지막 날에는 실천 나누기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마음공부를 이어갈 것인지 다짐을 나누며, 이번 연수를 지속적인 마음 수행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종합평가 설문조사 결과, 연수 목표 달성도와 직무 수행에 대한 도움, 강의 구성과 교육 환경 전반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참가 교사들은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길임을 깨달았다”,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교단에 설 힘을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은 “교사의 건강한 마음이 곧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교사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자리를 여름과 겨울에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이 2024년 여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교사직무연수는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추천으로 ‘교사가 교사에게 권하는 연수’로 자리 잡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남 고흥불교사암연합회 출범

1월 25일 창립 발대식
30개 사찰들 원력 초석



전남 고흥 지역 불교 사찰들이 뜻을 모아 지역 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고흥불교사암연합회는 1월 25일 고흥 하나웨딩홀에서 창립 발대식과 출범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고흥 지역 30개 사찰이 동참해 고흥 불교의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원력을 함께 다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왜 스님(금탑사 주지), 정륜 스님(수도암 주지), 우암 스님(봉래사 주지), 진허 스님(능가사 주지)을 비롯해 지역 사암 스님들과 신도들이 참석해 연합회 출범의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금탑사 주지 정왜 스님이 초대 회장으로, 봉래사 주지 우암 스님이 총무로 각각 추대됐다. 연합회는 종단과 사찰을 넘어 지역 불교가 한데 힘을 모아 포교 역량을 강화하고, 회원 사찰 간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초대 회장으로 취임한 정왜 스님은 취임 인사를 통해 “고흥에 온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회원 사찰 스님들의 뜻에 따라 소임을 맡게 된 만큼,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지역 불교 발전과 고흥의 미래를 위해 작은 역할이나마 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고흥불교사암연합회는 앞으로 지역 포교 활동을 비롯해 불교 행사 주관, 회원 사찰 간 친목 도모, 지역사회 나눔과 봉사 활동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 공식 활동으로는 오는 3월 1일 고흥 녹동에서 연합방생 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승불교삼보조계종 신년하례

1월 23일 삼보사서



대승불교삼보조계종(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1월 23일 삼보사에서 신년하례 및 시무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종회의장 지홍 스님, 종회부의장 법융 스님, 사무총장 평산 스님, 교육원장 덕일 스님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법장 스님은 신년사에서 “종단 통합 이후 새 집행부는 종도들이 화합하고 국민의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행정부인 총무원과 입법부 중앙종회, 사법부 감찰원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종단이 원만히 운영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나주 다보사, 대구에 명상원 개원

1월 23일 점안의식 진행



나주 다보사(주지 만민 스님)는 1월 23일 대구 수성구에 ‘달빛요가명상원(지도법사 만민 스님)’을 개원했다.〈사진〉

이날 개원식은 관세음보살상 점안의식을 시작으로 명상원 개원을 알리는 법요식으로 봉행됐다.

달빛요가명상원은 만민 스님과 대구에서 오랜 시간 마음공부를 이어오던 신도 3명이 원력을 내어 조성했다.

한편, 명상원에서는 매월 1회 만민 스님의 지도로 불교 강의와 요가, 명상 프로그램이 진행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혜정 스님, 자비명상 총동문회장 취임

1월 24일 회장 이·취임식



사단법인 자비명상 총동문회(이사장 마가 스님) 제8대 회장에 혜정 스님이 취임했다. 자비명상 총동문회는 1월 24일 화성 보명사에서 7·8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혜정 스님은 취임사에서 “자비명상은 한국불교 명상을 대표하는 수행 단체로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자비 속에서 수행의 길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 뜻을 이어 동문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고성 오도암, 30년 불사 공덕비 제막

지난해 12월 22일 개최



고성 옥천사 적멸보궁 오도암(주지 지성 스님)이 30여 년에 걸친 불사를 회향하고 공덕비를 제막하며 오랜 원력의 결실을 축하했다.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회향식에는 주지 지성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불자 100여 명이 동참했다.〈사진〉

이날 제막된 공덕비에는 지난 30년 동안 적멸보궁 불사를 위해 헌신한 사부대중의 원력과 공덕이 새겨졌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템플스테이도 '선명상' 시대…연내 정식 운영

문화사업단 2026년 계획 발표
치유와 지속가능성에 방점 둬
선명상 특화 사찰 20개소 선정
유네스코 회의서 사찰음식 만찬
인류무형유산 등재 준비 '잰걸음'
35만명 참가…외국인 '최고치'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콘텐츠인 '템플스테이'에도 '선명상' 프로그램이 도입·운영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전국에 20개의 선명상 특화 템플스테이 사찰을 선정하고 올해 안으로 정식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2026년 신년 사업 비전으로 '치유를 통한 국민 행복과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제시하고 전통불교문화 기반의 콘텐츠를 국민 심신치유·지역상생·글로벌 확산으로 연결되는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고 1월 28일 밝혔다.

문화사업단은 올해 중점과제를 △전통문화콘텐츠 기반 치유형 문화관광복지 확대 △지역자원 연계 관광콘텐츠 활성화 기반 강화 △외국인 유치 마케팅 강화 △템플스테이·사찰음식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등 4대 방향으로 제시했다.

전통문화콘텐츠 기반 치유형 문화관광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선명상 템플스테이'를 우선적으로 운영한다. 전국 약 20개소의 선명상 템플스테이 특화사찰을 선정해 연내 정식 운영을 시작하며, 문화사업단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사업단은 "현대인들의 사회적 불안과 스트레스 등 국민 정신건강 함양 증진을 위해 간화선과 현대적 명상을 접목해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템플스테이' 대상을 1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2030 청년 세대의 심리적 부담 완화를 돕는 '청춘 템플스테이'를 7~8월에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템플스테이 인력의 직무 기준을 재정립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템플스테이 민간자격' 등록을 추진한다. 또 AI 기반 서비스 도입을 위해 전용시설 공간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향후 맞춤형 추천·예약 시스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관광공사, 코레일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박람회 홍보를 통해 모객 채널을 다변화한다.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도 대폭 개선한다. 글로벌 예약 편의를 위해 OTA(Online Travel Agency) 입점을 추진하고 외국인 특별 템플스테이 주간을 운영해 약 3000여 명의 체험을 지원한다. 특히 31개 외국인 전문사찰을 중심으로 통역 인력 양성 교육을 확대해 운영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사찰음식의 세계적 가치 확산과 대중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통해 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기반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7~8월 사찰음식 국제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해 음식학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한다.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를 계기로 사찰음식 체험 및 만찬 행사를 추진해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며, 향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전략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거점인 사찰음식 특화사찰을 재정비하고, 지역농산물 및 지역축제와 연계한 상생 모델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2026년은 '치유'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모델을 공고히 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접근성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이 세계인이 찾는 한국 대표 전통문화콘텐츠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사업단은 지난해 템플스테이 운영 이래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2025년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총 34만9236명으로 전년 대비 5.10%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참가자는 5만5515명을 기록해 종전 최고치(2019년 50469명)을 경신하며 한국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사찰음식 분야에서는 국가무형유산 지정(2025년 5월)을 기념한 '제4회 사찰음식 대축제'에 1만6000여 명이 참여했고, 국제학술 심포지움에는 총 250여 명의 교수·관련 전문가가 참가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배우자 대상 사찰음식 체험 등을 통해 대중 확산과 국제적 교류 확대, 글로벌 문화외교 콘텐츠로서의 가치도 입증했다.

동국대, '사찰음식' 전문 의학연구소 설립

1월 23일 일산병원서 개소식
동국대 의과대학 의료진 참여
초대소장에 임윤정 내과 교수
"사찰음식 연구 기반 마련돼"



동국대는 1월 23일 동국대일산병원에서 '사찰음식 치유의학 연구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사찰음식을 의학·영영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이 설립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1월 23일 동국대일산병원에서 '사찰음식 치유의학연구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연구, 개발을 시작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백용해 동국대일산병원장을 비롯해 사찰음식 치유의학연구소장인 임윤정 소화기내과 교수, 진관사 찰중 성돈 스님 등 주요 인사와 사찰음식 연구에 관심 있는 의학자, 영양학자, 미생물학자, 통계학자, 한의학자 등 교수진, 박사급 연구진들과 관련 산업계에서 참석해 연구소 출범을 축하했다.

임윤정 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찰음식의 건강 효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암과 만성질환 예방과 치료에 접목해 의학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용해 병원장은 축사에서 "사찰음식의 체계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진관사(주지 법해 스님)에 깊이 감사하며, 바쁜 일정에도 개소식에 참석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진관사 찰중 성돈 스님은 축사를 통해 "사찰음식은 삶의 방식을 바로잡는 가장 오래된 예방의학이자 인격을 가꾸는 수행의 과정"이라며 "이번 연구소 개소를 계기로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연구 기관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사찰음식 치유의학연구소는 동국대 의과대학 산하 연구소로, 사찰음식의 영양학적 가치와 의과학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를 목표로 설립됐다.

동국대는 "'사찰음식 치유의학연구소' 개소를 통해 사찰음식의 건강 증진 효과에 대한 우수한 의학 연구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이라며 "전문 연구를 통해 세계인의 건강 증진과 한국 불교문화 확산과 정착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전통 다비'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추진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위 가결
"불교 장례의식 보존에 의미"

한국불교 전통 장례 의식인 '다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2026년도 무형유산위원회 합동분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2026년 국가무형유산 신규종목 지정조사 대상으로 '전통 다비작법'을 가결했다. 신규종목 조사 대상에는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모필장 △공기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심마니와 약초꾼 습속 등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전통 불교 의례인 '다비 작법'은 단순한 장례 절차를 넘어 삶과 죽음에 대한 불교적 세계관과 공동체적 가치관이 집약된 무형유산이다. 의식의 전 과정에는 의례 절차, 공양과 염불, 다비 시설의 조성 방식 등이 체계적으로 전승돼 왔다.

이번 지정조사 대상 선정은 전통 다비 작법이 오랜 세월 동안 사찰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무형의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성·학술성·예술성은 물론, 오늘날에도 실제 전승과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사)전통다비작법보존회 이사장 무공 스님은 "다비 작법의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 조사 대상 지정은 우리 전통 장례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무형유산의 다양성과 깊이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안성 청원사 대웅전' 보물 지정

국가유산청 1월 23일 공고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건축 양식을 보여 주는 조선 전기 전각인 '안성 청원사 대웅전'〈사진〉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고려 말에서 조선 시대로 이어지는 건축 형식과 시대적 변화 양상을 보여 주는 '안성 청원사 대웅전'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1월 23일 밝혔다.

'안성 청원사 대웅전'은 창건연대가 명확하지 않지만 1854년(철종5년) 대웅전의 공사 내용을 담고 있는 상량문을 통해 그 이전에 건립된 건물임이 확인된다.

건물 앞면은 기둥 상부뿐만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에 공포를 배치한 다포계 공포로, 뒷면은 기둥 위에 돌출된 부재와 끝부분을 날개 형태로 조각한 부재(익공)를 함께 사용한 익공계 공포로 구성돼 하나의 건축물에 두 가지 공포 양식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유산청은 "고려 시대 주심포계 공포가 조선 시대 익공계 공포로 변화·정착해 가는 과도기적 단계를 잘 보여 줘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신중일 기자

NEW 신상품

"방한 부츠로 겨울 어싱을 편하게 즐기자~"

비바미 어싱(접지) 방한 부츠

어싱 방한 부츠는
어싱슈즈의 특징인 걷는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보온 소재를 사용하여
따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소재의 천, 가죽 그리고
고무 밑창입니다.

한 겨울에도 따뜻하게 걸으면서
어싱할 수 있습니다.



소재 : 가죽+천+도전특수 고무밑창

120,000원 ▶ 판매가 80,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좋은 신발은 자연을 맨발로 걷는
인간 본연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1. 비바미 신발은 밑창이 발바닥 전체에 균등하게 체중이 배분되어 발의 압박을 분산,
2. 발바닥 혈관을 자극해 피가 하체에 쏠리는 것을 줄여주면서 혈액 순환을 개선,
3. 이를 통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4. 발바닥 근육을 모두 사용하고, 발가락 뼈의 정형화를 촉진합니다.

이처럼 최대한 신발의 기능을 제거하여 신발로 인한 고통을 없애는 것이 비바미 신발의 특징입니다.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청년 작가들이 그려 낸 현대 단청 향연

무우수갤러리, '모던 단청'展
10인 작가 참여…2월 9일까지
조형, 판화 등으로 단청 조명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사무애법계(事事無礙法界)는 각 현상마다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고 끝없이 이어진다는 내용으로 화엄 사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나는 단청문양과 함께 당시의 기억을 화면에 모으고 흐트러뜨려 그려 넣는다."
(홍보라 작가노트 中)

"기존의 형식과 색감에서 벗어나 많은 이들에게 불교 미술의 장벽을 낮추고, 이를 통해 종교 미술의 경계를 허물고자 한다." **(조민경 작가노트 中)**

단청(丹靑)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서울 인사동 무우수갤러리는 2월 9일까지 전통 단청을 동시대적 시선으로 재해석한 기획단체전 '모던 단청'을 연다.


전시 참여 작가인 조민경의 작품 '공화' (2023).

이번 전시는 강무아·김도영·남아라·박장배·이인승·이지원·정하율·조민경·홍보라·황체상 등 청년 작가 10인이 한국 전통 건축 장식인 단청을 회화와 조형, 편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각자의 시선과 언어로 새롭게 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단청은 단순한 장식을 넘어 색채와 문양, 상징과 철학이 결합된 우리의 총체적 예술로 주로 사찰 건축에서 활용된다. 그렇기에 현대에서 단청은 과거의 유산으로 기억·인식돼 왔다. 무우수갤러리 기획단체전 '모던 단청'은 이러한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청년 작가들의 새로운 시도다.

'모던 단청'전은 전통과 현대의 교차, 오방색이 지닌 색채의 울림, 공간적 몰입과 체험, 실험적 청년성, 그리고 수호와 길상이라는 단청 고유의 상징성을 주요한 키워드로 삼는다. 참여 작가들은 단청의 색과 패턴, 구조적 리듬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며 과거의 형식을 현대적 감각으로 변주한다. 이를 통해 작가들은 단청은 더 이상 고정된 전통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예술로 확장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전시는 무우수갤러리 3층과 4층, 서로 다른 성격의 공간을 통해 입체적으로 구성된다. 3층 화이트관에서는 '색과 문양, 새롭게 피어나다'를 주제로, 전통 단청의 색채와 문양을 밝고 경쾌한 현대적 시각 언어로 풀어낸 작품들이 소개된다. "관객이 자연스럽게 단청의 조형성과 색의 리듬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갤러리 측의 설명이다.

4층 블랙관에서는 '단청, 신성성과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단청이 지닌 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현대미술의 언어로 탐구한다. 보다 깊은 감상과 사유를 유도하며, 단청의 미래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장으로 구성된다.

무우수갤러리는 "이번 전시를 통해 단청을 과거의 유산이 아닌, 현재의 삶과 감각 속에서 다시 호흡하는 예술로 조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광사 말사 기탁 성보유산 '한자리'

송광사성보박물관 '敬守寶藏'
말사 12곳 성보 120점 공개
2월 13일부터 1년여 진행돼

조계총림 송광사성보박물관(관장 고경 스님)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광주·전남 지역 말사에서 기탁한 성보를 한자리에 모은 특별전 '공경히 지키고 보배로이 간직하다(敬守寶藏)'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까지 조사가 완료된 말사 기탁 성보를 중심으로, 도난과 훼손의 우려로 박물관에 안전하게 보존돼 온 문화유산 120여 점을 공개하는 자리다.

특별전의 제목은 흥선대원군 이하응(1820~1898)이 영조가 7세 때 쓴 어필 '송죽(松竹)'을 보고 남긴 배관기(拜觀記)에서 인용했다. 흥선대원군은 당시 "영조 7세 때의 어필로 참으로 세상에 드문 귀중한 보배이니 공경히 지키고 보배로이 간직하라(英祖七歲時御筆 眞稀世重珍 須敬守寶藏)"고 기록했다. 이번 전시는 그 정신을 오늘에 되살린다.


송광사 성보박물관 특별전에 전시되는 고흥 봉래사 석조여래좌상.

송광사성보박물관은 지난 30여 년간 말사에서 기증·기탁된 성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왔다. 특히 1995년부터 불상과 불화, 복장유물 등 도난과 훼손 위험이 큰 성보를 중심으로 기탁받아 박물관 수장고에 안전하게 보관해 왔으나, 그동안 신도들과 대중이 유물을 직접 친견하지 못했던 아쉬움도 컸다. 이번 특별전은 그러한 공백을 메우고, 남도 불교미술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에는 자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유물과 고흥 능가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복장유물 등 보물급 성보를 비롯해, 장흥 신흥사 소장 정방사명 동종(전라남도·광주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고흥 봉래사 신중도, 원효사 출토 유물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문화유산이 대거 포함됐다.

특별전은 2월 13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여에 걸쳐 열린다. 매주 월요일과 설·추석 연휴 기간은 휴관한다.

061-755-0407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㉘ 제계십리(制戒十利)

해탈과 화목을 이루는 첫 번째 계단

制 戒 十 利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거듭 강조하신 가르침이라면,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불자에게 계율이 바로 그러하다. 번뇌를 제거하고 열반에 이르기 위한 삼학(三學)에서 계(戒)는 마음의 집중인 정(定), 통찰의 지혜인 혜(慧)와 함께 수행의 근간을 이룬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살생과 폭력, 착취, 거짓말, 성적 일탈, 과도한 음주를 삼가라고 분명히 당부하셨다. 계율은 탐욕과 분노 같은 번뇌와 악업을 제어하고 소멸하기 위한 자기 절제의 기준이다. 일상의 질서가 무너지면 마음은 산란해지고, 혼탁하고 흔들리는 마음 상태에서는 바른 통찰이 이루어질 수 없다.

〈오분율〉은 계율을 제정한 열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비구들이여, 승가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 악인을 굴복시키기 위해, 참회하는 이의 안락을 위해, 현세와 후세의 번뇌를 끊기 위해, 아직 믿음이 없는 이에게는 믿음을 주고 이미 믿음이 있는 이에게는 신심을 증장시키기 위해, 정법이 오래 머물게 하고 청정한 범행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 계를 제정한다." 이는 번뇌의 소멸, 공동체의 화합, 정법의 지속이라는 세 가지 동기로 요약할 수 있다.

45년간 전법하며 계율을 제정한 부처님의 뜻은 여러 경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초기의 재가 불자들에게도 이웃과 나누는 보시와 함께 계율의 실천이 참된 행복의 토대임을 강조하셨다. 〈대반열반경〉에 부처님은 열반을 앞두고 시자 아난에게 "내가 열반한 뒤에는 계율과 법을 너희의 스승으로 삼으라"라고 당부하셨다. 또한 〈앙굿따라 니까야〉에서는 "비구들이여, 계율이 존중되고 잘 지켜지는 한 정법은 오래 머문다. 계율이 무너지면 정법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계율이 승가의 번영과 정법의 존속을 떠받치는 핵심임을 분명히 하셨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계율을 자신의 파멸을 막고 타인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억압과 통제로 이해한다. 그러나 〈상윳따 니까야〉에서 계율은 쇠사슬이 아니라 방패로 비유된다. "계율을 지키는 이는 후회가 없고, 후회가 없으면 기쁨이 생기며, 기쁨에서 삼매가 일어나고, 삼매에서 지혜가 생긴다."

흐름은 명확하다. 계율은 마음의 평안을 낳고, 평안은 집중으로 이어지며, 집중은 지혜를 낳아 마침내 해탈로 나아가게 한다.

문득 명나라 말기 문인 진계유의 잠언이 떠오른다. "고요히 앉아 본 뒤에야 평상시의 기운이 들떠 있음을 알았다. 침묵을 지킨 뒤에야 지난날의 말이 소란스러웠음을 알았다."

〈화순 불암사 주지〉

화엄사 전통 사경원, 제4회 회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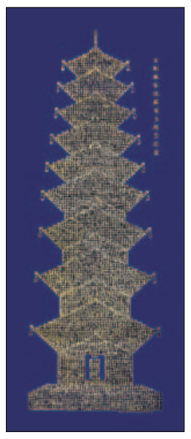
경내 성보박물관서 2월 28일까지

전통사경 수행의 정신과 문화적 가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화엄사에서 열린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 전통사경원은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구례 화엄사성보박물관에서 '제4회 화엄사전통사경원 회원전 '寫, 그 樂-사경, 그 즐거움'을 개최한다.

전시회에는 액자 작품 19점과 선장본 17점 등 총 36점의 사경 작품과 함께, 양초에 새긴 사경 작품들도 선보인다.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은 "전통사경은 마음을 닦는 수행이자 한국불교를 지탱해 온 소중한 불교문화유산"이라며 "회원들의 깊은 발원과 정진이 이번 전시를 통해 전통사경의 대중화로 원만히 회향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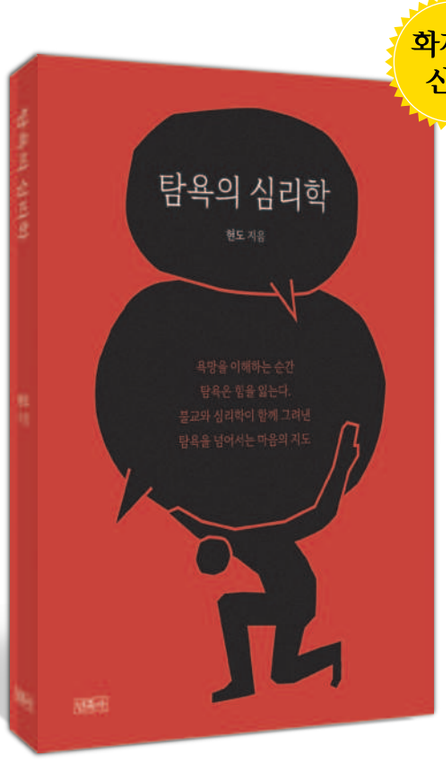

선양수 회원의 '금강반야바라밀다심경보탑도'.

화엄사전통사경원은 2020년 전임 주지 덕문 스님의 원력과 김경호 국가무형문화유산 사경장의 발원으로 개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탐욕은 왜 멈추지 않는가

화제의 신간



돈·욕망·불안이 멈추지 않는 마음의 구조
불교와 심리학으로 읽는 탐욕의 메커니즘

더 가지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그러나 불안은 멈추지 않았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탐욕의 작동 방식이다

덜 가지는 법이 아니라,
덜 휘둘리는 법을 알려주는 책



탐욕의 심리학
현도 스님 | 392쪽 | 28,500원

직지사 녹원 큰스님을 계사로 출가하여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에서 응용불교학을 전공하여 석사과정을, 동대학원에서 응용불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불교상담학회에서 개발한 Mind Detox Program(MDP: 탐진치 해독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인증 교육이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불교상담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며 동대학교 불교학과 및 명상심리학과에서 강사로 후학을 기르고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8~2/3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한글 관음경	우룡/불교신행연	효림
2	수호신 기도	묘장	민족사
3	지장기도법	현장	솔과학
4	찬집백연경-백 가지 인연 이야기	역경위원회	동국역경원
5	나를 찾는 108참회 기도문	선묵혜자	마음서재
6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원철	불광출판사
7	탄허 선사의 사교 회통 사상	문광	민족사
8	눈부신 하루를 시작하는 한마디	법상/용정운	조계종출판사
9	만다라 컬러링 100	편집부	불광출판사
10	묘엄 평전	박원자	조계종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한글 원각경	법공양	함허득통/원순
2	부처님의 생애	조계종출판사	교육원 편찬위
3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불광	과경 엮음
4	요가디피카	선요가	아헹가/현천 역
5	도표로 읽는 경전입문	민족사	정운/배종훈 그림
6	도표로 읽는 불교입문	민족사	이자랑, 이필원
7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한마음출판사	대행 큰스님
8	금강경 역해	불광	각묵
9	화: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운주사	틱낫한/허우서, 허주형
10	마음꽃을 줍다	김영사	덕조 스님 글, 사진

왜 충분히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가



탐욕의 심리학
현도 스님 지음
민족사
2만8500원

불교·심리학으로 읽는 탐욕의 구조
핵심은 '소유' 아닌 마음 지배 방식
"욕망 이해하면 탐욕은 힘 잃는다"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우리는 왜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안한가. 더 많이 벌고,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나은 조건을 손에 쥐었는데도 마음은 좀처럼 편안해지지 않는다. '이 정도면 됐다'는 안도는 잠시뿐, 곧바로 더 많은 소유와 성취를 향한 결핍감이 고개를 든다. 그 결핍을 메우려다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다시 더 큰 불안과 결핍 속으로 자신을 밀어 넣는다. 〈탐욕의 심리학〉은 이 익숙하지만 불편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저자 현도 스님(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상담연구소 연구원·사진)은 "인간을 끝까지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더 갖고 싶다'는 마음, 즉 탐욕"이라고 말한다. 스님은 책에서 탐욕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혼란을 겪는 현대인의 삶을 불교와 심리학이라는 두 관점으로 분석하며, 성찰과 회복 그리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한다.

현도 스님은 탐욕을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결함이나 개인의 성격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다. 대신 탐욕이 어떻게 마음에서 형성되고, 왜 멈추기 어려우며, 어떤 과정을 거쳐 개인의 불행과 사회적 혼란으로 증폭되는지를 짚어 낸다. 이를 통해 문제의 핵심이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소유가 마음을 지배하는 방식에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스님은 이 책에서 불교는 욕망을 억누르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욕망이 생겨나는 구조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그 힘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실천적 지혜로 제시한다.



"욕망을 이해하는 순간, 탐욕은 힘을 잃는다"는 메시지는 불교 수행의 핵심을 드러낸다.

책은 초기불교의 '갈애(Taṇhā)' 개념과 현대 심리학의 욕망·중독 이론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부처님의 비유와 현대 심리학의 데이터가 겹쳐지면서, 독자는 탐욕이 단순한 의지 부족이나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반복 학습된 마음의 습관임을 이해하게 된다. 욕망을 죄악시하기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다루어야 할 심리적 현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이 책의 중심에 놓여 있다.

이어 탐욕이 어떻게 사회적 현상으로 증폭되는지를 짚는다. 끝없는 경쟁과 비교를 부추기는 구조, 불안 위에 세워진 소비 시스템 속에서 탐욕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압력으로 작동한다.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공 인식, 도박과 가상화폐 광풍, 소유를 통해 존재를 증명하려는 강박은 모두 이 시대가 만들어 낸 탐욕의 얼굴이다.

이 지점에서 스님은 불교의 '중도' 사상과 현대 심리학의 회복 개념을 연결한다. 더 많이 가지는 방향이 아니라, 존재의 충만으로 시선을 돌리는 사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을 외면하는 이상론이 아니라,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실천적 제안으로 읽힌다.

현도 스님은 운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동국대 WISE캠퍼스에서 응용불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군법사로 활동했다. 현재 한국불교상담학회에서 개발한 '마인드 디톡스 프로그램(MDP, 탐·진·치 해독 프로그램) 강사이며,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상담연구소 연구원이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멘탈 잡는 법'



힘들때 열어봐
장웅연 지음
동국
1만8000원

불교적 지혜로 찾는 삶의 해법
도발적 문장 속에 담긴 진정성

"마음이 흔들리면 병이지만, 마음을 움직이면 힘이다. 엄밀히 말해 부정적인 생각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것이다.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사는 게 마음 같지 않더라도 마음마저 내주어서는 안 된다. 내 삶의 주도권을 삶이 아니라 내가 쥐면 늘 여유롭고 자신만만하다."

불교신문 기자인 저자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대처 방법을 불교적 지혜로 풀어낸 108편의 글을 담은 책이다. 갖가지 곤경과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에게 어설픈 덕담이나 위로 대신 직설적이고 과감한 방식으로 '멘탈 잡는 법'을 알려 준다.

저자는 서문에서 "부처님의 여러 말씀 가운데 처세와 직결되는 내용을 선별해 나의 언어를 붙였다"고 소개하고 "그 어떤 불서보다 현실적이고 냉철한 책이 되길 바랐다"고 밝혔다.

책에서는 '세상은 선악이 아니라 강약이 움직인다', '걸림돌이나 디딤돌이나 모양은 비슷하다', '최고의 복수는 그 인간처럼 되지 않는 것이다'와 같은 도발적이고 날카로운 주장을 〈법구경〉, 〈백유경〉, 〈법화경〉 등 경전 구절을 바탕으로 풀어낸다.

'밥벌이의 지겨움'을 한탄하는 이에게는 "먹어야 깨달을 수 있고 부처님도 먹어야 했다. 밥벌이가 부처님"이라고 말하고, 과로로 힘들어하는 이에게는 "알고 보면 그렇게 살아야 자기 속이 편하니까 그러는 것이기에 열정도 탐욕"이라고 경책한다.

"인생에는 학원이 불필요하다.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해야 할 정도로 나에 대해 더 잘 아는 타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날이 역사 시간이었다면 현재는 체육 시간이다."

저자는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불교신문 기자로 일하고 있다. 〈나는 어제 개운하게 참 잘 죽었다〉 〈불교는 왜 그래?〉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선문답〉 등 12권의 책을 펴냈다.

여수령 기자

새로 나온 책

인생을 바꾸게 하는 인연법



그래서 인연입니다
김현준 지음
효림
5000원

"인생은 그 자체가 하나의 큰 인연이다. 우리가 인연을 잘 가꾸어 풀어 가게 되면 인생 전체가 원만·성취·진실로 가득 채워진다."

김현준 불교신행연구원장이 '인연'을 주제로 월간 '법공양'에 연재한 글을 모은 책이다. 좋은 인연을 소중히 가꾸는 법, 나쁜 인연을 푸는 방법 등을 소개한다.

저자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인·연·업·과(因緣業果)'의 네 가지를 동시에 맺고 풀고 가꾸고 이루는 자리"라며 "인연법을 분명히 알고 잘 풀어 나가게 되면 누구나 원만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돈과 물건에 휘둘리지 않는 법



덜 갖는 삶에 대하여
코이케 류노스케 지음
김슬기 옮김
유노북스
1만8000원

지난해 〈초역 부처의 말〉로 '불서 신드롬'을 일으킨 코이케 류노스케가 '돈과 물건에 휘둘리지 않고 사는 법'을 말한다. 15년 전 일본에서 출간된 책으로, 감정과 욕망에 휘둘리는 마음을 들여다보게 한다. 소유를 줄이라고 훈계하는 대신 우리는 왜 필요 이상의 물건을 원하는지, 그 집착이 어떻게 불안을 키우는지를 차분히 짚는다. 더 갖고 싶은 마음을 인정한다, 방을 채우기 전에 마음부터 채운다 등의 원칙을 제시한다.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돈과 물건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마음 가는 대로 쓰면 된다"며 "그것이 돈과 물건에 대해 가장 가볍고 얽매이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다.

참지 못한, 혹은 너무 참아 버린 시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아침도 있단다
김재진 지음
수오서재
1만8000원

"어디가 목표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은 무섭게 속도를 낸다. 미쳐 버린 저 시간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나스스로 멈추는 것밖에 없다. 내 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분주함에서 고요함으로 바꾼다."

김재진 작가의 5년 만의 신작 에세이다. 작가는 음대 학생으로 21살에 등단해 시와 소설 등을 집필했고, 방송국 피디로 일하다 40대 초 직장을 떠나 명상과 마음공부를 만났다. 이후 배운 적 없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열 번의 개인전을 열었다. 작가는 이번 에세이에서 인생의 황혼을 맞아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 후회와 깨달음 등 삶의 내공과 작가로서의 깊이를 드러낸다.



불교사상과 최신 생물학의 연관성을 탐구!
다르마와 DNA
저명한 진화생물학자인 저자가 DNA라는 구체적 실험 대상을 통해 불교의 명제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불교 사상의 원리와 논리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디 덴버 지음, 이동수 옮김/신국판/360쪽/값 24,000원

대승의 기원을 다룬 기념비적인 책!
불교와 에크리튀르
서양 인문학의 첨단 이론을 과감하게 접목하여, 대승불교의 역사를 사상사뿐 아니라 사회사의 관점에서 혁신적으로 재해석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시모다 마사히로 지음, 박현진 옮김/신국판/480쪽/값 28,000원

일본 고승들의 벼락같은 가르침!
번뇌와 함께 춤춰라
일본 명승들의 수행과 구도의 길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가르침은, 시공을 초월하여 현대인들의 마음에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와 깊은 울림을 준다.
함현준 지음/국판변형/240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착한 소비는 없다, 깨어 있는 선택은 있다



착한 소비는 없다
최원형 지음
블랙피쉬
1만6800원

소비를 수행으로 바꾸는 방법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바꾼다"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최원형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장.



〈착한 소비는 없다〉는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의 출발점에 '나의 소비'가 있음을 짚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폭염과 산불, 기록적인 폭우와 혹한. 이제 이상기후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이 됐다. 아니, 오히려 그 강도는 더해지고 있다. 누구나 문제의 심각성은 느끼지만, 동시에 고개를 젓는다. 너무 크고 복잡한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의 원인은 거대 산업과 국가 시스템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개인의 역할은 미미하게 느껴진다.

〈착한 소비는 없다〉는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의 출발점에 '나의 소비'가 있음을 차근차근 짚어 나간다.

'착한 소비는 없다'고 단언하는 저자는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윤리적인 소비'라는 말에 단호하게 선을 긋는다. 소비란 본질적으로 지구의 자원과 노동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그렇기에 완전히 '착한' 소비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착한 소비가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저자는 그 답이 '똑똑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 온 일상의 소비가 어떤 경로를 거쳐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로 되돌아오는지를 생활 속 에피소드로 풀어 낸다. 옷 한 벌, 배달 음식 한 끼, 클릭 한 번의 온라인 쇼핑이 노동 착취와 물 부족, 생태계 파괴, 생물 멸종과 연결돼 있음을 보여 준다. 개인의 선택이 사회를 거쳐 세계로 확장되는 과정은,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緣起)의 그물망을 떠올리게 한다. 나와 무관한 문제처럼 보이던 환경 위기가 사실은 나의 삶과 촘촘히 맞닿아 있음을 이 책은 집요하게 환기한다.

지난 2020년 출간돼 생태·환경 분야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이 책이 5년 만에 전면 개정판으로 돌아온 것도 주목할 만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소비의 무대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했고, AI 기술의 확산은 업무와 일상의 속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우리는 '편리함'을 당연한 가치로 받아들이지만, 그 이면에서 어떤 대가가 축적되고 있는지는 충분히 묻지 않았다. 개정판은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다룬다. 변화된 소비 환경과 기술 발전이 만들어 낸 새로운 문제들을 보완하고, 개인-사회-세계로 확장되는 구조 속에서 사고의 범위를 넓힌다.

저자는 끊임없이 묻는다. '정말 필요한가', '다른 선택지는 없는가', '이 편리는 누구의 희생 위에 놓여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독자를 죄책감에 빠뜨리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화두에 가깝다.

이 책이 환경서적 특유의 피로감을 주는 대신 '대안'을 제시하는 점도 주목된다. 한 달에 하루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정해 보기, 일주일에 한 번 '고기 없는 하루' 보내기, 고장 난 물건의 수리 방법 찾아보기, 세탁과 탈수 시간 줄이기, 외식할 때 먹지 않을 반찬은 받지 않기 등 제안이 소박하고 구체적이다.

이러한 '작은 수고로움'은 불교의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다. 탐욕을 줄이고, 지금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살피는 깨어 있음은 곧 수행의 태도다. 저자가 말하는 변화는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선택을 조금씩 달리하는 데서 출발한다. 덜 사고, 오래 쓰고, 함께 바꾸는 삶. 이는 환경을 위한 윤리 이전에 삶의 밀도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혹자는 이러한 실천이 너무 사소하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저자는 분명히 말한다. 지속 가능한 삶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으며,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착한 소비는 없다〉는 질문으로 시작해 행동으로 끝나는 책이다. 환경 문제 앞에서 무력감을 느껴 온 독자에게 책은 '할 수 있는 것'의 목록을 조용히 내민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역학자가 읽어 주는 원효 사상



원효의 마음공부
강기진 지음
유노북스
2만2000원

원효 스님 사유 체계 정리
"한마음은 모든 존재 근본"

복잡한 주역의 세계를 쉬운 비유로 풀어내 주목받은 역학자 강기진 태극사상연구소장이 이번에는 원효 사상을 소개한다.

〈원효의 마음공부〉는 저자가 〈금강삼매경〉, 〈금강삼매경론〉, 〈대승기신론소〉를 중심으로 원효 스님의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철학·심리학을 연결해 설명한 책이다. 〈금강삼매경론〉은 '경전 위의 경전'이라 불리는 〈금강삼매경〉을, 〈대승기신론소〉는 인도 마명 보살이 썼다고 전하는 〈대승기신론〉을 원효 스님이 각각 풀이한 책이다.

저자는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선 후 원효는 마음을 찾고자 길을 나섰다. 모든 것을 지어내는 마음, 그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다"며 "이 책은 원효의 마음공부 여정을 따라가며 그가 이룬 마음의 성취를 배워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책에서는 고통이 생겨나는 구조를 추적하며 '마음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실체인가'에 대한 답을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원효 스님의 핵심 사상을 '한마음'으로 정의한다. 〈금강삼매경론〉에서 원효 스님은 "한마음은 일체의 더럽거나 깨끗한 모든 존재의 공통적인 의지처가 되는 것으로, 곧 모든 존재의 근본"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한마음 여래장이 궁극의 일자요, 만법의 귀의처임을 깨달았을 때 원효는 그간의 모든 의혹과 번뇌는 남김없이 깨뜨렸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한국인의 기본 심성은 한마음을 찾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원효가 정립한 한마음 사상은 이러한 우리 민족의 집단 무의식과 일치하기에 면면히 이어져 왔다"고 설명한다.

수행으로 〈법화경〉 읽기



법화경 수행 연구
현수 스님 지음
운주사
2만8000원



'묘법연화경(언해) 권1, 4', 1463년, 보물. 사진 출처=국가유산포털

부처님이 '가장 바른 흰 연꽃과도 같은 가르침'이라 찬탄한 〈법화경〉. 사경과 독송, 기도를 통해 〈법화경〉과 인연을 맺지 않은 불자는 드물다. 그러나 이 경전이 우리에게 무엇을 수행하라고 말하는지, 그 수행의 구조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현수 스님(중앙승가대 강사)은 포교 현장에서 〈법화경〉을 독송하는 불자들의 간절한 신심에 감동하면서도 "과연 〈법화경〉은 우리에게 어떤 수행의 길을 제시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게 됐다. 그 안에 담긴 '일불승(一佛乘)'의 가르침, 나아가 성문·연각·보살 등 삼승 수행의 구조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기복적 신행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법화경 수행 연구〉는 일불승과 회삼귀일 사상이 왜 등장했는지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피고 있다. 스님은 〈법화경〉의 형성과 전승, 원전과 번역본의 차이, 사상적 배경을 치밀하게 검토하면서 이 경전이 왜 일불승 교설을 설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고찰한다. 그 결과 〈법화경〉은 기적과 권능을 설하는 신앙 경전이 아니라, 분리되고 대립하던 삼승 수행을 하나의 길로 통합하려는 대승불교의 핵심 선언이라고 정의한다.

책은 4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은 〈법화경〉의 형성 과정과 중심 교설을 다룬다. 다양한 산스크리트 원전 전승과 한역 번역본을 비교하며, 경전이 지닌 다층적 구조를 드러낸다. 특히 천태지의의 해석을 토대로 〈법화경〉이 성문 중심의 교설을 넘어 보살의 무량한 세계로 확장되는 사상적 궤적을 짚어 낸다.

제2장은 일불승 교설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다룬다. 부파불교 시기, 삼승 수행은 서로 다른 길로 분리돼 있었고, 이는 교단 내부의 갈등과 배타성을 낳았다. 이에 대한 반성 속에서 등장한 것이 초기 대승불교의 통합적 시도였으며, 〈법화경〉은 그 정점에 놓인 경전이다. 스님은 일불승과 회삼귀일의 사상이 "모든 중생을 부처의 길로 이끈다"는 대승불교의 근본정신을 가장 응축한 표현이라고 말한다.

제3장에서는 삼승의 수행 체계를 '하나의 수행 지도'로 재구성한다. 성문승은 초기불교의 수행 단계로, 연각승은 독각적 수행의 길로, 보살승은 육바라밀과 보살 52위의 수행 체계로 정리한 뒤, 이 모든 수행이 결국 하나의 목표, 곧 부처의 길로 모이는 과정을 밝힌다.

제4장은 〈법화경〉 수행의 개인의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설명한다. 즉 개인으로는 '부처와 똑같은 성품이 있음'을 자각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일체중생을 부처로 보는 태도를 갖추고, 사회적으로는 모두가 구원성불의 존재임을 자각해 안온한 불국정토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불승 향한 삼승의 '수행 지도' 재구성
'안온한 불국정토' 만드는 현대적 실천

특히 사회참여불교와 연결되는 현대적 의미를 제시해, 불평등·갈등·분열이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 〈법화경〉의 일불승 가르침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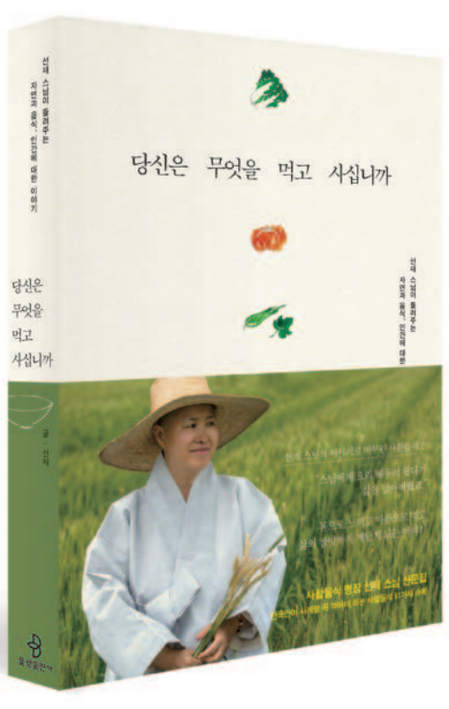
현수 스님은 "〈법화경〉의 핵심 교설인 일불승설은 방편으로 제시되는 회삼구일과 같이 깨달음의 대통일장이론"이라며 "이 책이 〈법화경〉을 신행해 온 분들께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고 더욱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대한민국 1호 사찰음식 명장 〈흑백요리사〉 시즌2 출연으로 화제!

선재 스님이
들려주는 건강한 음식,
행복한 삶에 대한
단단한 메시지!

선재 스님이 들려주는 자연과 음식, 인간에 대한 이야기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선재 지음 | 368쪽 | 22,000원
한국인이 사계절 꼭 먹어야 하는 사찰음식 21가지 수록



나와 가족, 온 지구의
생명을 살리는 절집 밥상
사찰음식에 담긴 비움의
미학과 공존의 철학

선재 스님의 약보다 좋은 사찰 음식 이야기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지음 | 256쪽 | 20,000원
이시형 박사 추천, 선재 스님 30년 음식수행의 결정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고통 받는 '악업의 과보' 참회로 끊다

반야 참회로 여는 수행의 첫걸음

③ 참회 대상의 근거와 무지 시 문제점

다음으로 반야 참회의 참회 대상에 대한 근거를 소개하면서 참회의 기원과 악업의 과보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한다. 참회 대상이란 참회를 해야 할 악업을 말하는 것인데, 그 근거는 오계(五戒)와 십악(十惡)이다. 오계는 불자들이 처음 수계할 때 받는 기본적인 계율이며, 십악은 사찰에서 가장 많이 독송되는 〈천수경〉의 참회 항목이다.

오계는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에 근거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① 불살생(不殺生) : 살아 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
② 불투도(不偸盜) :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③ 불사음(不邪婬) : 잘못된 음행을 하지 말라(단, 출가자는 음행 금지).
④ 불망어(不妄語) : 거짓말을 하지 말라.
⑤ 불음주(不飮酒) : 술을 마시지 말라.

출가자와 재가자들 사이에 지켜야 할 계율의 항목 수와 내용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근본이 되는 이 다섯 가지 항목은 공통적이며 이것을 어기는 행위는 악업이 된다.

이 오계와 비슷한 내용으로 〈천수경〉에 나오는 십악[열 가지 악업]이 있다. 이것은 위의 오계 중에서 ①②③을 어긴 행위를 몸으로 지은 악업이라고 해서 신업(身業), ④를 어긴 행위를 말로 지은 악업이라고 해서 구업(口業)이라고 하는데, 이 구업을 다시 망어·기어·양설·악구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다음 마음으로 짓는 악업인 탐애[탐욕], 진에[성냄], 치암[어리석음] 세 가지를 의업(意業)이라고 하여, 총 열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이 십악에 포함된 의업(탐진치)은 근본불교의 팔정도에 나오는 정견(正見)과 정사(正思)에 위배되는 마음의 움직임인데, 이것이 대승불교에 와서 참회에 포함된 것이다. 또 십악에는 음주가 빠져 있지만 오계에는 음주가 포함돼 있는데,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하신 취지에 따라 반야 참회에는 음주가 참회 대상에 포함돼 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왜 이런 악업을 짓지 말고 계를 지키라고 강조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이유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실 때 얻은 천안통과 숙명통으로 윤회를 거듭하는 중생의 실상을 보시고, 중생이 고통을 당하는 원인이 자기가 지은 악업의 과보 때문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즉 자업자득이요,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고통을 받는 것이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과보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악업을 지으면 우선 이 현실에서 많은 고통을 받는다. 살인이나 도둑질을 하면 교도소에 가야 하고, 잘못된 이성 관계를 갖게 되면 가정 파탄이 오며,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 술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건강, 수명, 재산, 명예, 화목한 가정 등 많은 부분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겪어야 할 내면적인 고통이 얼마나 클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다음 죽어서는 지옥, 아귀, 축생의 삼악도(三惡道)에 가서 또 심한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다시 사람 몸을 받아도 그 과보가 이어진다. 살생에는 단명하거나 몸이 아픈 과보가 따르고, 도둑질을 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하게 살며, 삿된 음행을 했으면 부정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거짓말을 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 술을 많이 마시면 머리가 나쁜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런 상태 역시 고통이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이 과거에 지은 악업의 과보를 받아 이렇게 나쁜 환경이나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사실을 자신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면서 반복해서 악업을 짓고 고통을 계속 겪는 것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받기 때문에 〈천수경〉에서는 이런 악업을 '중죄(重罪)', 즉 '무거운 죄'라고 표현하고 있다.

출재가의 오계 어기는 행위는 악업
십악과 달리 음주도 반야 참회 대상

악업 과보로 인한 고통 안 받으려면
계율 지키며 원인 되는 행위 금해야

불가피한 악업엔 참회로 고통 소멸
참회 대상 정확히 알고 자기 성찰 要

과보로 오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최소한 몸과 말로 짓는 이 다섯 가지 악업을 짓지 말라는 조항을 불자들의 기본 계율로 제정하신 것이며, 수행자들에게는 그 악업의 원인이 되는 의업도 정화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악업을 전혀 짓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참회라는 제도를 알려 주셨다. 자신이 몰랐거나 불가피하게 악업을 지은 경우에는 부처님이나 여러 스님들 앞에서 고백하고 뉘우치면 그 악업의 과보에서 벗어나고 고통을 받지 않게 된다. 나아가 더 이상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공덕을 지어 미래에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참회의 기원이다.

만약 악업을 지었는데도 참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 죄는 더욱 깊어지고 과보는 더욱 고통스러워진다. 예를 들어 도둑질을 했는데 참회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다음에는 더 큰 도둑질을 하게 된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이다. 더 큰 악업에 따르는 과보는 더욱 심한 고통임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래서 참회는 과거의 악업으로 인한 현재의 고통을 소멸하고 미래의 행복을 기약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즉, 불교 신행의 근본이 바로 참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현실에서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고통을 겪는다면, 자업자득의 원리를 곰곰이 새기면서 자신이 모르는 과거에 악업을 지었을 수도 있음을 생각하고 그 상황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고통이 훨씬 가벼워진다.

다음에는 참회 대상을 정확하게 모를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자신의 행위가 참회할 악업인지 아닌지를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참회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악업은 더욱 깊어지고 과보는 더욱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위와는 반대로 참회를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 참회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불필요한 자격지심이나 죄의식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과도하게 소심한 체질이 되거나 소극적인 삶을 살 수도 있다. 이 역시 고통으로 귀결된다. 불자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

셋째, 참회 대상을 잘 모른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다. 이렇게 되면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 전전긍긍하게 된다. 이것이 쌓이면 겉으로는 별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긴장과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 이 역시 고통이다.

넷째, 참회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서 절에 오래 다니면 자신의 내면에서 성숙한 신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외형적인 것에 끌려다니는 '껍데기 신행'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절에 몇십 년 다녔다거나 삼천배를 몇 번 했다는 사실을 대단하게 자랑하기도 하고, 높은 지위를 가진 스님과 잘 안다거나 신도회에서 어떤 감투를 쓰는 것을 마치 불교 신행의 결실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일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렇게 신행을 하면서도 내면에서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깊어지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원만한 인격을 갖추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 신행에서 참회를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혜룡 스님
서울 반야법회·부산 일심회 지도법사

현대불교신문 지면광고시 무료영상 게재

NO.1 사찰 매매 정보 채널

좋은 인연 사찰 안내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

그대는 자비보살

진창호 나누며하나되기 사무처장

하루하루 모여 이룬 100억원 나눔 “불자들 공덕 결과”

코로나19 이후 5년만에 달성
기업 후원 연결이 활동의 핵심
성철 스님 열반으로 불교 인연
금융맨서 불교 외호 발원 세워
신뢰 쌓이면 자연스레 길 열려
“숫자 넘어 나눔 질 높이고 파”



진창호 나누며하나되기 사무처장이 남북 교류, 국제 지원, 취약계층 나눔까지 다양한 활동이 소개된 판넬 앞에 섰다. 진 처장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쌓이면 길은 저절로 열린다”고 말했다.



2026년 1월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나누며하나되기의 활동을 설명하는 모습.


진 처장은 30대 시절 조계사 청년회와 대불청 활동가로 지내며 청년불자들과 호흡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하루하루가 모여 100억원의 물품 나눔이 이뤄질 수 있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100억원이라는 숫자를 떠올릴 때마다 물품을 받고 기뻐하는 이웃들과 아무 조건 없이 물품을 내준 기업관계자 얼굴들이 먼저 떠오르죠.”

천태종(총무원장 덕수 스님)이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꿈꾸며 설립한 NGO (사)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보광 스님)가 최근 소외계층 물품 후원 누적 100억원을 달성했다. 2020년 2월 코로나19 초기부터 나눔을 시작한 지 5년만의 성과다. 생필품 하나, 마스크 한 장, 손소독제 한 병이 필요한 현장과 이웃들의 사연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결과로, 그 중심에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진창호(법명 보인) 나누며하나되기 사무처장이 있다.

진창호 사무처장은 “100억원이라는 숫자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얼굴들이었다”고 말했다. “지원 물품을 전달받고 ‘다시 버틸 힘이 생겼다’고 말하던 어르신들, 시설 관계자들, 트럭 뒤에서 쉼 없이 물품 상자를 옮기던 현장 봉사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면서 “성과는 나누며하나되기가 혼자 잘해서라기보다 함께 마음을 모아 준 기업과 시민, 스님과 불자들의 공덕이 모인 결과”라고 거듭 강조했다.

나누며하나되기의 물품 후원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다. 기업에서 후원받은 물품을 가장 필요한 곳으로 연결하는 과정 자체가 활동의 핵심이다. 하루일과가 늘 현장에서 시작되고 현장에서 끝난다는 진 사무처장은 “물품은 창고에 쌓여 있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닿는 순간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 물품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끝까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단기간의 성과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없이 많은 전화와 발품이 쌓여 있는 것이다.

나누며하나되기는 2025년 한 해에만 41회에 걸쳐 160개 단체에 23억원 상당 물품을 후원했다. 팬데믹 장기화와 사회적 고립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깊어졌고, 후폭풍이 지나간 지금까지도 진 처장의 하루는 분주하기만 하다.

진 처장은 “현장을 다녀올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조금 더 챙겨 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그러나 아쉬움은 곧 다음 현장을 준비하는 힘이 된다고도 했다. 불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아주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있다는 자각이 일을 추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진 처장의 불교 인연은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학 졸업 후 기자로 일하던 1993년, TV 뉴스에서 접한 성철 스님 열반 소식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한 스님의 열반이 주요 뉴스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사회 전체가 깊은 애도 분위기에 잠긴 모습은 그에게 강렬한 질문을 던졌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토록 많은 이들이 존경하고 슬퍼할까.’

궁금했다. 그 길로 성철 스님의 저서를 찾아 읽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영원한 자유〉 등에서 수행자의 엄정함과 함께 자비의 언어를 만났다. 불교는 그때부터 그의 삶 속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스며들었다.

1995년, 진 처장은 성철 스님이 주석했던 해인사 백련암으로 향했다. 새벽 2시에 도착한 암자에서 절하는 법도 모른 채 3000배를 시작했다. 맨바닥에 올린 절로 무릎이 까지고 피가 흘렀다. 그러나 가슴은 이상할 만큼 가벼웠다. 그날 불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었다. ‘보인’이라는 법명도 받았다. 휴가 때마다 백련암을 찾아 3000배 정진을 하고 수련회에 동참했다. 불교는 점차 그의 삶의 중심이 됐다.

이후 그의 삶은 순탄한 듯했다. 금융권에 몸담으며 ‘억대 연봉’ 성공 가도를 달렸다. 거듭되는 성과에 여의도에서 ‘잘나가는 사람’이 됐다. 그러나 금융위기와 판단 착오는 한순간에 삶을 무너뜨렸다. 실패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남겼다. 인생의 가장 깊은 바닥을 경험한 시간이었다.

고통스러웠던 시간, 극단적인 생각까지 스쳤던 나날들. 그를 붙잡아 준 것은 다시 수행이었다. 매일 3~4시쯤 장을 마감하면 조계사를 찾았다. 그렇게 1080배를 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조금씩 주변 사람들의 손해도 회복됐고, 그의 마음도 차츰 가벼워졌다.

시련을 지나 30대에 접어든 그는 한국불교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발원을 세웠다. 조계사청년회 활동을 시작으로 청년불자들과 호흡했다. 대한불교청년회 활동으로 전국을 오가며 청년불자 조직 재건에 힘을 쏟았다. 훼불과 종교편향 논란이 거셌던 시기에는 거리로 나서 불교계를 외호했다. 그에게 불교는 늘 ‘현장’이었다.

2018년, 그는 나누며하나되기와 인연을 맺었다. 남북 교류, 국제 지원, 취약계층 나눔까지 활동 영역이 넓어졌다. 그의 중심은 분명했다. 불교의 자비를 구호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 진 처장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부터, 당장 필요한 곳부터 하자는 원칙을 세웠다. 불교의 자비를 가장 구체적은 방식으로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원칙은 꾸준한 신뢰로 이어졌고 기업과 시민들의 참여가 점차 늘어났다. 그리고 100억원 물품 후원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진 처장은 100억이라는 숫자에 대해 “목표라기보다 자연스럽게 도달한 지점”이라며 “나누며하나되기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불교 NGO로 자리 잡는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쌓이면 길은 저절로 열린다고 말한 그는 “기업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히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돌리자 기부가 이어졌다”며 “숫자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고, 사람과의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진 처장은 “숫자에 매달리기보다 나눔의 질을 높이고 싶다”고 했다. 환경 문제, 기후 위기 역시 자비 실천의 중요한 영역으로 보고 있다. “자비는 사람을 넘어 생명 전체로 확장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진 처장은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을 가슴에 늘 품고 있다고 했다.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에 휩쓸리지 않고 주체적인 삶의 태도 속에서 매 순간 스스로를 일깨우기 위해서다.

“하루하루는 작아 보이지만, 그 하루가 모여 100억원이 됐죠. 나와 이웃이라는 각각의 물줄기가 결국 행복이라는 하나의 강으로 흐를 수 있도록 불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그 흐름을 잇는 역할을 묵묵히 해 나가겠습니다.”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백문이 불여일견 !
스님 자신이 기존 법당의 시설 마이크와 본사의 초간단 (디지털) 견본의 마이크를 양손에 잡고 번갈아가며 염불소리 테스트를 해 볼시 세상에 이렇게 차이가?!!! 의 놀라운 소리 격차를 체험 후 귀 법당 기존시설의 1/2가격으로 시설상담
(마이크소리 테스트비용 한잔!)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본사는 설악 신흥사와 남해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로 단 한 곳도 고장 전화가 없음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190~390만원 이동식 방생용도 전문판매



현 판매 시설자 박 공 희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방송시설 전문
Projector EPSON
MASS Concert MICROPHONES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 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2026년 2월 4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65호 | 14 | 전면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지혜가 생길 것이요,
마음에 지혜가 생기면 곧 깨달음이
생길 것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반니원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산사
- 대지 : 200평
- 법당 : 70평 외 전각 2
- 시내 산 밑, 주차 10대
- 매가 : 35억

- 위치 : 경북 대구시 사찰
- 대지 : 240평
- 법당 : 70평, 요사 : 70평
- 시내, 주차 10대 가능
- 매가 : 9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시흥시 정왕동(정왕역 차로5분)
- 주변 : 정왕동아파트 대단지, 대형마트, 대형병원 월곳, 배곧, 아파트 신도시
- 규모 : 4층 전체, 옥상 사용 엘리베이터. (총: 110평) 사용.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산신단, 약사여래불, 영단 큰방 3개, 사무실, 창고방, 에어컨법당 2개, 각방마다
- 보증금 : 1000, 월세 110(보증금, 월세조정)
- 권리금 일체시설. (법당, 각방, 일체 집기시설) 4500만원 (바로 법회 가능)

※통화 안될때 문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10-8599-946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승학산 등산로 입구
- 1층 공양 생활관, 2층 법당과 연결된 스님방과 화장실 부엌이 있음
- 5불 · 천불불사 · 후불금탱화 · 지장신장탱화 · 십장생조각상단 · 큰법당 종
- 골목 안에 주차장 가까운 관음사 환희요양원과 연결된 융통성있는 주차공간있음
- 토지 140㎡, 건물 146.62㎡ 1층 73.31㎡, 2층 73.31㎡
- 매매 : 2억5천만원

010-9811-4877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 82번지
- 대지 : 230평
- 법당. 산신각
- 주차 5대 가능
- 공양간 약 20평
- 금액 : 2억3천답사후절충가능

010-9389-7457

사 찰 안 내

- 위 치 : 충북단양군 매포읍 평동10나길9-6
- 단독주택 / 약30평
- 방3, 주방, 거실, 욕실, 다용도실
- 임대(매매전까지 평생거주)
- 보증금 : 3,000,000원
- 월 세 : 300,000원
- 가 액 : 75,000,000원

010-8567-3667

사 찰 안 내

"소중한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 면적 : 3600평(건축물 : 전통양식)
- 극락전/산신각/종각/미륵불
- 용왕당(연못) 요사채 2층 80평(외) 등
-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막골길267-28

010-8961-5489

사 찰 안 내

- 장소 : 여주시 점동면 산사
- 대지 : 703평
- 대웅전, 진신사리 3층석탑,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종무소
- 상수도, 지하수, 전기 (태양광 포함 13K)
- 양도가액 : 6억원

010-5481-2560

토굴(급)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지하철 3분(평지)
- 법당, 요사, 주방, 산신각 등 건물 50평
- 이마트, 은행, 병원, 시장 전부 다 있음
- 스님, 법사님, 보살님, 무속인 모두 환영
- 보증금 2천/월 40만(시설비 없음)
- 몸만 오시면 법회 및 주차 가능함

010-3574-3303
010-7121-3030

사 찰 안 내

- 명당절터 150평
- 뒷산 앞 청정 바다가 보임
- 전기, 물 완비
- 가액 : 대출 1천5백안고 1억 3천 5백만원
- 통영시 광도면 용호리 528번지

010-8643-52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세권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1동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1동 / 종무소 · 객방 13평-1동
- 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 다원 최상입지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토 지 안 내

- 위치 :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산5-1
- 매매금 : 3억원
- 2000평 규모, 대지 600평 건축허가 취득
- 수목장 및 납골당, 반려동물 화장장 등 최적지

010-4727-6065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아주 아주 특별한 사찰부지 안내

천하명당입니다. 500억원 불사 중 중단상태

- 금목서, 동백, 반송, 매실, 연상홍 등 다량식재
- 계곡에는 천년수림, 편백과 소나무 치유의 숲
- 요사채(주거동), 사무동 여러 채 수석 등 있음
- 거제시 둔덕면 시목리377번지 외 23필지 8천명
- 급매 : 대출12억, 개인10억 책임지고해결 몽땅27억

토요일 외 현장상주 안내

010-6574-5044 김실장

토 굴 안 내

- 위치 : 강원도 평창 토굴
- 읍에서 4km 떨어진 곳
- 총 726평 중에서 대지 170평
- 건물 3동 본체, 작은 황토방, 농막
- 가액 : 3억 5천

마음에 드시면 충분히 절충가능

010-3671-3776

찻집 운영하실 비구니스님을 모십니다

- 종목 : 쌍화차 전문, 그외 수제차
- 가옥구조 : 총 300여 평 건물 1F 찻집, 2F 주택
- 월세보증금 : 2000/160만(부가세별도)

※ 스님이 5년째 운영 중

010-9072-5155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저는 전국 대덕 여덕 현인 기사 이인 여러분의 기대를 먼저 고민하였습니다

이번 지난 25여 년에 걸친 11회차 최종업데이트 종결로 완성한 육임USB '효사비결'과 육임 앱 '육임AI' 출시를 알려드립니다.

저, 효사는 이번 오랫동안 일관되게 쓰고 강의하고 만들고 해온 육임을 기기(機器)의 수용조건에 맞춰 큰 부끄러움 없이 완성 시켰습니다.

제가 이미 밝혀 호응받은 것들-초사(初辭) 귀신 부정 산소탈에 관련된 그 구체성 그 효과성 그 해결력에 대하여는 널리 알려져 있기에 삼가고, 금번 완성시킨 보충 부분 중 일부를 지면의 한계에 맞춰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아래에 적시된 말씀 내용은 방문자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듣지 않고 먼저-미리 알고 툭, 던지게 되실 말씀입니다.
기존의'초사'에 보태진 이 내용의 말씀의 효과는, 상대방의 절대적 신뢰를 장담하는'정면 승부가 담보된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읽어 주십시오.

"자손 경사 건이네?" / "임신 해산 건이네?" / "근친 상간사가 벌어졌네?"
"윗분 추천으로 발탁돼서 크게 활약하겠네?" / "음풍(색정)사네?"
"절제 없는 간음 주색을 벌이고 있겠네?" / "집에 사망사가 생겼네?"
"재난이 오히려 복이 됐네?" / "부부가 갈라지네?"
"직위가 흔들리네?" / "남편과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네?"
"머리가 잘린 격이라- 애초에 계획이 잘못돼서 안 되는 거네?"
"허리가 잘린 격이라- 일이 중간에 두 개로 갈라지겠어"
"다리가 잘린 격이라- 일이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겠어"
"생업이 망해 가네? 울타리가 뚫려버린 격이야. 의지할 데도 없겠고"
"가정이 가을어 가네? 이사를 빨리해야 살길이 열리지"
"관재 송사가 벌어졌네? 본인이 원고(또는 피고) 구만?"
"아니, 일은 본인이 저질러놓고 발등을 찍고 싶어 하면 어쩌나?"
"급한 일이 벌어졌는데 왜 여기로 왔나?"
"바깥일을 갖고 왔네?" / "집안 일을 물으려 왔네?"

이렇게, 60갑자 매일 12국수, 전체 60일 720국수 마다 위의 내용처럼 문 열고 들어설 때, 눈이 마주쳤을 때, 슬쩍 지나칠 때, 전화가 걸려 왔을 때, 어느 장소에 같이 앉게 되었을 때- 툭 툭 툭(기존 내용-초사도 있음) 던지시면 맞는 말씀이 되고 방문자 또는 상대는 단박에 진지해지며 십중팔구, 말씀을 신뢰하여 따르게 됩니다.

기존 수록되어 있는 항목
가. 미리 알고 말씀하실 것
*초사, 방문자의 신뢰, 고집, 설득, 불성, 기도 수법효과 여부, 진실 거짓 위선 여부 일자 변경 달력보기 등등
*형이상 관련 - 귀침(작사귀 병귀), 부정침, 산소탈, 숙주 장소 및 해소 방법, 효과 일월, 침해가족장애 병 명시, 묘지앞 전경, 묘지 해당 육친, 묘지속 상태 등등
*방문자 사정 - 전체성, 구체성, 적확성 적시, 이득인, 피해인, 손해인, 무력인 표시 등등
*방문자 신분 - 대통령, 장관, 차관급, 사계 실력자, 우고자, 우고,해소될 자, 종교 진출 출세자, 유여한 자, 곤궁한 자 표시 등등.
*방문자 운세 - 운세 지점, 운세 정도, 안분 지침 명시 등등.
*당면사 종합 - 사과삼전, 천지반, 당면사 국수해설
나. 방문자가 묻는 것에 대한 판단
매매사 주식사 구재사 시험사 취직사 선거사 공명사 가정사 소송사 승부사 등등 24항목 그 성부 여부 답을 명기함.

기존 수록 구분
*개인의 소망사 성취 방법 제시 함- 매우 긴요 사항임.
(자손 희구 자, 재물 희구 자, 고관 대작 희구 자, 현재 상태 지적 등).

*당면사 - 전화상담 용, 간이법, 24항목 판단, 1년 신수 등 15개 항목.
*일생사 - 일생대계, 성품, 일생적 현재 운세, 부부궁합, 병(지나갈 병 고질병) 여부.
*일생사 색인(연월일시) 기능
*일생사 종합 - 사과삼전, 천지반 띠(命), 해당 나이별 행년 판단, 일생사 국수 해설.
*저장 기능 부여됨.
*동일시간 다음 사람 기능 버튼
*육임 초보자용으로 'B버전' 별도 장착되어 곧바로 활용하게 됨
*기타 사주 월영도 주역 육효 성명(작면감정) 부적보감 축귀신침혈 신명수법 등 다수 종목 수록됨.

*USB 프로그램 '효사비결' 200만 원(카드3개월-노트북+PC 병용) *앱 '육임AI' 90만 원(카드 3개월-휴대폰+노트북+태블릿+PC 병용)

사업자등록 : 강서 112.82-62377 출판사신고 : 강서 000055 통신판매업신고 : 강서 1885 구매안전서비스: 농협 서울역지점(2018.09.19.)

도서출판 보화천교 주문전화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24길 4. 세림펠리체 1301호

2026년 2월 4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65호 | 15 | 전면광고

욕심과 번뇌를 여읜 이는
부처님과 다를 바가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제법집요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바라·작법 전승학인 모집

1. 의식 염불, 사물
(49재·천도재·점안 각행사)
2. 천수바라·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만득동 447-4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99% 완치, 말기암 환자 1개월 내 치유

320년간 수기받음 /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즉시 영가 천도 /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집이나 땅 매매 안되는 분 성불 시켜드립니다
공항장애, 간질 등 몸이 안좋으신분 치유해드립니다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3000만원부터 시작
010-4804-2309

지리산 암힐링센터
동업 하실 분

관심있으신 분 연락주세요
자연치유대체요법
위빠사나 법사 구합니다
010-4474-8418

꼭 읽어봐주세요 책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부전 스님 구합니다
010-2078-9595

민불종 종립大 무료장학 모바일 대학원 신입생 모집

▮모 집 기 간 : 26년 3월 접수 교무처 944-3375 홈피14중1 대학원침
▮자격과 장소 : 남녀노소 누구나 집, 직장, 사암 등 어디서나 가능
지도교수와 지역 등은 사정에 따라 지정 가능
▮학 과 : 25 여 과목 불교학, 천문지리, 역학 명리의학
한학, 서예, 문학, 한글 영문 작명학, 비법 신통학
후원인과 사무장초빙 사회복지사 요양사 자격증 소지 환영
Daum NAVER 역학대통령 ▶ 14홈피중 1검색 대학원뜸
문의:민불종 무료장학 모바일 대학원 907-5858

해썹(HACCP) 인증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광고 접수 번호 안내

국내 최대 사찰 생활 정보 안내지로 2000만 불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4
010-4648-820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1kg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1kg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전화 02-732-1520 , 팩스 02-737-0696
▣ 계 좌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바이넥스 / 원산지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해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편리함 이면의 지구 고통 살펴야

붓다, AI 윤리에 답하다

③ AI 데이터 센터 건설의 그림자

21세기 골드러시?

우리는 디지털 세상을 '가상(Virtual)'이라 부르지만, 그 이면에서는 이를 지탱하기 위해 지구의 물리적 영토를 잠식하는 거대한 인프라 전쟁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19세기 서부 개척 시대의 카우보이들이 곡괭이를 들고 금맥을 찾아 헤맸다면, 21세기의 빅테크 기업들은 불도저를 앞세워 전력망을 찾아 헤맨다. 바야흐로 '데이터 센터'의 시대, 아니 '데이터 제국'의 건설기다.

미국 버지니아주 북부, 라우든 카운티에 들어서면 기이한 풍경이 펼쳐진다. 젖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던 목초지는 온데간데없고, 창문 하나 없는 거대한 회색 콘크리트 건물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다. 이곳은 전 세계 인터넷 통신량의 70%가 흘러가는 소위 '데이터 센터 앨리(Data Center Alley)'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세운 이 육중한 요새들은 24시간 윙윙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엄청난 열기를 뿜어낸다.

이 건설 붐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무서운 기세로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서늘한 기후 덕분에 천연 냉각이 가능한 북유럽의 스웨덴과 핀란드, 저렴한 전기료를 찾아 몰려든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까지, 지구촌 곳곳이 거대한 서버 호텔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최근 주목받는 것은 '초거대(Hyper scale)' 데이터 센터다. 최소 10만 대 이상의 서버를 갖춘, 축구장 몇 개를 합친 크기의 이 거대한 시설들은 지난 5년 사이 두 배 이상 폭증해 전 세계적으로 1000개를 돌파했다.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단순히 땅을 사는 것을 넘어 발전소를 통째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45년 전 문을 닫았던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해 독점 계약을 맺겠다고 선언했다. 구글과 아마존 역시 차세대 소형 원전(SMR)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다. AI라는 '전기 먹는 하마'를 키우기 위해, 위험천만한 원자력의 불꽃까지 재점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인프라 확장이 아니다. 이것은 인류가 만든 디지털 지능을 수용하기 위해 지구의 물리적 표면을 콘크리트와 케이블로 덮어 버리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다. 우리의 상상과는 달리, 데이터 '클라우드(Cloud)'는 하늘에 있지 않다. 그것은 숲을 밀어낸 자리에, 강물을 끌어다 쓰는 펌프 옆에, 무겁고 뜨겁게 돌아가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구름 속의 용광로

그렇다면 저 거대한 회색 요새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밖에서 보기엔 창문 하나 없이 고요해 보이지만, 그 내부는 24시간 멈추지 않는 거대한 용광로와 다름없다. 우리가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며 클라우드에 접속할 때, 하늘에 떠 있는 하얀 구름처럼 가볍고 깨끗하며 비물질적인 무언가를 상상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디지털 세상은 철저히 물질적이며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열기를 수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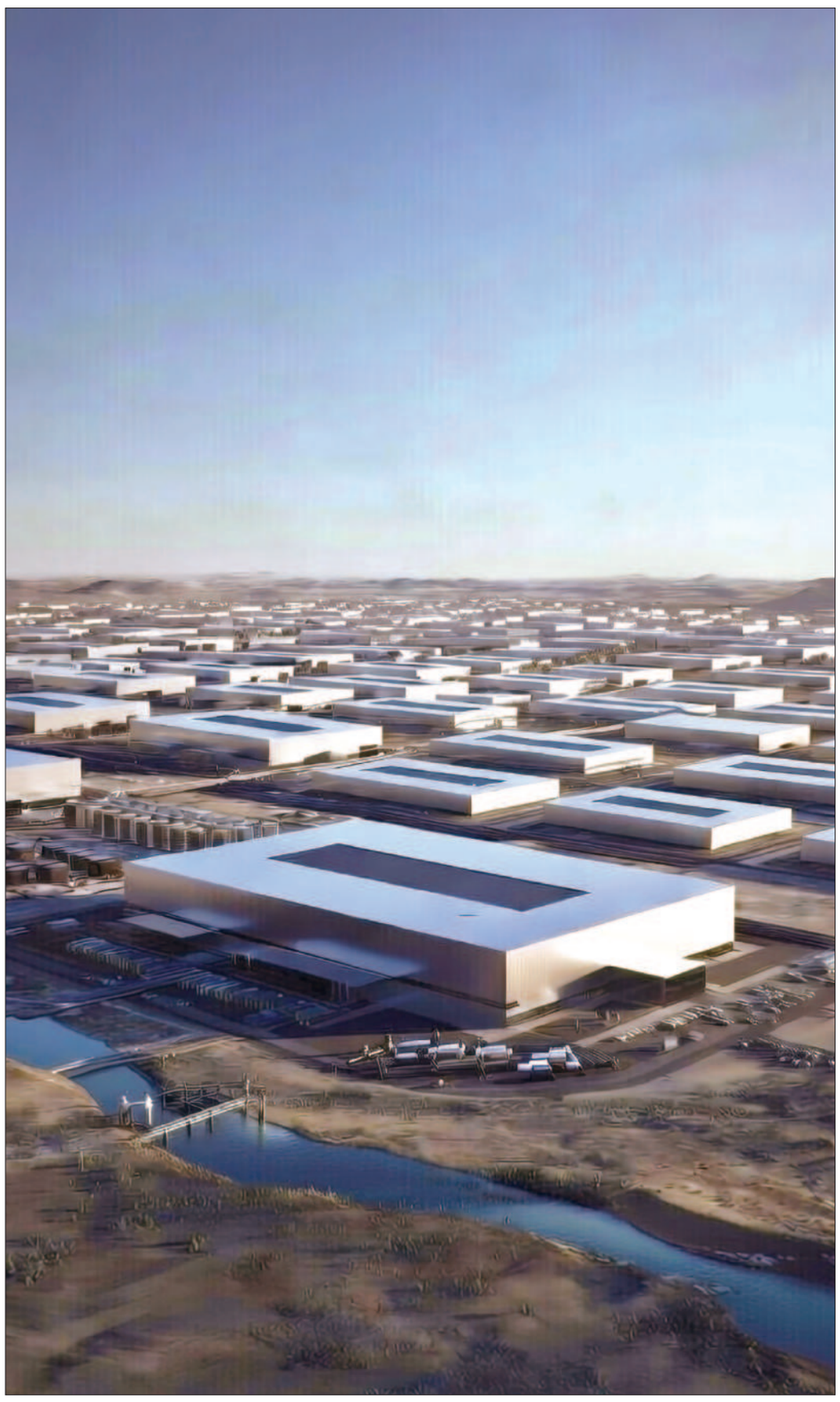
생성형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래픽 처리 장치(GPU)는 마치 전기를 먹고 사는 괴물과도 같다.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LLM)

세계로 번지는 데이터 센터 건설 붐
서버 10만 대 이상 시설 천 개 돌파
AI 가동 위한 전력 소모, 기후 위기로
기술 남용 · 배척 떠난 중도 지혜 필요
자연과 공존 위해 '디지털 절제' 해야

이 문장 하나를 생성할 때, 그 뒤 단에 있는 수만 개의 반도체 칩은 미친 듯이 연산을 수행하며 붉은 열기를 토해 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챗GPT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일반적인 구글 검색보다 약 10배에서 많게는 30배 이상의 전력을 소모한다고 한다(New Street Research & SemiAnalysis 2023).

AI가 그림 한 장을 그려 낼 때 소모되는 전력은 스마트폰을 100% 충전하는 것과 맞먹는다(MIT Technology Review 2023.12). 전 세계 수억 명의 사용자가 밤낮없이 AI에게 말을 걸고 그림을 부탁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데이터 센터는 도시 하나가 쓸 법한 전력을 집어삼키며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처리가 아니다. 화석 연료를 태워 만든 전기를, 다시 금 디지털 열기로 바꾸는 에너지 소각의 과정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뜨겁게 달궈진 서버를 식히지 않으면 시스템은 순식간에 멈춰 버린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끊임없이 물을 마셔야 한다. 에어컨 바람만으로는 부족해 차가운 물을 순환시켜 열을 내리는 수랭식 냉각 시스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불을 다스리기 위해 물을 쏟아붓는 형국이다. AI가 유려한 시를 짓고 복잡한 코드를 짜는 동안, 데이터 센터 인근의 개울은 말라가고 농부들은 타들어 가는 밭을 보며 한숨을 쉰다.



19세기 서부 개척 시대의 카우보이들이 곡괭이를 들고 금맥을 찾아 헤맸다면, 21세기의 빅테크 기업들은 불도저를 앞세워 전력망을 찾아 헤맨다. 바야흐로 '데이터 센터'의 시대, 아니 '데이터 제국'의 건설기다.
사진 출처=AI '그록(Grok)' 생성 이미지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파괴적인 건설을 멈추지 못하는가? AI 기업들은 기술이 발전하면 에너지 효율이 좋아져서 결국 탄소 배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지나치게 낙관적 가정이거나, 인간의 욕망을 간과한 순진한 착각이다. 경제학에는 '제본스의 역설(Jevons Paradox)'이라는 개념이 있다. 19세기, 증기기관의 효율이 좋아져 석탄을 적게 쓰게 되자 석탄 소비량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비용이 싸진 덕분에 사용처가 늘어나 총소비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상을 일컫는다.

지금 AI 산업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와 다르지 않다. AI 모델이 경량화되고 연산 효율이 좋아질수록, 우리는 전기를 아끼는 대신 더 많은 곳에 AI를 투입한다. 예전 같으면 굳이 쓰지 않았을 사소한 이메일 작성, 세 줄짜리 짧은 글 요약, 심지어 심심풀이용 이미지 생성에까지 AI를 남용한다. 지능의 비용이 적어지자, 역설적으로 이 혁신적인 기술이 무분별한 '디지털 잉여물'을 쏟아내는 데 소모되고 있다.

디지털 절제와 중도(中道)의 지혜

이 문제는 먼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다. 당장 우리나라 전라남도에는 원전 몇 기의 발전량에 맞먹는 3GW급 AI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가 계획되고 있으며, UAE 아부다비는 무려 5GW급 캠퍼스를 추진 중이다. 이는 일론 머스크가 자랑하던 슈퍼컴퓨터 '콜로서스'의 규모를 압도하는 수준이다. 바야흐로 수백만 개의 GPU가 24시간 돌아가는 AI 공장이 2020년대 후반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붓다가 깨달은 연기(緣起)의 진실, 즉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는 상호 의존성의 자각에 있다. 우리는 흔히 스마트폰 속의 디지털 세상과 창밖의 자연 세계가 분리돼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나의 사소한 검색 하나가 데이터 센터의 터빈을 돌리고 그 열기가 북극의 빙하를 녹여 다시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재난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은, 이 세상 그 무엇도 홀로 존재할 수 없음을 증명한다. 데이터 센터의 전원이 영원히 켜져 있기를 바란다면 그 기반이 되는 지구가 먼저 숨 쉴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숲으로 돌아가 원시인처럼 살아야 하는가? 아니다. 불교가 말하는 지혜는 극단적인 기술 거부가 아니다. 욕망에 휘둘려 기술을 남용하는 것과 기술을 맹목적으로 배척하는 양극단을 떠난 '중도(中道)'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은 곧 '디지털 절제'의 실천이다. 습관적으로 고화질 영상을 스트리밍하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쌓아 두는 행위가 사실은 거대한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과 같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 질문이 정말 도시의 전력을 태울 만큼 가치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멈추는 힘, 그것이 바로 지구를 식히는 수행이다. 편리함의 청구서가 날아오기 전에 우리는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AI 기술의 주인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욕망의 연료로 타 버릴 것인가. AI와 인간, 그리고 자연은 하나의 연기적 공동체다. 나의 편리함이 지구의 고통이 되지 않도록 살피는 마음, 그 자비로운 시선 속에 인류와 AI가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려 있다.



보일 스님
AI부디즘연구소장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 계좌 053-01-269075 (농협,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제가 편지를 쓰게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 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 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 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 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저는 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

동아시아 불교 속 친근한 미륵의 화신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③ 온자한 미륵의 미소, 포대화상(布袋和尙)



아이들과 포대화상의 이야기는 민간으로 스며들어 다산과 아이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오자유희미륵, 백자미륵으로 발전한다. 말 그대로 아이들과 장난을 치는 포대화상을 표현한 것이다. 현재 관련 기록을 찾기는 어렵지만 중국 명나라 때 활동한 이린의 작품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이린필 포대자존십팔자도권(중국 명대 1636년, 상해박물관).

세상이 늘 평화롭지는 않다. 어지러운 혼란기는 늘 존재했다. 그것이 전쟁과 권력 다툼이건, 경제적 침체기이건 간에 말이다. 사회적 혼란기 속 가장 고통받는 존재는 항상 백성이었다. 이에 백성들은 혼란을 잠재우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Messiah), 즉 구세주(救世主)를 간절히 기다렸다. 이와 같은 사상은 종교에도 영향을 준다. 예컨대 기독교 문화 속 예수그리스도는 창조주의 아들이자 종교적 지도자로 현재까지 가장 많은 칭송을 받는 구세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불교문화 속 구세주는 누구일까? 모두 알다시피 미륵불(彌勒佛, Maitreya)이다.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열반 이후 약 56억 7000만 년 뒤 세상에 강림해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륵불은 현재 보살의 모습으로 도솔천(兜率天)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생사를 떠나 세상 모든 고통과 근심을 잊는 이상 세계를 건설한다는 미륵사상은 사람들에게 기대와 안정감을 주었고, 동아시아 역사 속 혼란기 때마다 빠짐없이 유행해 민간신앙으로도 확장됐다.

중국 역사 속 최대 혼란기 중 하나였던 오대십국시대에 '미륵의 화신'으로 불린 이가 있다. 바로 포대화상(布袋和尙)이다. 이름은 생소하지만 사찰 곳곳에서 볼록한 배를 드러낸 채 포대 자루를 쥔 조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상이 바로 포대화상이다. 그런데 모름지기 미륵이라 한다면 중생을 구제하는 영험하고 권위 있는 모습일 것인데, 그 화신이라는 포대화상은 보편적인 미륵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포대화상은 과연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삶을 살았길래 미륵의 화신으로 불리는 것일까?

포대를 짊어진 미륵의 화신

포대화상의 본래 법명은 '계차(契此)'로, '장정자(長汀子)' 혹은 '정응 대사(定應大師)'로 불리기도 한다. 중국 당(唐)나라 말기 절강성(浙江省)에서 태어났다고는 하나, 정확한 출생과 성장 과정은 기록마다 다르다. 하지만 공통된 부분은 포대화상의 행적이다. 이 가운데 가장 이른 사례로 알려진 〈송고승전(宋高僧傳)〉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모습이 비대하고 눈살을 찌푸리며 배가 불룩하였는데, 말에 상함이 없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리 잡고 누워 잤다. 항상 지팡이에 베로 만든 망을 걸고 저잣거리에 들어가 물품을 보면 구걸하였는데, 장과 생선 절임에 이르기까지 겨우 입에 넣고 조금 나누어 주머니에 다시 넣으니, '장정자 포대사(長汀子 布袋師)'라 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불조통기(佛祖統紀)〉에서도 "항상 지팡이를 짚고 포대를 들고 저잣거리를 돌아다니며 물품을 보면 구걸했고, 얻은 물품을 모두 포대에 넣었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바로 이 부분이 계차라는 본래 법명이 있는데도 포대화상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유명해진 이유다. 포대화상은 항상 누더기 차림에 포대 자루를 짊어진 채 구걸을 했다고 전하며 그것이 먹을 것이든, 입을 것이든 가리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살펴봤을 때 포대화상을 미륵과 관련짓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포대화상이 미륵으로 불리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바로 포대화상의 신이한 행적이다. 여러 기록에 의하면 포대화상은 사람의 길흉부터 날씨까지 예측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말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고 한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내용 가운데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리 잡고 누워 잤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 포대화상은 눈이 오는 추운 겨울날에도 길거리에서 잠을 청했는데 눈밭에 누워 있어도 그의 몸에는 단 하나의 눈가루조차 묻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확인된다.

포대화상이 미륵으로 불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의 게송과 관련 있다. 기록에 의하면 포대화상은 916년 혹은 917년 무렵 악림사(嶽林寺)라는 사찰에서 입적했는데 마지막 순간 이와 같은 게송을 남겼다고 한다.

"미륵 참 미륵이여, 천백억의 몸을 나투어 올 때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만 사람들은 모두 알지 못하네."

게송을 남긴 포대화상의 마지막 순간을 보게 된 사람들은 "이는 자씨(慈氏)가 행적을 남긴 것이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게송에 언급됐듯, 미륵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정작 중생들은 이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이후, 사람들은 포대화상을 미륵의 화신으로 칭송하게 됐으며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 베트남에 이르기까지 불교가 전파된 거의 모든 국가에도 이 이야기가 전해지게 됐다고 한다.



일본의 포대화상 호테이 등 칠복신을 표현한 우타가와히로시게필 칠복신도(일본 에도시대 1840년, 영국 V&A뮤지엄).



포대화상의 모습을 표현한 포대화상상(중국 청대 17세기,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길흉 · 날씨 예측 능력 등 신이한 행적
입적 시 게송으로 훗날 '미륵 화신' 칭송
일본 칠복신 중 '행운 신' 호테이로 불려
포대 속 온갖 것 가난한 이들에 나눠

행운의 신이 된 일본문화의 포대화상

일본에는 칠복신(七福神)이 있다. 말 그대로 '행운을 상징하는 일곱 신'이라는 뜻이다. 칠복은 불교 경전인 〈인왕호국반야바라밀다경(仁王護國般若波羅密多經)〉 내용 중 '칠난즉멸칠복즉생(七難即滅七福即生)'에서 유래됐다. "일곱 가지 재난이 금세 소멸하고 일곱 가지 복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이 문장은 불교에서 말하는 일곱 재난 구제를 의미하지만, 일본 특유의 기복사상과 만나 무로마치시대 무렵부터 대중화됐다.

칠복신의 구성원은 토속신 에비스(惠比寿)를 제외하면 대부분 불교와 도교에서 건너온 신이다. 대표적으로 불교 사천왕(四天王)에서 유래한 비샤몬텐(毘沙門天)과 도교의 수성노인(壽星老人)에서 유래한 주로진(壽老人)이 있다. 여기서 포대화상은 불교의 신이자 유일한 실존 인물 출신으로 '호테이(布袋)'라고 불리고 있다. 칠복신으로서의 포대화상은 행운의 신이자 점술가, 술집 주인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길흉을 점치고 날씨를 예측한 행적을 살펴본다면 가늠할 수 있는 사례다.

칠복신은 현재의 아이돌만큼이나 그 인기가 현지에서 상당하다. 일본에는 매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칠복신을 순례하는 문화가 있다. 또한 칠복신은 새해를 맞이해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 주기 위해 반야용선(般若龍船) 형태의 배를 타고 찾아온다는데, 이런 관념 때문인지 정월 초하루에 배를 탄 칠복신을 그린 세화(歲畫)를 머리맡이나 대문 앞에 붙여 둔다고 한다. 칠복신을 표현한 여러 미술 주제에서 포대화상은 볼록한 배와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포대 자루를 짊어진 모습이다. 이 포대 자루에는 분명 사람들에게 나눠 줄 복이 한가득 들어 있을 것이다.

천진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미륵

기적 같은 삶을 살았던 포대화상은 친숙하고 인자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비록 저잣거리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지만, 포대화상은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이나 아이들에게 나눠 줬다고 한다. 〈불조통기〉에는 "16명의 아이들이 떼를 지어 시끄럽게 쫓아다니며 다투어 포대를 끌어당겼다"라는 내용이, 〈정응대사포대화상전(定應大師布袋和尙傳)〉에는 "늘 석장(錫杖)과 포대를 가지고 스스로 다니며 아이 18명이 따라다녔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포대화상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아이들에게 화를 냈을까? 당연히 아닐 것이다. 누구보다 인자한 미소와 함께 보듬어 주며 먹을거리를 나눠 줬을 것이다. 이는 포대화상이 지닌 포대 자루가 개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용도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커다란 주머니 속에 있는 온갖 것을 아이들에게 나눠 주는 포대화상, 마치 우리에게 친숙한 산타 할아버지가 생각나는 모습이다.

아이들과 포대화상의 이야기는 민간으로 스며들어 다산(多産)과 아이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오자유희미륵(五子遊戲彌勒), 백자미륵(百子彌勒)으로 발전한다. 말 그대로 아이들과 장난을 치는 포대화상을 표현한 것이다. 현재 관련 기록을 찾기는 어렵지만 중국 명나라 때 활동한 이린의 작품을 비롯해 우리나라 사찰 벽화에도 확인되는 것을 보아 꽤 이른 시기부터 정착된 관념임을 알 수 있다.

마치며

불교가 전래된 우리나라에도 미륵사상이 유행했으며 자신을 '미륵의 화신'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자주 등장하곤 했다. 대표적으로 후고구려를 건국한 궁예(弓裔)는 자신을 미륵이라 칭하면서 주변 세력을 결집했고, 근대기에 발생한 국내 신흥종교에도 구원의 성격을 지닌 미륵사상의 요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미륵신앙은 불교의 범주를 넘어 동아시아 각지에 퍼져 있는 하나의 독립신앙으로 발전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았을 때 포대화상은 동아시아 불교 역사에서 가장 친근하고 가까운 미륵의 화신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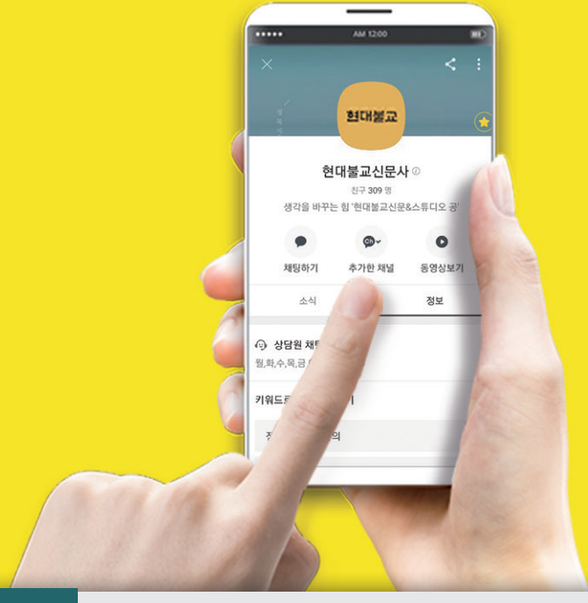


김용덕 작가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자비심, 마음 잇고 소통을 열다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㉖ '이 사랑 통역 되나요?'(2026)



'이 사랑 통역 되나요' 는 자신의 마음에 진솔한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한 소통과 화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는 드라마다.
사진 출처=넷플릭스 예고편 동영상 캡처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2004)라는 영화가 있다. 결혼 25년 된 중년의 미국 영화배우가 광고 촬영을 위해 일본에 머무는데, 마침 사진작가인 남편을 따라 일본에 온 젊은 미국인 여성과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일본을 배경으로 미국인이 등장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라는 제목을 들으면 일본인과 미국인 사이의 사랑을 다룬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주인공이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공감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라는 제목은 소통하지 못하는 남녀의 사랑을 의미한다.

처음 '이 사랑 통역 되나요?'라는 드라마 제목을 들었을 때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의 리메이크 드라마인 줄 알았다. 외국을 배경으로 영화배우가 등장한다는 소개가 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했다. 제목만으로도 착각을 했으니, 이미 이 드라마는 필자에게 통역이 제대로 되지 못한 셈이다.

겨우겨우 배우라는 이름을 걸고 사는 무명배우 차무희(배우 고윤정)는 우연한 기회에 '조용한 여인'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인 좀비 역할을 맡았는데 마지막 촬영을 하다가 와이어가 끊어지는 사고를 겪는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벌써 6개월이 지난 상황, 그야말로 자고 일어나니 일약 스타덤에 올라 있었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있는 동안 영화 '조용한 여인'이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며 톱스타가 된 차무희. 세계 각국의 뉴스에서 '차무희, 의식 회복'을 속보로 내보내고 무희의 병실에는 회복을 바라는 전 세계 팬들의 수많은 선물들이 쌓여 있을 정도다.

얼떨떨해하면서도 연예계에 복귀해 톱스타로서의 인기를 누리던 무희에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영화 '조용한 여인'에서 무희가 맡았던 캐릭터인 도라미가 불쑥불쑥 나타나 무희에게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는 것이다.

한편 영어, 일본어, 이탈리어 등 여러 가지 언어를 통역하는 다중언어 통역사 주호진(배우 김선호)은 혼자 가마쿠라에 갔다가 우연히 무희와 만난다. 잠수 이별을 한 무희의 전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라멘 집에서 일본어를 모르는 무희에게 도움을 주게 된 것.

스쳐 지나갈 사이였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은 톱스타가 된 무희가 데이트 연애 프로그램 '로맨틱 트립'에 캐스팅되면서부터다. 무희가 일본 배우 쿠로사와 히로(배우 후쿠시 소타)와 같이 캐나다, 이탈리아 등지를 돌며 촬영해야 하는 프로그램이어서 한국어, 일본어, 영어, 이탈리아어를 모두 통역할 수 있는 호진이 적임자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드라마 '이 사랑 통역 되나요?'는 통역사 주호진이 세계적인 톱스타 차무희의 통역을 맡으며 시작되는 로맨스를 다룬다. 여러 나라의 말을 자유자재로 하는 주호진은 업무에는 빈틈이 없지만 차무희와의 사랑의 언어에는 서툴고, 차무희는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화려한 톱스타지만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간직한 채,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

자신들의 감정을 제대로 마주하지도 표현하지도 못하는 두 사람. 여기에 차무희를 짝사랑하게 되는 일본 배우 히로까지, 세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일본과 캐나다와 이탈리아 등의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면서, 설렘 가득한 로맨틱 코미디의 정수를 보여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역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일이다. 말 그대로 사람 사이의 장벽을 없애 주는 소통 작업이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는 소통이 직업인 통역사와 배우와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남녀의 사랑에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준다.

호진과 무희는 드라마 내내 헤어졌다 만나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서로의 본심을 숨기고 엉뚱한 말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이 이렇다고 말하면 될 것을, 내 마음을 들키기 싫어서 혹은 배려라는 이름으로 마음과 다른 말들을 하면서 '소통의 아이러니'가 벌어진다.

'이 사랑 통역 되나요?'의 주제 의식은 김영

통역사-배우 사랑서 소통 중요함 보여
진솔한 마음이 진실한 소통과 화해로
자기 마음에 솔직해야 타인과도 소통
마음 전달의 핵심은 언어 아닌 자비심
부처님 설법도 대중 구제 위한 자비심서



'이 사랑 통역 되나요' 공식 포스터.
사진 출처=넷플릭스 홈페이지

환(배우 김원해)의 대사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영환이 호진에게 "세상에 다른 언어가 몇 개인 줄 아나?"하고 묻자 호진은 사실 그대로 "7100개가 넘는 걸로 아는데요"라고 답한다. 이에 대해 영환이 알려 주는 정답은 "세상 모든 사람의 수만큼 있지. 사람들은 각자 다 자기 말을 해. 그러니까 서로 못 알아먹고 거꾸로 듣고 막말을 하지"였다. 그러고는 호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사랑의 조언을 한다. "내가 듣기에 주호진 언어는 단단하고 반듯하지만 뾰족해."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고유한 세계를 살고 있다.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우주를 이룬다. 그러니 사람 수만큼 언어가 다르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 실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니 마음을 전하는 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언어가 아니라, 상대에게 공감할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이 아닐지.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고 나서, 나이와 지위와 계급과 빈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진리를 전하는 일로 평생을 보냈다. 이처럼 상대를 가리지 않고 설법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했다. 이것만 봐도 부처님의 설법이 대중을 구제하고자 하는 자비심에서 나온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처님의 이런 뜻을 받들어 각 지역으로 흩어져 교화를 펼친 제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인 경전을 각 지역의 언어로 옮겼다.

각 지역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겠다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불교 전래의 역사를 번역의 역사가 되도록 했다.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전해졌을 때 중국인들은 몇백 년 동안 한문으로 경전을 번역하는 데 애를 썼고, 조선도 훈민정음을 창제하고는 대중들이 쉽게 경전을 볼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하는 데 국가적인 노력을 했다.

번역을 이야기할 때 영원히 논쟁이 될 만한 것이 아마 직역과 의역의 문제일 것이다. 원래 언어의 구조를 좀 더 드러내 다른 문화를 느끼게 하는 방향으로 번역할 것인가, 아니면 번역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번역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런데 문자를 번역하는 일과 다르게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 주는 통역이라면 조금 다른 양상이 된다. 한쪽이 상대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통역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말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사랑합니다"라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 제3자의 입장에서 "사랑한답니다"라고 해야 하는가? 당연히 말한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합니다"라고 통역한다. 그 말을 통역자의 감정이 담긴 말로 받아들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드라마에서 무희를 향한 히로의 고백을 호진이 제대로 통역하지 않는 장면이 있다. 이미 무희와 마음을 주고받은 호진으로서는 아무리 자신의 일일지라도 다른 남자의 고백을 전하기는 싫었던 것. 통역사로서는 낙제이지만 무희를 향한 마음은 합격이다.

드라마에는 또 다른 통역사가 있다. 바로 무희의 속마음을 대변하는 도라미라는 존재다. 무희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난 후 환영으로 나타나던 도라미는 결국 가상 인격이 돼 무희의 몸을 조종하기에 이르는데, 현실의 무희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도라미가 무희의 진심을 호진에게 전한다.

호진 역시 도라미를 통해 무희의 숨겨진 본심을 확인하고 자신도 훨씬 진솔하게 도라미 상태인 무희를 대한다.

이처럼 사랑의 언어에 서툰 두 사람 사이를 이어 주고 사라지는 도라미. 그런데 알고 보니 도라미가 영화 속 배역이 아니라 무희와 똑같이 닮은 무희 어머니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어릴 적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무희는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고 어머니의 모습과 함께 사건의 모든 진상을 자신도 모르게 기억의 바닥에 가둬 버렸다.

살아남기 위해 어릴 적 기억을 없앤 무희는 어머니의 모습인 도라미를 영화 속 배역이라고만 생각한다. 무희 자신과의 통역이 되지 않은 것이다.

시간이 흘러 무희가 스스로와 소통하게 한 힘은 '화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긴 세월 묻어 둔 어릴 적 아픔을 마주하고 나의 어린 시절과 화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도라미는 사라지고 무희만이 온전히 남는다.

'이 사랑 통역 되나요?'는 자신의 마음에 진솔한 것이 스스로는 물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한 소통과 화해임을 말해 주는 드라마다. 드라마의 한때 제목이 '구원의 통역'이었던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대행 스님

정신계의 자기 주처를 믿고 세상을 한번 새롭게 걸어보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시급하다는 게 뭔가? 우리의 마음을, 정신계를 모르기 때문에, 지구라는 우리의 집, 공기 주머니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들이 차원이 높아지지 못해서 지구에서 에너지가 부족하다 해도 그 에너지를 끌어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못 된단 얘깁니다. 이 허공에도 모든 생명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끌어 쓸 수 있다는 사실은 부처님께서 여러분한테 벌써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대로 이 자리에서…, 삼천 년 전도 그대로 이 자립니다. 후도 없고 전도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 가정을 지켜 나가고 우리 사회를 지켜 나가는 데도 이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도리를 확고부동하게 알고 내 마음이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벗어나는 마음이라야 체가 없는 데는 체가 없는 대로 용무를 하고, 용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데서 작용하는 거를 용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작용도 할 수 있고 보이는 데서 작용도 할 수 있고 이래야만이 이게 평등하게 해 나갈 수 있는,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된단 얘깁니다.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볼 때에, 전 세계로 봐도 그렇지마는 더더욱 한 가정과 같은 우리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중에서도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들 해 보셨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독교나 가톨릭교 불교, 모두가 타의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나도 전자에 천주교에 입교를 해서 좀 다녀 봤습니다마는, 자기가 잘못해 놓고서는 고해성사를 한다는 게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떨까 저런 건 어떨까 하고 발걸음을 걷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됐습니다마는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타의에서 구한다면 내 어머니 못났다고 잘난 딴 어머니 찾는 거와 똑같습니다. 못났든지 잘났든지 자기가 자기 몸을 움죽거리게 하고 가게 하고 오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만나게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억겁 동안 진화를 시켜서 형성시켰고요. 지금도 형성시켜서 이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참 자기를 못마땅해하고 자기 심봉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아서 자기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면 그거는 손해도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손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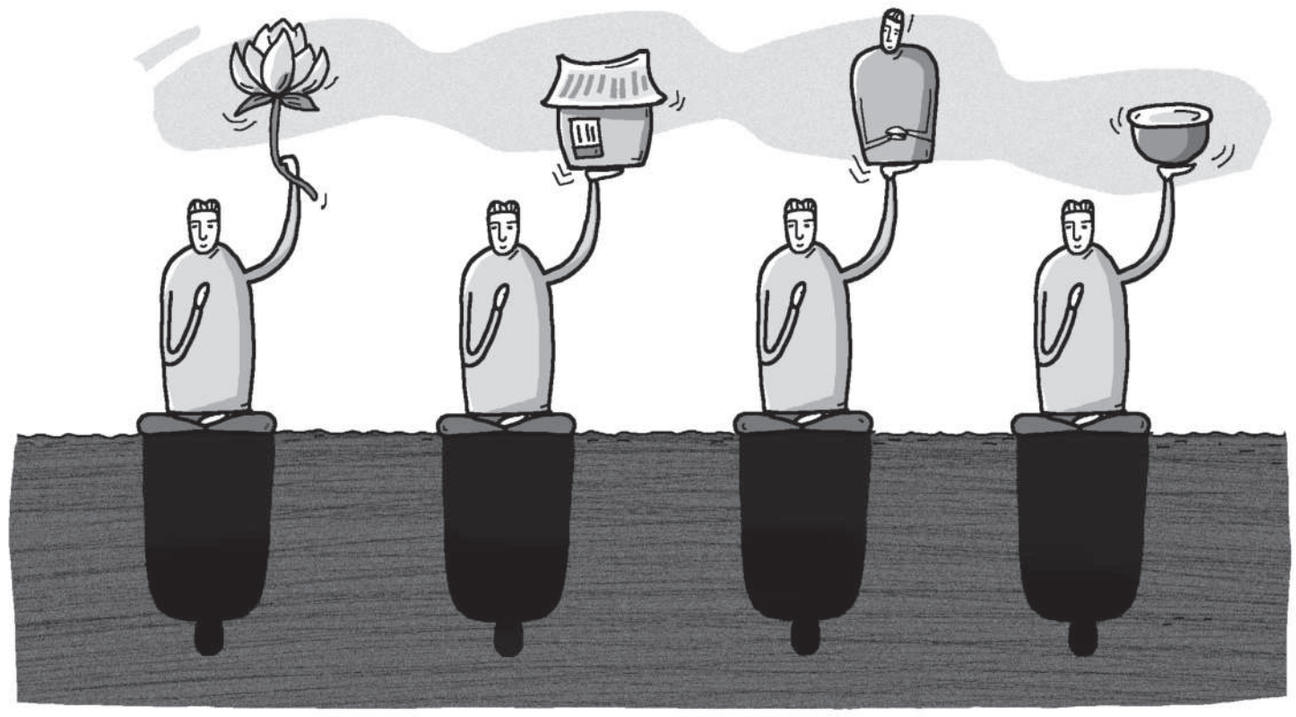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오든지 불교인이 오든지 다 똑같이 대답해 줍니다. 내가 대답하는 거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다 더불어 같이 한 거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기 주님은 자기 주처에 있는 것이지 딴 데, 타의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제 나무에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려보내고 또 태양력이나 공기력을 흡수해서 내려보내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익이 있고 공덕이 있는 거지 어떻게 이 뿌리가 저 뿌리를 믿습니까? 이 뿌리가 저 뿌리를 믿어서 에너지가 온다면 어유,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진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지식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나무가 네 뿌리를 믿어서 푸르르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걸랑 제 나무에서 익혀라. 제 나무에서 익는다면 그 무르익은 과실의 맛은 일체 만물만생이 다 먹고도 되남느니라." 과실 하나 가지고도 말입니다. 그거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종자 하나를 심어서 그 종자가 한 나무에 얼마나 많이 열립니까. 열리면 다들 먹이고도 그 종자는 되남죠? 끝 간 데 없이 먹이고도 되남죠?

그러니 천당 지옥이 따로 있다고 하지 마시고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짊어지워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어떤 땐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내놓고 남한테 보시를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진짜 자비한 보시라면 길에 가다가도, 옹기종기 애들을 데리고 추운 데서 떨고 있거나 더운 데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거나, 쫓겨나서 집을 얻으려도 돈이 모자라서 못 얻고 오갈 데 없이 헤맬 때 그냥 아무거라도, 하다못해 재를 지내 달라는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주는 게, 그게 재를 잘 지내 주는 일이죠.

그게 진짜 보시지, 내가 한다는 게 없이 해야 보시지 내가 한다고 하고 내가 했다고 하고 보시하는 건 보시가 하나도 안 돼요. 자기한테 요다음 생에, 세세생생의 예금 통장이 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더불어 같이 살고 더불어 둘이 아닌 까닭에, 나를 내가 도운 건데, 나를 위해서 내가 한 건데 누구한테 잘했다 못했다 하겠습니까? 가게 물건을 사러 갔을 때에 물건을 하나 샀으면, 얼마짜리든 돈을 주고 물건을 샀으면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단 얘깁니다.

이런 거와 같이 여러분은 정신계를 좀 더 추구해서, 나를 지금 이끌어 가는 놈이 누군가, 나를 공부하게 하는 놈이 누군가, 나를 군대에 입대하게 하는 놈이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있으니까 한 거 아닙니까? 누가 갖다 넣은 것도 아니고 누가 뺏어 가는 것도 아니죠. 행복을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서 행복한 거지요. 그러니까 누가 하라 말아라 한 게 아니라 바로 자기가 생겼으니까 하게 된 거죠. 그러니 그렇게 되게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구냐는 얘깁니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속에,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서는 천차만별의 말, 뜻, 행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블랙홀이라는 그 큰 별성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이 지구가 내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행성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태양이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부처님께서는 "만 명이 깨달아도 일 불이니라. 그 일 불의 마음은 바로 내가 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혹성이 팽창이 되거나 타 버린다거나 이래도 내가 그것이 되는 까닭에 내가 나를 죽이는 법은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이끌어 갈 수 있다 이런 거죠, 수명을 길게 할 수도 있고.

이 한 가지를 비롯해서 일체 만법을 다 알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억겁을 통해서 나온 것을 어떻게 한마디로 다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근본적인 나!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벌어졌다. 나로 인해서, 바로 참나로 인해서 껍데기인 나가 지금 기계처럼 움죽거리고 있다. 그러니 움죽거리는 것도 그 속에서 작용을 해서 움죽거리게 하니까 내가 움죽거리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마음이 발전되면…, 옛날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저쪽 군사는 천 명인

☞ 20면으로 계속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 하나 건지는 데도 내가 그 사람이 돼줘야 합니다

☞ 19면에서 계속

데 이쪽에는 오백 명밖에 안 됐답니다. 그래 그것을 다 해결을 하기 위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생명들의 의식을 모두 투입했습니다. 자기 군사들 오백 명한테 투입을 하고 또 그쪽에는 그쪽대로 투입을 해서, 모두 자기 군사가 아닌 줄 알고 싸워서 오백 명을 다 해치우더랍니다. 이거는 그냥 옛날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물체가 오면 '아, 저기서 오는구나!' 이렇게 보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거는 누가 덜미를 쳐도, 누가 모가지를 친다 하더라도 못 보니까 몰라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군사 오백 명을 가지고 천 명을 이겼는데, 죽인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싸움이 멎고 편안하게 잘됐더랍니다. 피리 하나를 가지고도 그렇게 했고, 나무의 잎사귀 하나하나를 군사로 만들어서 투입을 해 가지고 이기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럼 지금 발전된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대로 천차만별의 그 마음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마음은 한계가 없어서 허공에 하나의 마음이 꽉 찰 수도 있는 거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니까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해도 모두 해 보지 않았으니까 아리송하고 모르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맛있는 자장면을 안 먹어 보고 얘기도 들어 보지 않았더라면 먹고 싶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먹어 보고 해 보고 했으니까 그게 하고 싶고 먹고 싶지, 보지도 못하고 먹어 보지도 못하고 맛도 모르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 들었다면 그건 아마 발전도 할 수 없고 먹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항상 '너만이, 너만이 할 수 있어!' 하면서, 바로 아까 컴퓨터 얘기 했죠? 구정물이 나올 때는 거기다 '구정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너니까 구정물이 안 나오게, 맑은 물 나오게 하는 것도 너야.' 하고 되입력을 한다면 구정물이 바로 말간 물로 화해서 나옵니다.

그런 것과 같이 팔자 운명은 없습니다. 모두 살기도 힘든데 여기 뭐가, 이사 가는데 손이 있어서 못 간다, 날짜를 봐야 한다 이러는데, 뭐가 있다고 날짜를 봅니까? 내가 '어느 날이 좋겠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날로 이사를 하는 거고…. 이 한마디로 다 아셔야 됩니다. 재 지내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 들으시라고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재를 지낼 때도 떡 하나면 됩니다. 물, 초, 향, 떡 하나. 왜냐하면 그 살던 의식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버둥거리다가 갔는데 또 먹는 거를 갖다가 상에 놓고 의식적으로 항상 붙들어 매 놓는다면 이 공기 주머니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말려서 승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해도 아니 되고 너무 차려 놔도 아니 되고 그냥 떡 하나면 족하지 않으냐는 겁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떡 하나 가지고 다 먹고도 그 떡이 되남는데 말입니다.

이 도리를 알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모두 여러분이 마음속에다가…, 급하면 그렇게 차려 놓고 할 사이도 없죠. 상황에 따라서 급하면 그냥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여기다가…. 조상도 전부 한 줄에 꿰여 있어요. 콩 종자라면, 콩씨라면 콩씨대로 놓여 있고 팥씨라면 팥씨대로 모여 있지 콩씨하고 팥씨하고 섞어 놓는 법 봤어요? 과일도 전부 끼리끼리 모아 놓으면서도, 그것도 큰 것과 작은 걸 골라서 또 놔요. 인간 자체 살아나가는 것도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모이고, 기사님들은 기사님대로 자동적으로 모이고, 군인은 군인대로 자동적으로 모입니다. 아, 한번 보세요, 안 그런가. 제가끔 다 저절로 자동적으로 모여서 살죠? 그리고 더불어 도와 가면서 살죠?

만약에 옷 짜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옷을 지금 어떻게 입고 있으며, 농사짓는 사람이 없다면 농사지은 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 먹고 지내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농사짓는 데에 가면 농사꾼이 높고, 배 타는 데 가면 뱃사공이 높고, 옷 짜는 공장에 가면 옷 짜는 공장 주인이 높고, 모두가 제각기 높으니라. 그래서 평등하니라." 하고요. 요새 내가요, 치아가 빠져서 치과에 가니까 치과 의사, 원장님이 제일 높습디다. 거기 가니까 내가 아주 밑에, 딱 그냥 밑으로 가 버리잖아요. 하하하….

그러니 이 만물만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라를 이끌어 가는 어버이라면 소 또는 말, 사람 등 어느 차원의 도량이든지 다, 그 도량에 가면 내가 그게 돼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얘야, 소를 건지기 위해서는 내가 소 속에 들어가서 내가 소가 돼야 하느니라. 그렇지 않다면 소가 저항력을 느껴서 한마음이 되지 않느니라. 내가 소가 돼야 소도 나에게 저항력을 느끼지 않아서 한마음이 되니까 건질 수 있는 건데. 안 그러냐?" 하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소뿐이 아닙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우주 또는 별성, 태양, 어느 혹성이라 할지라도 어느 거 하나 아니 되는 게 없이 되는 거죠. 저항력을 느끼지 않게끔 하나가 돼야 건지죠.

> 농사짓는 데 가면 농사꾼이 높고 배 타는 데 가면 뱃사공이 높고
> 옷 짜는 공장에 가면 옷 짜는 공장 주인이 높고
> 모두가 제각기 높으니라.
> 그래서 평등하니라.

사람 하나 건지는 데도 내가 그 사람이 돼 줘야 건져지는 거지 내가 잘났다고 그 사람을 끌려고 애를 쓰면 절대로 그건 이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모두 한 마음이 되는 거지 내가 죽지 않는다면 한 마음이 어떻게 되며, 내가 베풀지 않는데 어떻게 상대에서 베풉니까?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해도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여러분도 다 그렇고, 또 각자 부처님들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지옥에 갈 땐 지옥고에 있는 거고 또는 중세계에 갈 때는 중세계에 있는 거고 상세계에 갈 땐 상세계가 주어지는 거니라. 그러니 어느 것이 내가 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했다고 할 게 하나도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온 자리도 없기 때문에 갈 자리도 없느니라." 하고요. 보세요!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냥 모습만 찰나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모습과 차원이 주어지죠. 주어지는 모습과 차원은 자기가 한 대로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은 중세계다. 하천세계로 떨어지거나 상세계로 올라가는 중세계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니까 공부를 해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니까 너 먼저 알아라." 이런 거죠.

그러니 소년 소녀 가장 돕기라고 하지만 그게 내 자식들입니다. '예전에 내 자식이었을 때 그렇게 불행했었고, 예전에 나였을 때 그렇게 불행했었고, 그러니 그 아픔을 어찌 다 말로 하랴.' 하고 그것을 내 아픔처럼 생각해야 되고, 물질적인 보시도 해야겠지만 정신적인 보시가 또 있습니다. 정신적인 보시는 둘 아니게 같이하는 공덕을 쌓은…, 그 쌓은 것도 없는 것이 공덕이죠. 공덕을 쌓은 그거를 한마음으로 같이한다면 차차 차차 그 애들이 잘되고, 마음들이 이리로 가서 나쁠 거를 저리로 가게 만들고,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게 마음 보시입니다. 그래서 하는 사이 없이 하는 것이 마음의 진짜 자비한 보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보시를 해서 잘되기 전에 벌써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애들이 또 활력이 없으니까 우선 먹을 걸 줘 가면서 정신적으로 보시를 해 줘야 잘될 거 아닙니까? (중략)

하여튼 그렇게 광대하고 무변해서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게 불교입니다. 불교는 그렇게 어떤 곳의 머리 깎은 스님네들만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집이 허물어지면 주인이 고치지 집이 서둘러서 고칩니까? 아, 생각들 해 보세요. 주인이 고치죠? 그러니까 나의 집합소인 껍데기, 내 집이 헐어지고 어디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집에서 고장 난 건 그 속에서 작용해 주는 바로 자기네들이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은 것도 그 속에서 지은 거니까 허물어지는 것도 그 속에서 고쳐야죠. 이열치열이란 말 있죠?

그러니 여러분도 앞날을 위해서 정신계를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정신계와 물질, 즉 정신계와 이 몸이 둘이 아니게 움죽거린다는 거를 진실히 믿으시고 자기 몸, 자(子)는 보이지 않는 정신계의 자기 부(父)를 진짜로 믿어서 둘 아니게 평등공법을 쓰신다면 아주 좋으실 겁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세세생생을 거쳐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지금 이 마음공부 하다가 그 몸을 벗는다 하더라도 그 차원은 그대로 가지고 요 세상에 다시 와서 또 공부하실 겁니다. 이 공부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서, 이 세상에서 살 때 원수를 지고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혼란을 일으킬까 봐 아예 까맣게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 공부를 한 사람들은 우주 한울에서, 즉 도리천에서, 즉 말하자면 열쇠를 주는 것이 바로 해인을 받는다고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일체제불의 마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체 모든 중심에서 증명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그대로 자기 정신계의 자기 주처를 진짜로 믿고, 자기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세상을 한번 새롭게 걸어 보세요. 그럼 실험도 되고 체험도 되고, 눈이 밝아져서 바다를 내다볼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 물고기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아하! 자동적으로 그 물 밑까지, 태양력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물 밑까지 살리게 하기 위해서, 또 먹을거리를 주기 위해서 물 밑까지 파도를 치고 그냥 돌게 하는구나.' 하고 알게 될 겁니다. 파도가 치고 온통 모두 물이 뒤집히면 '왜 그런가?'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고생하는 것이 고생을 하다가 보면 느끼는 점이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는 그 고생한 게 계기가 되어서 그게 참 큰 재산이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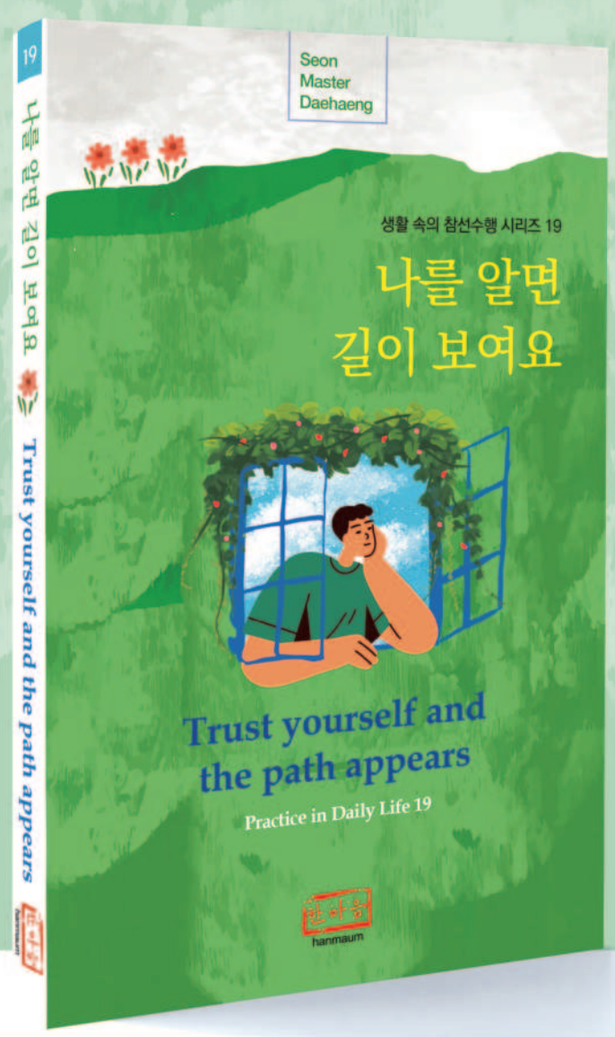
그러니 오늘 요것은 말로는 어떻게 다 할 수 없구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 보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체험도 되시고 또 자기가 진짜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기는 의식적으로 그냥 사는 거니까요.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6년 1월 21일 국내지원 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

공감으로 소통하는 어르신 상담의 길

② '피해자'에서 벗어나 삶의 주인으로 바로 서기

누구 때문이 아닌, 내 선택이었음을

해소되지 않은 분노와 피해자 정체성

상담실을 찾은 박상담(67세·가명) 어르신은 40년 전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삶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청년 시절 사랑했던 연인과의 이별이 큰누나의 강압적인 개입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며, 그 결과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깊은 원망을 표현했습니다.

어르신의 이러한 피해 의식은 노년기의 고독 및 경제적 어려움과 결합해 큰누나를 향한 원망이 분노로 나타났으며, 결국엔 어르신 본인을 '자기만 위하는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만 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특히 상담 도중에 나타난 호흡 곤란을 동반한 정서적 반응은 심리적 고통이 신체적 긴장으로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타인 향한 아픈 화살과 과거 기억에 멈춘 오늘

어르신의 심리 구조에서 관찰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인지적 경직성(Cognitive Rigidity)입니다.

현재의 불행을 오직 과거의 한 사건과 특정 인물(큰누나)의 탓으로 전가함으로써, 어르신은 삶의 주체성을 내려놓은 채 스스로를 '피해자'라는 무력한 존재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책임의 소재를 외부 환경에서 찾는(External Locus of Control) 상태로, 당장의 억울함을 달래 줄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개선할 동력마저 앗아 가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실제로 어르신은 대인관계에서 유독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만 만난다고 느꼈으나, 이는 상대방에게 '선을 넘어도 된다'는 무언의 허용을 해 온 측면이 큽니다.

관계 악순환, 무너진 경계선이 부른 착취와 화

이러한 어르신의 대인관계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갈등은 타인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수용해 온 행동 패턴과 깊이 연관돼 있습니다. 어르신은 스스로 이를 '희생'이나 '착한 성품'으로 여겼으나, 사실 그 이면에는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경계 설정의 실패는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무언의 신호를 주게 되고, 이것이 보상받지 못할 때 발생하는 화(火)는 다시 피해 의식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형성하게 됩니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나, '불쌍한 피해자' 아닌 '변화의 주체'
과거 못 바꾸지만 '지금의 나' 바꾸며
내 선택으로 삶의 열쇠를 되찾아 와야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며 관계를 시험하는 태도 또한 이러한 불안정한 내면의 투사로 무의식적 방어기제가 재현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서 '삶의 주체'로 나아가는 여정

상담사는 어르신이 과거의 상처를 재구성(Cognitive Restructuring)해 삶의 주도권을 되찾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화 이면에 숨겨진 '외로움'과 '관계 욕구'를 인지하고, 단순히 화를 가라앉히는 것에서 나아가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고 현재의 삶에서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이 38년간 성실히 직장 생활을 이어 오며 자가 마련 및 건강 관리에 대한 성취를 강조함으로써, 내면의 자원과 주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어르신은 과거의 이별이 단순히 누구의 압박에 의한 강요가 아니라, 당시 그 상황을 수용했던 '자신의 선택'이 포함돼 있었음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특히 타인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전하는 자기주장 훈련(Assertiveness Training)은 어르신을 수동적인 피해자에서 능동적인 변화의 주체로 바로 세워 줬습니다.

이를 통해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가슴속에 품어 온 화를 내려놓고, 비로소 평온한 오늘을 마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망이라는 독화살을 내려놓는 법

〈중아함경(中阿含經)〉에 '독화살의 비유'로 잘 알려진 〈전유경(箭喩經)〉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화살은 이미 일어난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이를 제대로 뽑아낸 후 그 상처를 되새기며 해결책을 찾아야지만 스스로를 괴롭히는 원망인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거나 맞아도 곧바로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이번 사례는 노년기 남성 내담자가 겪는 인지적 고착과 관계적 단절을 잘 보여 줍니다. 노인 상담에서 과거의 후회와 원망은 심리적 장애물이 됩니다.

어르신의 사례처럼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는 생각은 노년기의 통합감을 방해하고 우울을 심화시킵니다.

진정한 마음의 자유는 상대방이 사과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넘겨줬던 내 삶의 열쇠를 지금 이 순간 '나의 선택'으로 되찾아 오는 데 있습니다. 과거의 인연이 '다함[滅]'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수레의 운전자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함상원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어르신상담센터 실장

건강 365

55 '조용한 시력 도둑' 녹내장

조기 발견 중요, 치료 시점 놓치지 말아야

우리는 흔히 눈이 침침하면 노안으로 생각하며 지나치기 쉽다. 그러나 안과 질환 중 상당수는 초기에 자각 증상이 거의 없으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어 버린 경우가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조용한 시력 도둑(Silent Thief of Sight)'이라는 별명을 가진 녹내장은 대부분 오랜 시간, 소리 없이 눈 속 신경섬유의 손상이 진행돼 시야가 서서히 좁아지는 병이다.

우리가 글씨를 읽고 얼굴을 인식하는 등 생활하는 동안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시각 정보는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 신경이 손상되면 시력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심 시야에 이상이 생기는 황반변성이나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망막의 병들과는 다르게 녹내장은 시야 바깥쪽부터 조금씩 좁아지며, 눈의 중심부 시력은 비교적 오래 유지되므로 변화를 스스로 알아차리기는 매우 어렵다.

시신경의 상당 부분이 이미 손상된 후에야 "어두운 곳에서 잘 안 보인다", "벽이나 문틀에 자꾸 부딪힌다" 같은 증상을 느끼곤 한다. 환자 본인이 이상을 느낄 때는 이미 시야가 크게 좁아진 상태로, 중기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다.

한 번 손상된 시신경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눈이 불편한 점이 없으니 괜찮겠지", "바쁘니 다음에 검사 받아야지"라는 등으로 시간을 미룬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 없음'이 경계해야 할 신호다.

지난주 필자의 외래에 3년 만에 안과를 다시 찾은 환자가 있었다. 3년 전 녹내장을 진단받고, 안약을 처방받아 몇 달간 점안했으나 이후 바빠서 병원 내원하지 못했고, 안약도 처방받지 못한 채로 지내다 왔다고 했다. 그가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크게 불편함을 못 느꼈으나 최근에 눈이 침침해진 것 같다며 오랜만의 검진을 위해 내원했다고 말했다.

검사 결과 약을 점안하지 못한 탓에 안압은 높은 상태였다. 또 한 눈은 손가락의 개수 정도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시력이 떨어졌고, 나머지 한 눈의 시야 손상도 이미 많이 진행돼 있었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눈 신경섬유 손상 진행돼 시야 좁아져
이상 감지 시 중기 이상 진행된 경우 多
40세 이후 발병 증가, 정밀 안과 검진 要

필자에게 "살려 달라"고 하는 환자를 보며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안약이라도 주위 동네 병원에서 처방받아 점안을 계속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초기 녹내장은 안약 한두 가지로 충분히 잘 조절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레이저나 최소침습수술(MIGS)과 같은 치료 옵션도 다양해졌다. 중요한 것은 치료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시신경 손상은 되돌릴 수 없지만,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하면 평생 불편함 없이 지낼 수도 있다. 반면 늦게 발견되는 경우에는 매일 여러 종류의 안약을 넣어야 하고, 이미 좁아진 시야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운전이 어려워지고, 삶의 질 자체가 매우 떨어질 수 있다.

녹내장은 40세 이후부터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며, 고도근시, 가족력, 스테로이드 사용, 고혈압 등의 요인이 있는 경우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건강검진에서 기본적인 시력 검사만 통과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전문 장비를 이용해 시신경 상태와 안압, 각막 두께, 시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정밀 안과 검진으로 충분히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 이미 치료 중인 경우에도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병의 진행을 조절하고, 더 나은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의학 기술이 크게 발전했다 하더라도 늦게 발견한 녹내장은 의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래서 녹내장은 치료보다 조기 발견이 더 중요하다고 항상 환자분들에게 강조한다.

녹내장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적인 검진은 실명 위험을 줄이고 병의 진행을 조기에 발견하며 치료의 선택지를 넓히고 삶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모두 눈 건강을 잘 챙겨서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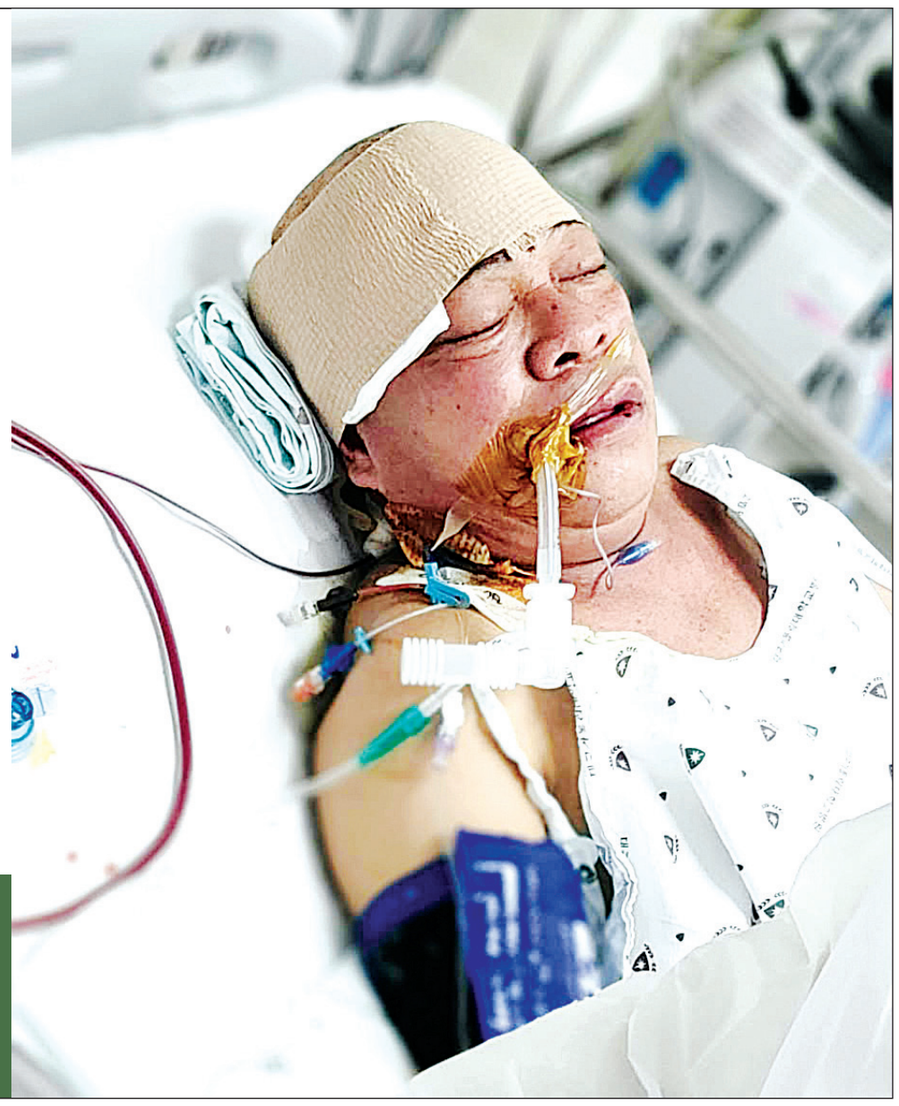


김나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안과 교수

일일시호일

타국서 스러진 생명…
남은 병원비에 장례조차 막혀

거창 거주 건설 노동자 베트남 출신 따이 씨
뇌출혈로 두 번의 수술…끝내 의식 회복 못해
병원비 4600만 원 미납…시신 영안실 안치
장례 · 유해 이송 앞둔 가족들 "막막한 현실"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우리 복지관은 지금

3. 조계종사회복지재단 – 하

미래를 준비하는 불교사회복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2024년부터 대학가 인근 사찰에서 청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청년밥심'을 진행해 오고 있다. 사진은 대표이사 도륜 스님이 지난해 11월 4일 서울 연화사에서 대학생들에게 배식하는 모습.

전국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만행 결연 후원, 긴급 구호 등과 같은 사업은 도움이 절실한 사회와 이웃의 곁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실천이었습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이러한 현장 중심 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삶을 지탱하고 일상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재단은 눈앞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문제들 역시 외면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청년 세대의 관계 단절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바른 만남과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저출생 인식 개선 대응 사업, 청년 사찰 음식 무료 제공 사업인 '청년밥심'이 이러한 문제의 시각에서 출발한 사업입니다.

재단은 결혼과 출산, 관계의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나 책임으로만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넘어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여기며 불교적 관점에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교사회복지가 시대의 질문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현장의 고통과 사회적 과제를 함께 끌어안는 복지 실천은 제도나 사업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불교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종사자가 있습니다. 시설에서 이용자의 삶을 돌보고, 난치병 어린이와 가족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며, 결연 후원을 통해 이어진 인연을 지속적인 관계로 가꾸는 역할은 결국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이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불교사회복지 인재 양성을 중요한 역할로 삼고 있습니다. 재단은 교육·연수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은 물론, 불교적 가치와 윤리를 바탕으로 한 실천 역량을 함께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를 단순한 직무 이상으로 여기며, 수행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연구 사업 또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재단은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연구로 정리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불교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사·연구 성과는 다시 교육과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며, 미래를 준비하는 자산으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현장에서 자비를 실천하며 사회복지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이제 재단은 다가올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눈앞의 고통에 응답하는 실천과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고민하는 시선, 그리고 이를 이어 갈 사람과 미래를 키우는 노력이 함께할 때 불교사회복지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불교사회복지의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어 나갈 것입니다.



원예린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주임

남산에서 묻는 마음의 안부 ① '선명상 클래스' 비움과 채움

불안의 시대, 남산에서 찾은 생명의 숨

서울 남산 충정사는 새해를 맞아 1월 한 달 동안 '남산-숨, 쉼'을 주제로 선명상 클래스를 열었다. 한 해의 시작점에서 잠시 멈춰 자기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선명상과 마음돌봄 방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클래스의 주제를 '숨, 쉼'으로 정한 것은 수행의 시작이 '숨'이기 때문이다. 내가 들이마시는 숨은 생명으로부터 오고, 내뱉는 숨은 다시 대지로 돌아간다.

이 단순하고도 근원적인 호흡의 순환을 통해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자연과 우주, 타인과 연결된 고귀한 생명임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다.

홍보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프로그램 대부분이 마감될 정도로 반응은 뜨거웠다.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참가자들은 남산의 품안에서 비로소 몸과 마음이 동시에 쉬는 '진정한 쉼'을 경험했다.

특히 옻칠 선명상실에서의 명상은 프로그램의 백미였다. 참가자들은 천연 옻칠의 안온함과 치유 에너지가 스며든 공간에서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웠다.

이들은 선명상을 통해 불안과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일상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달라져야 함을 알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참가자 A 씨는 "늘 머릿속이 복잡해 잠을 설쳤는데, 내 숨소리에만 집중하다 보니 비로소 '내가 살아 있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참가자 B 씨는 "명상하며 숨과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그동안 나 자신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알게 됐다. 이번 경험은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나를 돌보고, 타인을 조금 더 너그럽게 바라보게 하는 기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남산-숨, 쉼' 주제 선명상 클래스 개설

참가자들, 불안 완화와 긴장 이완 효과

자타 보듬는 선명상 많은 이 함께하길

강사진들은 참가자들의 변화를 통해 선명상의 가능성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말한다. 지도 강사는 "처음에는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명상이 깊어질수록 얼굴에 자비로운 미소가 피어나는 모습을 보며 수행의 힘을 실감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소중히 하는 명상 그 자체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함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선명상 클래스'는 불교의 선(禪) 수행이 어떻게 현대인의 언어로 번역돼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준 사례라 생각한다.

도심 속 사찰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펼쳐진 이 짧은 여정은, 갈등과 혐오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 '나로부터 시작되는 생명 존중'이라는 가장 근원적이면서도 강력한 해답을 제시했다.

이제 명상은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더 나와 주변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됐는가"를 묻는 수행으로 전환돼야 한다.

남산에서의 숨 고르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참가자들의 일상에는 이미 새로운 생명의 숨결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이 작은 떨림이 불교계, 더 나아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나가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긍정하고 타자를 보듬는 선명상의 길로 들어서길 서원해 본다. 충정사의 '선명상 클래스'는 2월 '정월마중 선명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덕운 스님
서울 충정사 주지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④ 검박함이 꽃보다 곱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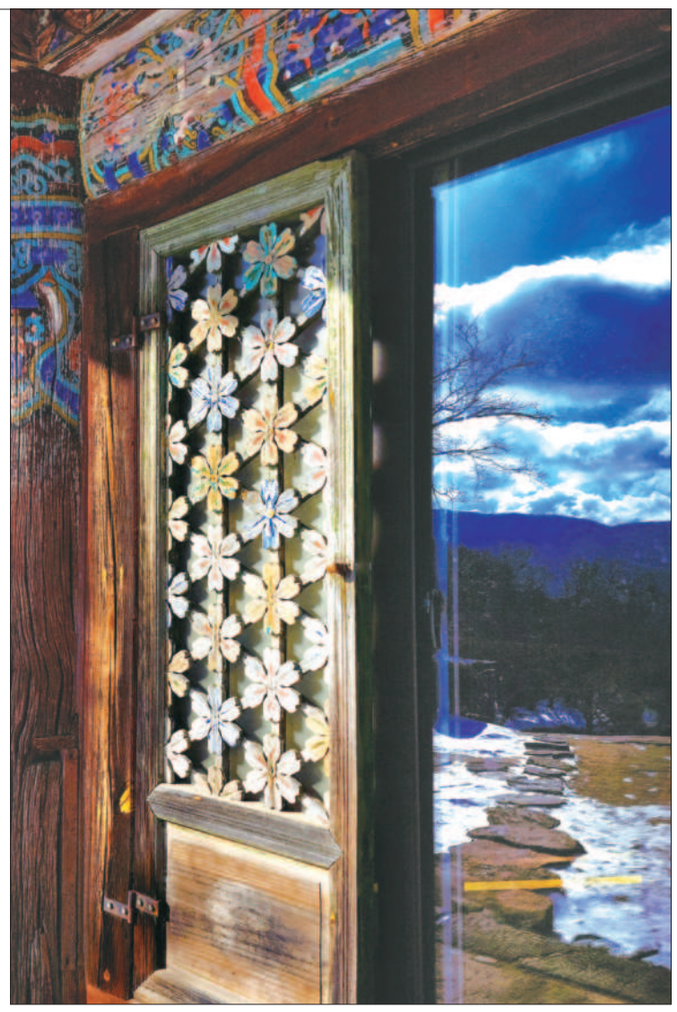
동안거 중의 김천 수도암은 깊이 침묵하고 있었다. 영하의 대기는 최대한 몸을 조여 겨울 산사의 침묵을 옹위한다. 숨도 아껴 쉬어야 했다. 침묵을 훼방하지 않기 위해서. 한 호흡에 한 걸음씩, 징검다리를 건너듯 적멸의 시간을 디뎠다.

대적광전 앞에서 뜻밖의 풍경을 만났다. 열린 꽃문에 또 하나의 세상이 열려 있었다. 유리창이 거울이 되어 머금은 풍경이다. 이 그림은 단순한 반영이 아니다. 절대고독의 시간 속에서 만물이 서로를 온전히 승인하는 현장이다. 또 한편으론 수도암이 겨울을 나는 진솔한 생활상을 가감 없이 드러낸 모습이기도 하다.

수도암은 수도산(1317m) 8부 능선 해발 약 1000m에 자리해 있다. 전국의 선방 가운데 사불산 대승사, 오대산 상원사와 함께 가장 추운 곳으로 이름 높다. 그래서 법당 안쪽으로 유리창 덧문을 달았다. 한지 바른 창으로 겨울바람을 견디는 건 사치스러운 객기다.

수도암 대적광전의 꽃살문은 질박하다. 억지 고졸(古拙)로 멋을 내지 않았다. 1969년에 법전 스님(조계종 11·12대 종정 역임)이 중창하면서 당시의 형편에 맞추어 지었을 뿐이다. 꽃살을 만든 소목장은 그 뜻을 신실하게 받들었다. 수도암 꽃살문은 검박함이 꽃보다 곱다.

손영자 작가



수도암 대적광전.



빠른 배송 시대, 느림의 자비 배우는 수행

현불논단



성제 정사
위덕대학교 전법원장

요즘 뉴스를 들여다 보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소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쿠팡을 비롯한 유통업체들의 '로켓배송'은 이제 우리 일상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누군가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 새벽같이 나와 밤 늦게까지 일하는 기사님들, 점심을 허겁지겁 먹고 물량을 맞추기 위해 쉴 새 없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분들이 하루하루를 버텨 내고 있다. 누군가의 하루가 그렇게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택배 상자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

불교에서는 인과(因果)를 중시한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이 원리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 구조에서도 예외 없이 작동한다. 우리가 누리는 '빠른 배송'의 편리함은 결코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수면 부족, 근골격계 질환, 피로 누적이라는 고통 위에 얹힌 결과일 수 있다. 편리함이 커질수록 누군가의 과로는 더 심해지고, 그 구조를 외면한 채 살아가는 우리는 결국 그 인과의 고리를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택배를 주문하면 기본적으로 4~5일, 길게는 일주일을 기다렸다. 그 기다림은 때로는 설렘이기도 했고, 도착한 물건 하나에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던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2~3일만 늦어도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온다. "왜 이렇게 늦지?", "서비스가 왜 이래?"라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기사님이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의성 리뷰가 올라오기도 한다. 사람들의 기대가 높아질수록 물류 노동자들의 삶은 그만큼 더 조여들 수밖에 없다.

편리함 커질수록 물류 노동자 과로 심화
택배 수령은 노동과 공력 함께 받는 일
'빨리' 대신 '느림'으로 타인 아픔 살펴야

실제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분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새벽에 잠깐 졸아도, 그다음 날은 몸이 아니라 인생이 아프더라고요." 단지 피곤한 하루가 아니라, 삶 전체가 흔들리는 고통이라는 말이었다. 이처럼 우리의 하루는 편리해졌지만 누군가의 하루는 무너지고 있다. 이 구조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결국 공동체 전체의 건강을 위협받게 될 것이다. 자본과 효율이 우선인 시대에 불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불교는 자비의 종교이고 연기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타인의 고통을 내 일처럼 여기는 수행을 권유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시은(施恩)'은 무언가를 베푸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시은은 베푸는 사람의 공덕뿐 아니라, 그것을 받는 사람의 도리와 절제까지 포함하는 가르침이다. 택배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물건 수령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노동과 공력을 함께 받는 일이다. 부처님께서는 "남이 지은 선업을 막지 말라. 남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다. 즉, 노동자의 수고를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일은 결국 공덕을 훼손하는 행위가 되는 셈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느림' 속에 있었다. 천천히 호흡을 들여다보며 천천히 마음을 비우고 천천히 타인을 돌아보라는 가르침. 지금 우리는 너무 빠르게 살아간다. 빠름은 때로는 타인의 고통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삶이 느려질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 느림 속에서 비로소 타인의 아픔이 보이고 자비가 자란다. '하루 늦게 도착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현대인의 자비심이 아닐까.

유희 목적으로 생명 소비하지 말아야

세간과 출세간



최원형
환경생태작가

얼음판 위 동그란 구멍 안에 낚싯대를 드리운 채 입질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한파는 걸림돌일 수 없다. 화천 산천어축제를 찾은 이가 작년 기준으로 180만 명이 훌쩍 넘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란 이름으로 전국 곳곳에 '축제'라고 불리는 행사가 많아진 가운데 산천어축제는 해마다 100만 명을 크게 웃도는 '밀리언 페스티벌'이 됐다.

산천어는 태백산 동쪽 지역에 서식하는 어류로 화천의 고유종이 아니다. 축제에서 만나는 산천어는 전국 각지의 양식장에서 축제를 위해 길러지고 축제 무렵 운송돼 온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축제를 만들면서 강원도라는 지리적 특징과 계곡에 서식하는 어류인 산천어의 조합이 축제로 거듭난 것이다. 더구나 화천은 화천천 주변으로 고지대 골짜기에서 부는 된바람이 워낙 차서 두꺼운 얼음이 안정적으로 얼며 얼음낚시가 축제의 메인 테마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해마다 지구 평균 기온은 상승 중이다. 폭우가 쏟아져 얼음낚시가 무산된 적도 몇 번 있었다. 언제까지 지속 가능한 축제일 수 있을까?

산천어축제가 마냥 반가울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유희의 목적으로 생명을 대상화하는 것은 곧 생명 경시다.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스포츠로 소비하는 경험은 타자의 고통에 무감해질 수 있다. 혹자는 "그렇다면 고기도, 풀도 먹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극단적이라고 하지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행위와 유희는 구분해야 마땅하다.

산천어축제 유희로 물고기 고통 무감해져
EU, 어류 불필요한 고통 방지 조치 시행
동물 축제 지침 공개로 동물 고통 막아야

태어난 모든 생명은 누군가의 생명에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닌다. 산천어는 화천 고유종이 아니기에 축제 기간 제공되는 산천어 가운데 일부가 방류됐을 경우 생태계에 교란종이 될 우려가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최근에 양식산 산천어가 전국의 산간 계곡에 방류돼 자연 번식하면서 생태계를 위협하는 어종이 됐다. 축제 이후 상처 입거나 죽은 산천어가 장기간 물속에 잔류할 경우 대장균이나 비브리오균 등 병원성 미생물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달이 채 안 되는 축제 기간을 위해 각지에서 양식된 산천어를 화천으로 실어 오는 운송 과정에 산천어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얼음낚시에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 축제에 투입되기 전까지 산천어는 강제로 절식을 당한다고 한다. 흔히들 동물이 고통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우리와 통증을 느끼는 방법이 다를 뿐 모두 고통을 느낀다고 과학자들은 일갈한다.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서에는 어류를 감각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양식업자에게 어류의 복지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고통이나 고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여러 비판의 목소리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0년 '동물이용 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여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길 촉구한다.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타자의 생명에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유희의 목적으로 생명을 소비하는 행위는 적어도 멈춰야 한다.

社 說

청년을 '불교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

불교계는 그동안 청년들의 삶을 위로하고 마음의 쉼을 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청년템플스테이, 대학생을 위한 청년밥심,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나는 절로' 등은 청년들이 사찰을 찾고 불교를 친숙하게 여기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오늘날 청년들이 겪는 고통의 깊이와 양상을 고려할 때, 위로와 체험 중심의 일회성 프로그램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청년의 불안과 좌절은 개인의 마음가짐이나 노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낸 구조적 문제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취업과 주거의 불안, 불안정한 노동, 단절된 공동체 속에서 청년의 고통은 점점 만성화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 고(苦)'의 영역에 이르렀다.

청년 문제, 개인 아닌 '사회적 고(苦)' 영역
불교 종책 수립 주체 '청년 거버넌스' 환영

지난 1월 27일 열린 '불교, 청년의 고통에 답하다'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을 불교적 관점에서 정면으로 마주한 자리였다. 발제자들은 오늘날 청년 문제가 교육-취업-결혼-출산-주거-노후라는 '표준적 생애 경로'가 무너진 사회 구조 속에서 빚어진 결과임을 짚었다. 그리고 획일화된 기준으로만 접근해 온 기존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그동안 불교계의 청년 종책과 프로그램은 청년을 '참여자' 혹은 '방문자'로 설정해 왔다. 사찰을 찾아 프로그램에 참여해 위로를 받은 뒤 일상으로 돌아가는 구조 속에서 청년은 여전히 수동적 존재로 머물러 있다. 이는 청년이 실제 종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주체로 서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이명호 인드라망연구소장은 발제에서 "조계종의 청년 프로그램은 청년 고통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기획되고 기능하고 있지만, 그 고통이 생성되는 구조적 조건에 대한 문제 제기로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조계종 포교부가 제안한 '청년 거버넌스 구축'은 주목할 만하다. 청년을 포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 청년들이 직접 종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포교부는 종단 청년 포교 사업의 실행 과제로 주체성 강화와 사찰 유휴 공간 개방, 청년 활동가 육성을 제시하고 '사회적 전법'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단순히 대학 불교학생회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 신행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쟁에 지친 청년들이 사찰에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연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더 나아가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해 불교적 화쟁의 지혜로 응답하는 실천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이 불교 종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서야 한다. 청년 문제는 곧 불교의 미래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청년의 고통을 '사회적 고'로 인식할 때, 불교는 사회 구조와 문명을 성찰하고 전환하는 역할을 실천할 수 있다.

청년은 우리 사회와 종교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가장 정직한 척도다. 청년이 떠나는 불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불교로 나아갈 때 불교는 다시 사회의 고통에 응답하는 종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2월 4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2월 4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2월 4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명불사
- 주 지 : 현심 스님 (속명 : 손영기)
- 주 소 : 경기도 여주시 용강길 195-26 (매룡동)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지구촌 생명살림 공동 캠페인 共生

캄보디아

세계는 한 꽃송이!

아이들의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주세요!!!

어른들의 분쟁 속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아이들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깨끗한 물 한 잔, 마음 놓고 뛰어놀 운동장, 그리고 내일의 꿈을 적어 내려갈 공책 한 권이 이 아이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총성 대신 노래가 퍼질 수 있도록 캄보디아의 일상 회복을 위해 여러분의 자비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피난민과 마을 어린이들을 위해
이렇게 사용됩니다.

긴급 구호 피난민 생필품, 영양식, 의료품 지원

교육 지원 파손된 학교 보수 및 교복, 가방, 학용품

아이들이 다시 연필을 잡을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더해주세요!

후원계좌 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 ※물품 지원 가능

현지방문 2026년 3월

후원 동참 문의 02)2004-8214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나누며 하나되기 로터스월드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